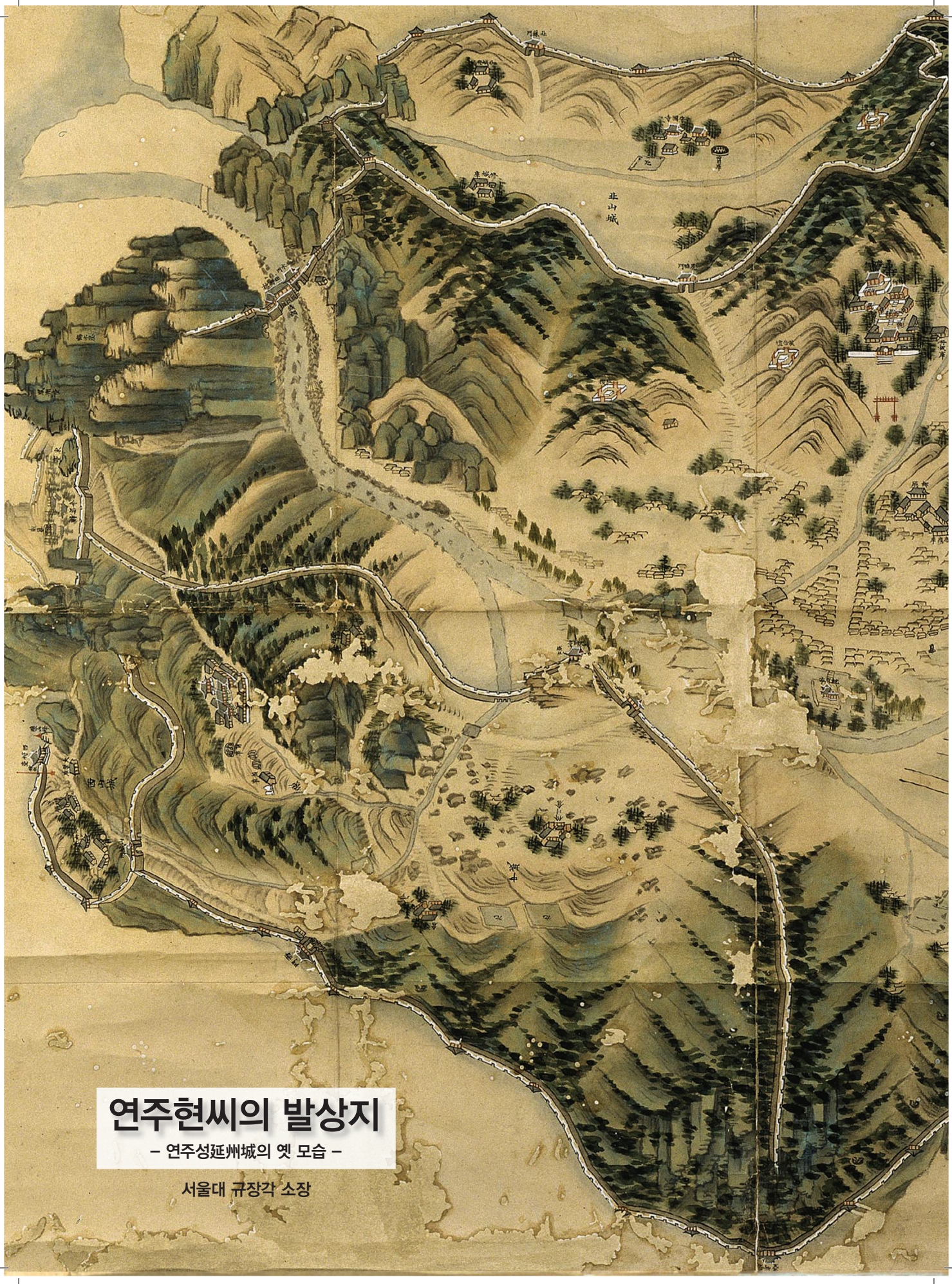
새로 정립하는
延州玄氏 원류사

24世孫 玄昌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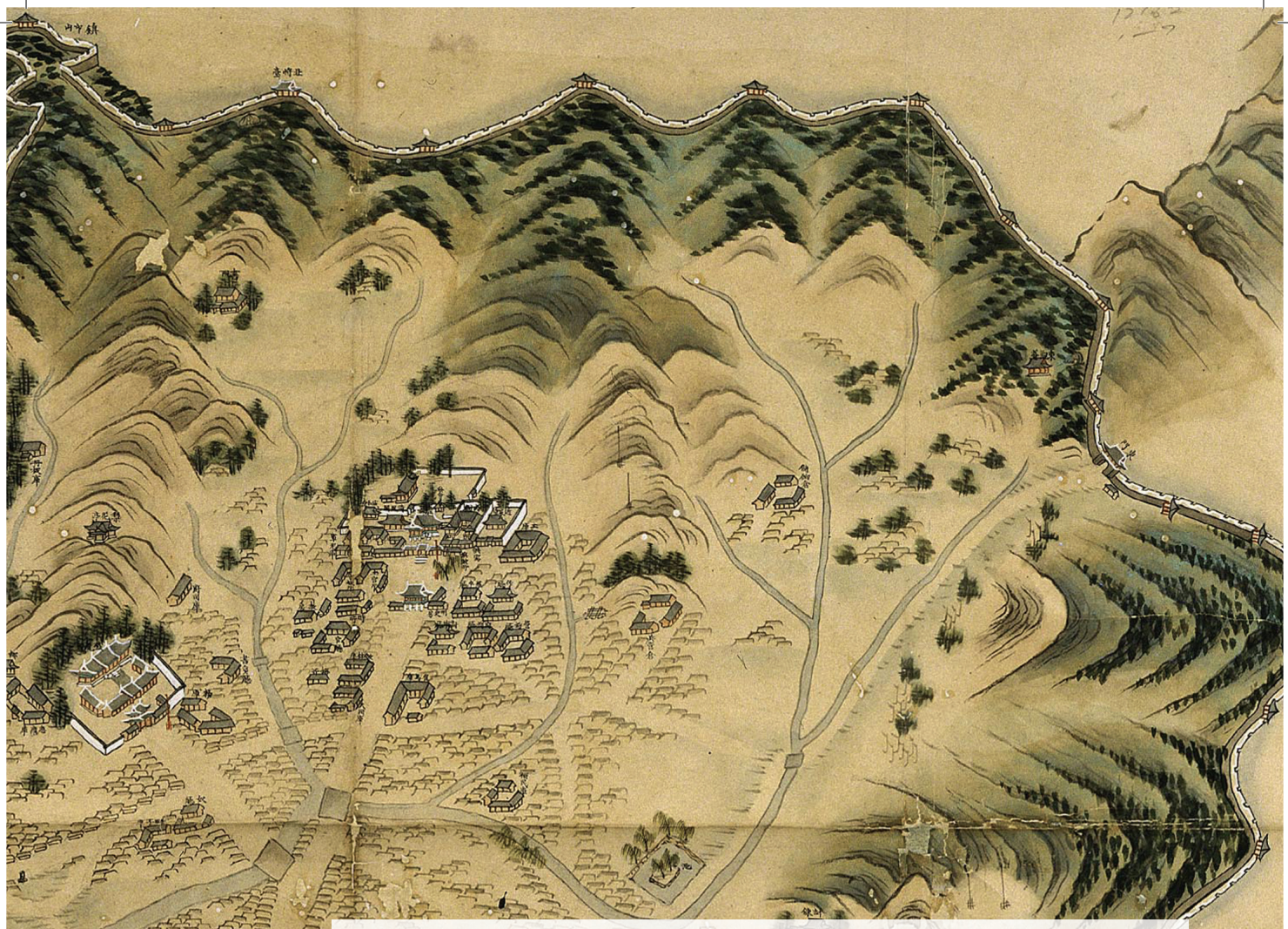
延州玄氏大宗會



연주현씨의 발상지

– 연주성延州城의 옛 모습 –

서울대 규장각 소장



고려사에 빛나는 연주현씨延州玄氏

연주현씨延州玄氏의 시조始祖

△ 우리 연주 현씨延州玄氏의 시조는 고려 문하시랑 평장사高麗門下侍郎平章事에 오르신 담윤공覃胤公이시다.

△ 시조님께서 연주에 터전을 잡으신후 어언 일천년 가까운 세계世系가 면면히 이어져 왔다. 그 자손들이 고려와 조선시대, 근 현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우리 현씨 가문의 위상을 크게 빛냈으며 오늘도 날로 번창하면서 자랑스러운 연주 현씨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 본관本貫은 시조님의 고향인 연주延州를 본本으로 삼았는데 연주延州는 오늘의 북한 평안북도 영변寧邊의 옛 지명이다.

△ 시조님의 관직은 연산부사, 대장군, 문하시랑 평장사를 거쳐 연산군延山君에 봉군封君되시고 경헌景憲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으시었다.

시조님께서 고려사에 남기신 가장 위대한 공훈

△ 고려 명종明宗 4년(1174년) 서경(평양)의 유수留守였던 조위총趙位寵이 역심을 품고 무신정권을 전복시키고자 반란을 일으켜 황해도 절령岊嶺 이북 40여 성주城主들이 모두 임금을 저버리고 이에 호응하였다.

△ 그때 연주성의 도령都領이시었던 시조님께서는 의연히 두 아들(장남 덕수공德秀公, 차남 이후공利厚公)과 함께 조위총이 온갖 협박과 회유를 하면서 항복을 강요 했으나 이를 단호히 거부하셨다. 40여 성으로 구성된 막강한 반군이 3년간 4차례에 걸쳐 격렬한 침공을 해 왔으나 시조님 께서는 군민軍民을 결집시켜 고립무원의 연주성을 끝까지 지켜 이를 모두 격퇴 평정시킴으로써 반군의 개성 진격을 막고 위기에 처했던 고려의 왕권을 수호하는데 크게 공헌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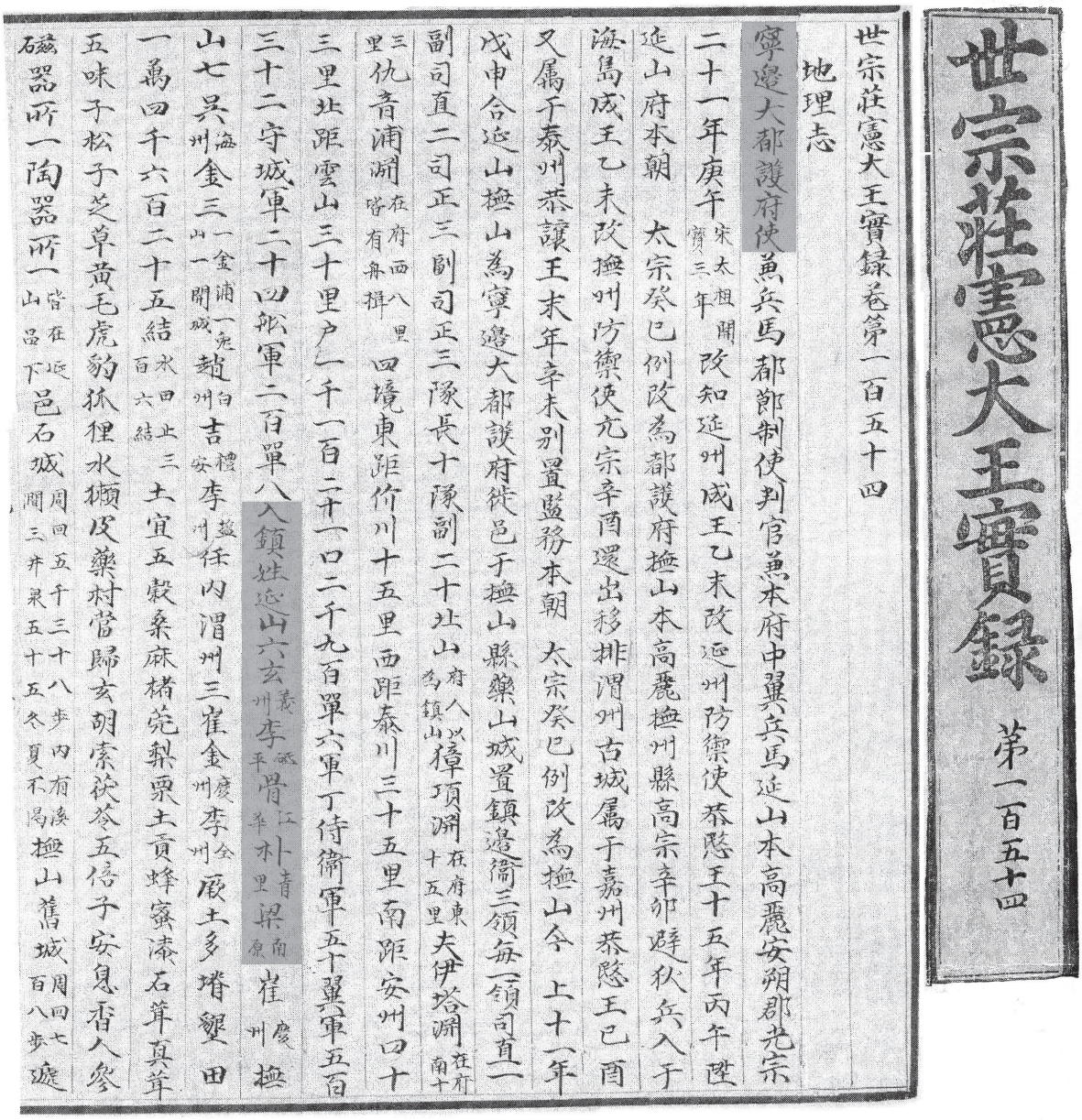
△ 연주현씨 延州玄氏의 시조始祖이신 담윤공覃胤公의 존영尊影이시다.
△ 시조님의 관직은 고려때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역임하시었다.



△ 연주현씨의 시조이신 담윤공의 묘소는 오늘의 북한 평안북도 영변군 연산면 관동(검각동)에 모셔져 있다.

△ 시조님의 묘소를 촬영한 옛날 사진.

△ 박천 종친회장을 역임하신 현병정玄炳貞 종친께서 뒤에 대종회에 제공해 주신 시조님의 묘소 사진(2005. 11. 16 현장촬영)에서는 시조님 묘소가 오랜세월 관리되지 않아 잡초가 우거지고 묘비도 식별하기 어려운것으로 확인되었다.


世宗莊憲大王實錄卷第一百五十四

地理志

寧邊大都護府使 兼兵馬都節制使判官兼本府中翼兵馬延山本高麗安朔郡光宗二十一年庚午宋太祖開寶三年改知延州成王乙未改延州防禦使恭愍王十五年丙午陞延山府本朝 太宗癸巳例改為都護府撫山本高麗撫州縣高宗辛卯避狄兵入于海島成王乙未改撫州防禦使元宗辛酉還出移排渭州古城屬于嘉州恭愍王已酉又屬于泰州恭讓王末年辛未別置監務本朝 太宗癸巳例改為撫山令 上十一年戊申合延山撫山為寧邊大都護府從邑于撫山縣藥山城置鎮邊僉節制使領司直一副司直二司正三副司正三隊長十隊副二十壯山府入以為鎮山 獐項淵在府東十五里 大伊塔淵在府南十三里 仇音浦淵在府西八里 皆有舟楫 四境東距价川十五里西距泰川三十五里南距安州四十三里北距雲山三十里戶一千一百二十一口二千九百單六軍丁侍衛軍五十翼軍五百三十二守城軍二十四松軍二百單八 入鎮姓延山六玄氏義州 李咸平 骨江華 朴青里 梁南原 崔慶州 撫山七吳海州 金三金浦一免山一開城 趙白州 吉禮安州 李益州 任內渭州三崔金慶州 李全州 厥土多墳墾田一萬四千六百二十五結水田止三百六結 土宜五穀桑麻楮苑梨栗土貢蜂蜜漆石茸真茸五味子松子芝草黃毛虎豹狐狸水獺及藥材當歸玄胡索砂苓五倍子安息香人參磁器所一陶器所一皆在延山品下 邑石城周回五千三十八步內有淡閒三井泉五十五冬夏不竭 撫山舊城周回四七百八步遺

世宗莊憲大王實錄 第一百五十四

△ 현씨玄氏는 고려때 의주義州로부터 연주延州에 입진성(入鎭姓)으로 들어가 정착 하였다.

△ 고려때 입진성(入鎭姓)으로 延山에 들어간 여섯 성씨(延山入鎭姓六)의 기록이 『세종실록』 154권 「지리지」 평안도 영변대도호부조에 실려 있다.

△ 이 기록은 우리나라 역사서를 통해 발굴된, 선조들의 연주 입진을 증명하는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연주현씨 원류사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소중한 자료라 할 것이다.

△ 부산 국가기록원 소장

현씨의 원류를 고증하는 주요 사진 및 문헌 자료들



△ 중국 산동성 양곡현陽谷縣의 치우릉 안에 세운 치우천왕 동상銅像.
△ 치우천왕은 현도씨로서 현씨의 시원임이 여러 선진문헌에 의해 고증된다.
△ 중국에는 여러곳에 치우총蚩尤塚이 있다. 그런데 2006년 북경대학, 산동대학, 난주대학, 산동성 고고연구소 등의 여러 학자들이 양곡현 치우총에 모여 문헌적 고고학적 고증을 거친뒤 이곳이 치우의 머리가 묻인 치우총으로 확정하고 치우동상, 제단, 비정碑亭, 능침陵寢, 누각樓閣, 능문陵門, 전람관 등을 건립하여 대대적으로 성역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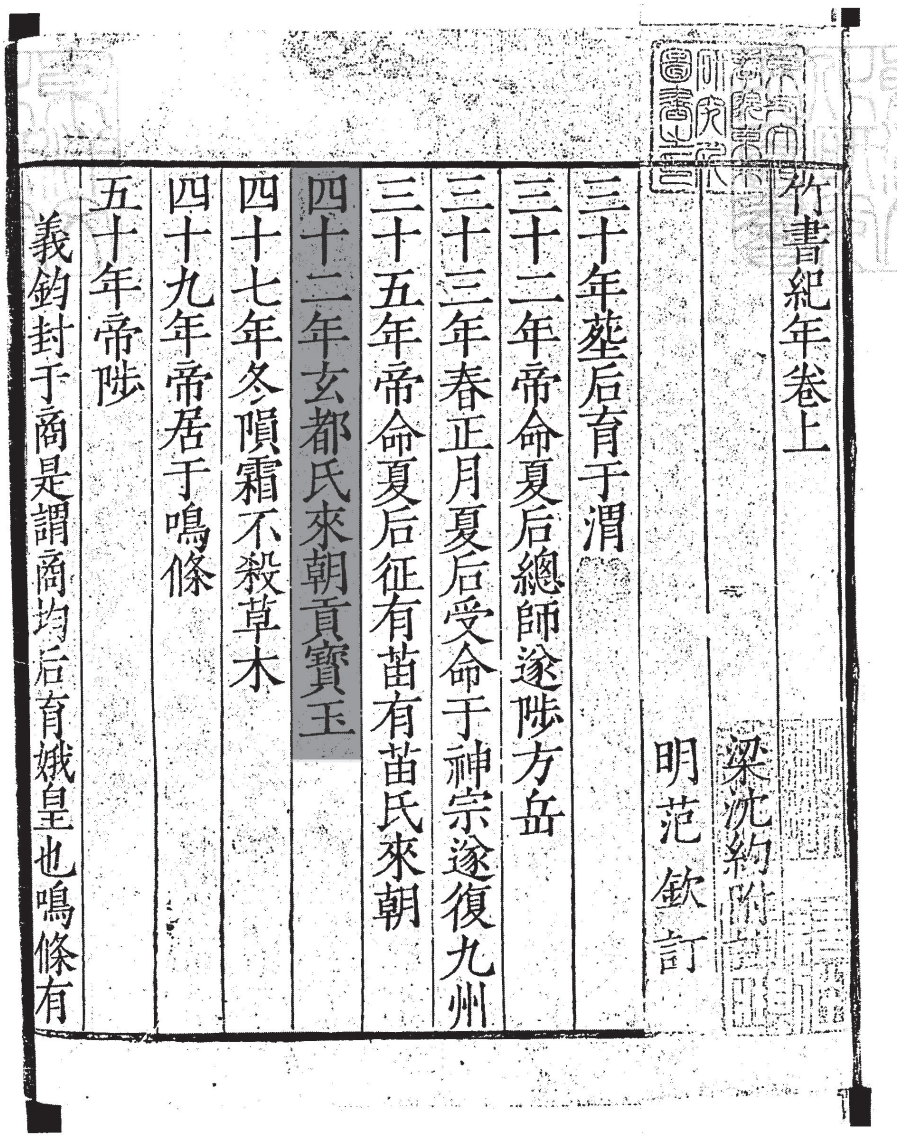
중국 산동성 양곡현陽谷縣의 치우릉 앞에 세운 능문陵門.



△ 중국 하북성 탁록현涿鹿縣에 있는 중화 삼조당中華三祖堂에 황제헌원黃帝軒轅, 염제신농炎帝神農과 함께 모셔진 치우천왕상(왼쪽)

△ 현재 중국에서는 동이족의 영웅인 치우천왕을 중화민족의 세 분 조상 중의 한 분으로 받든다. 치우천왕은 일찍이 진시황과 한고조 유방도 모두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 중화족과 동이족을 넘어 두루 추앙을 받는 인물의 경우는 치우천왕이 유일하다.

현씨의 원류인 현도국玄都國 은 실재했다



竹書紀年卷上

梁沈約附

明范欽訂

三十年堊后育于渭

三十二年帝命夏后總師遂陟方岳

三十三年春正月夏后受命于神宗遂復九州

三十五年帝命夏后征有苗有苗氏來朝

四十二年玄都氏來朝貢寶玉

四十七年冬隕霜不殺草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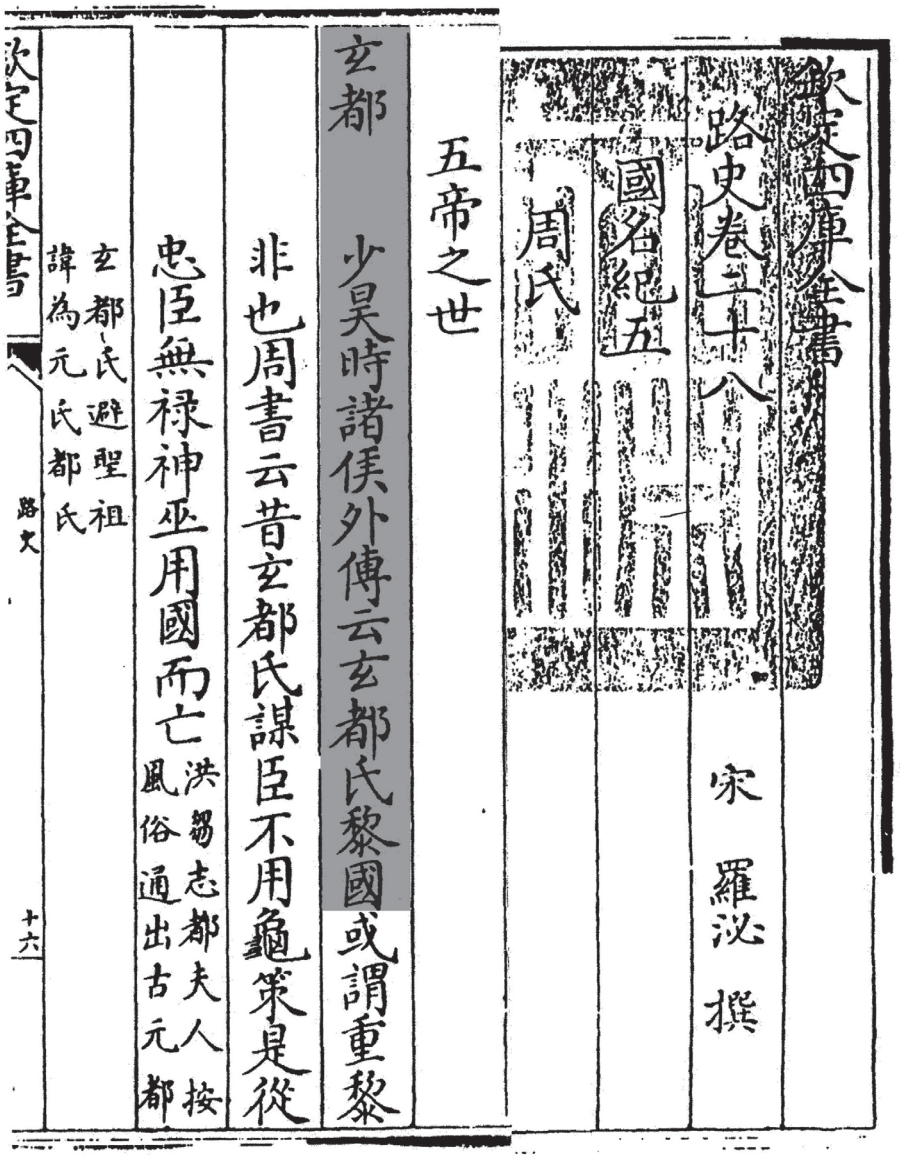
四十九年帝居于鳴條

五十年帝陟

義鈞封于商是謂商均后育娥皇也鳴條有

△『죽서기년竹書紀年』권상「제순유우씨帝舜有虞氏」42년 조항에 현도씨玄都氏가 와서 순舜 임금에게 보옥寶玉을 바친 내용이 나온다. 이 기록을 통해서 순임금 시대에 현씨의 원류인 현도국玄都國이 실재 했음을 알 수 있다.

상고시대 동북방의 구려국九黎國이 현도씨玄都氏의 나라였다



欽定四庫全書

路史卷二十八

宋 羅泌 撰

國名紀五

周氏

五帝之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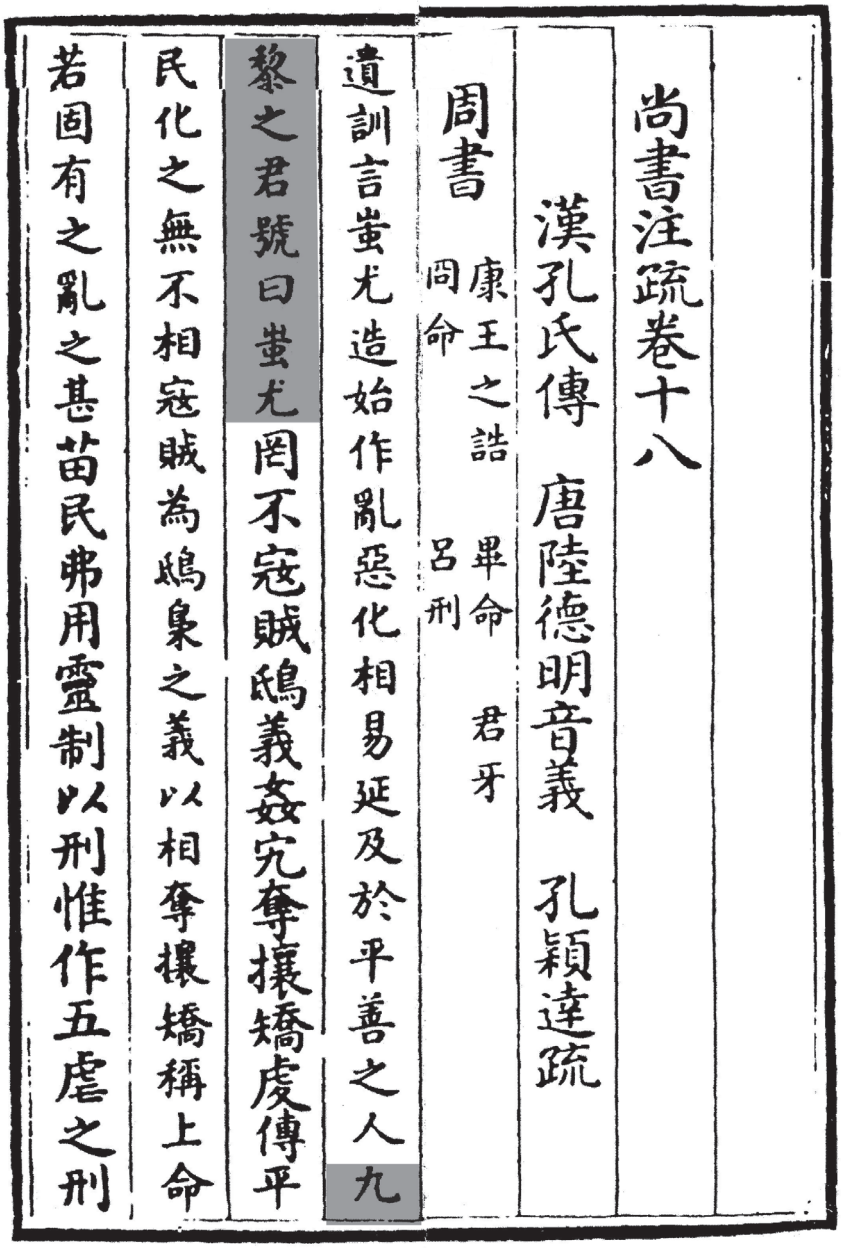
玄都 少昊時諸侯外傳云玄都氏黎國或謂重黎非也周書云昔玄都氏謀臣不用龜策是從忠臣無祿神巫用國而亡洪氏志都夫人按風俗通出古元都氏玄都氏避聖祖諱為元氏都氏

欽定四庫全書 路史 十六

△ 송宋 나라때 나필羅泌이 편찬한『노사路史』. 권 28,「국명기國名記」5, 오제지세五帝之世 조항에 “현도국玄都國은 소호少昊 시대의 제후였다.” “현도씨는 여국이다(玄都氏黎國).”라는 내용이 나온다.

△ 이 기록을 통해서 현도국은 5제의 마지막 임금인 순임금 시대뿐 아니라 5제의 첫 제왕인 소호시대에도 이미 존재했으며 또한 현도씨의 나라 현도국은 여국 즉 구려국으로도 호칭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려국九黎國의 최고 지도자 치우천왕 현도씨가 현씨의 시원始原이다


尚書注疏卷十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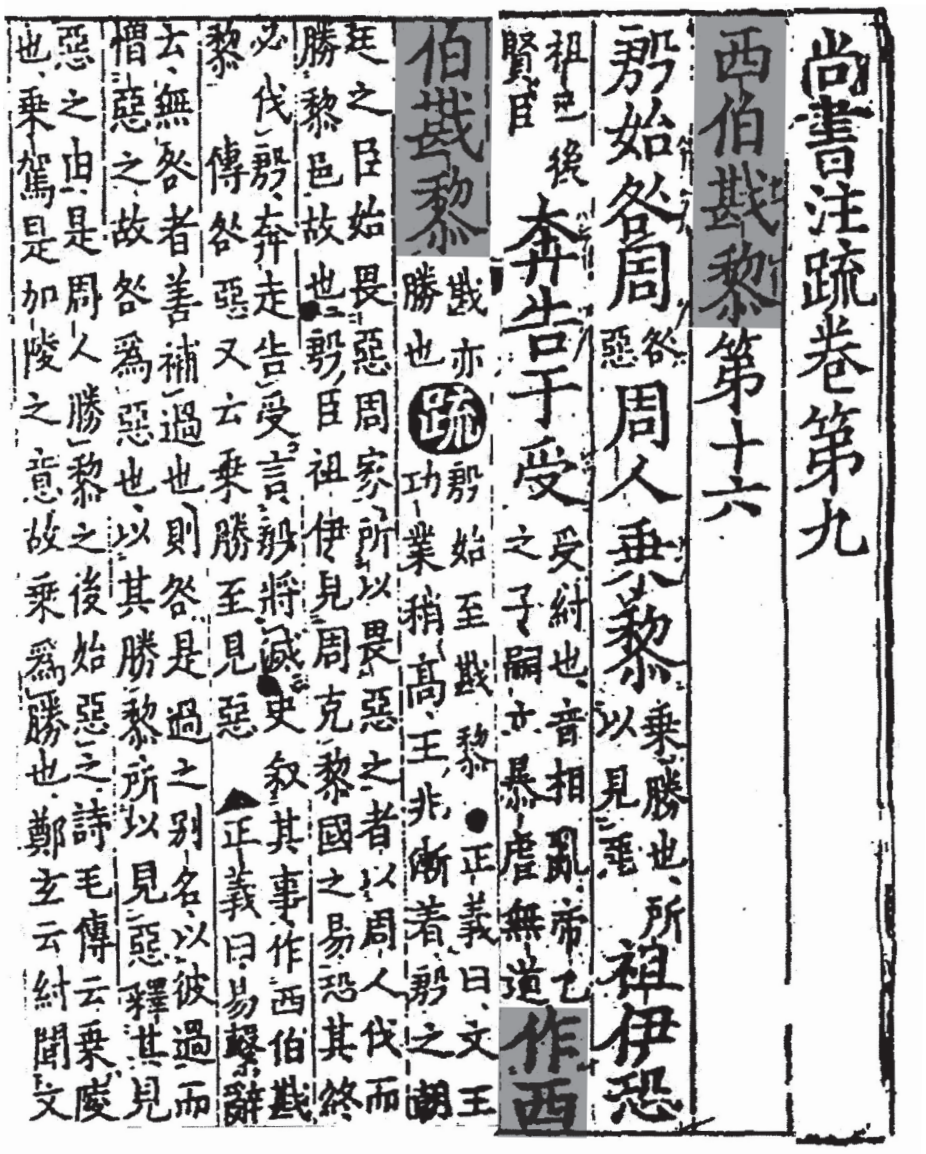
漢孔氏傳　唐陸德明音義　孔穎達疏

周書　康王之誥　畢命　君牙　冏命　呂刑

遺訓言蚩尤造始作亂惡化相易延及於平善之人九黎之君號曰蚩尤罔不寇賊鴟義姦宄奪攘矯虔傳平民化之無不相寇賊為鴟梟之義以相奪攘矯稱上命若固有之亂之甚苗民弗用靈制以刑惟作五虐之刑

△『상서주소尙書注疏』권 18,「여형편呂刑篇」주석에는 "구려의 임금을 치우라 부른다.(九黎之君 號曰蚩尤)"라고 나온다. 이 기록은 현도씨 여국黎國 즉 구려국九黎國의 최고 지도자가 치우로서, 치우천왕이 현씨의 시원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

현씨玄氏의 출현시기는 대략 3000년 전으로 본다


尚書注疏卷第九

西伯戡黎第十六

殷始咎周 咎惡 周人乘黎 乘勝也所以見惡 祖伊恐 祖王賢臣 後奔告于受 受紂也音相亂帝乙之子嗣立暴虐無道 作西伯戡黎 戡亦勝也 疏 殷始至戡黎 ● 正義曰文王功業稍高王非漸著殷之諸侯必伐殷奔走告受言殷將滅史敘其事作西伯戡黎傳咎惡又云乘勝至見惡 ▲ 正義曰易繫辭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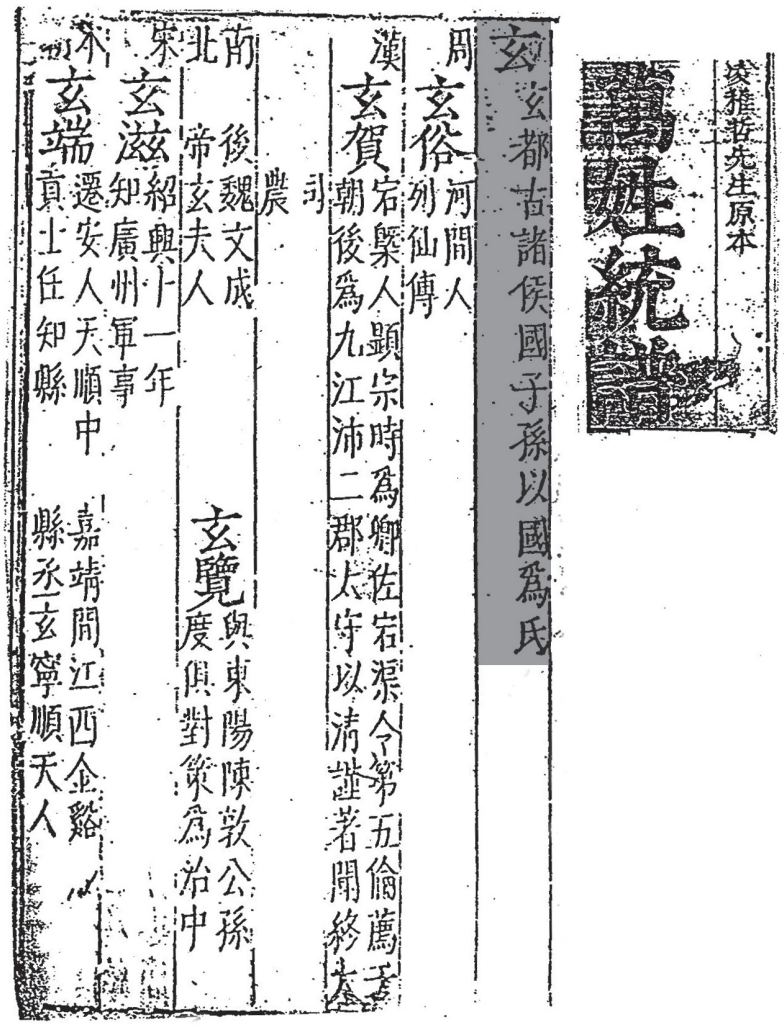
廷之臣始畏惡周家所以畏惡之者以周人伐而勝黎邑故也殷臣祖伊見周克黎國之易恐其終必伐殷奔走告受言殷將滅史敘其事作西伯戡黎傳咎惡又云乘勝至見惡 ▲ 正義曰易繫辭云

去無咎者善補過也則咎是過之別名以彼過而懼惡之故咎爲惡也以其勝黎所以見惡釋其見惡之由是周人勝黎之後始惡之詩毛傳云乘陵也乘駕是加陵之意故乘爲勝也鄭玄云紂聞文

△『상서 尙書』「서백감여西伯戡黎」 편에는 "서백西伯이 여국黎國을 정벌하여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서백은 주나라의 무왕武王을 지칭한다.

△ 동한시대의 역사학자 응소應劭는 그의 저서『풍속통風俗通』에서 현씨의 출현 배경에 대해 "현도국이 패망하자 그 자손들이 이국위씨以國爲氏 즉 나라의 이름에서 현자를 따서 성씨로 삼았다."고 말하였다.『상서尙書』와『풍속통風俗通』의 기록을 통해서 현도씨의 여국은 주나라가 건국되면서 멸망했으며 현씨의 출현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에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나라 현탁일玄鐸一은 현씨의 동래선계東來先系로 볼 수 없다



△ 중국『만성통보萬姓統譜』원간본 (명明, 능적지凌迪知 편찬, 1579년)

△ 중국『만성통보』원간본의 현씨 관련 기록 중에 현도국玄都國 기록은 보이나 주나라 현탁일玄鐸一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우리 선조들께서는『갑자오수보』의 보유편에서 "주나라 현탁일이 기자가 조선에 올때 그의 좌빈객으로 함께 왔다"는『만성통보』의 기록을 인용하여 현탁일을 현씨의 동래선계로 추정해 왔으나,『만성통보』원간본에 현탁일 기록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주나라 현탁일은 현씨의 동래선계로 볼 수 없다는 쪽으로 재정립하게 되었다.

이 책의 주요 내용

1. 현씨玄氏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 한국의 연주 현씨延州玄氏들은『갑자오수보』이래 황제黃帝의 아들 현효玄囂를 현씨의 시원始原으로 보지 않고 현도국, 현도씨를 현씨의 최초의 원류로 인식해 왔다.

△ 한국의 연주현씨는 고려시대에 의주로부터 연주에 입진성入鎭姓으로 들어가 정착한 현도씨 치우천왕 후손들일 가능성이 높다.

△ 한국 연주 현씨의 시조이신 담윤공覃胤公의 선계先系에 관해서 지금으로서는 문헌상으로 정확히 더 고증할 수 있는 길은 없다.

△ 그러나 담윤공을 비롯한 우리 연주 현씨 선조들께서는 홍산문화 유적지로서 현도국의 발상지인 내몽고 적봉시와 치우천왕의 주요활동 근거지였던 산서성, 하북성, 산동성 등 중국의 동방, 동북방에서 활동하다가

△ 한반도의 의주義州를 거쳐 고려시대에 우리의 본관으로 삼고 있는 연주에 입진성으로 들어가 정착했으며 고대 동이를 대표했던 현도씨 치우천왕의 후손일 것이라 추론推論 하는 것은 합당하다 할 것이다.

〈참고〉

△ 현도씨 치우천왕은 상고 시대인 대략 47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이다.

△ 당시 현도씨 치우천왕은 동이족을 대표하는 구려국의 군주로서 한족의

시조인 황제헌원黃帝軒轅과 하북성 탁록에서 중원을 차지하려는 치열한 대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이 고대사의 여러 선진문헌에 의해 고증된다.

△ 치우천왕의 능陵, 총塚, 동상銅像 등 유물 유적이 주요활동 근거지였던 하북성, 산동성 등지에 많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현도씨 구려국의 최고 지도자는 치우천왕으로서 치우가 바로 현도씨였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승리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치우가 바로 현도국, 현도씨, 여국의 시원始原이며 이 분이 또한 우리 현씨의 시원임을 선진시대의 여러 문헌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다.

2. 현씨玄氏의 출현시기는 대략 3,000년 전으로 본다

△ 현도국의 멸망滅亡에 대하여

– 동양 최고의 역사서인 『서경書經』에는 "「서백감려西伯戡黎」 즉 서백西伯이 여국을 정벌 하여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 서백西伯은 원래 은나라의 서쪽을 다스리는 제후의 명칭으로서 황제黃帝 후손인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을 가리킨다.

– 무왕武王 의 아버지도 서백西伯이었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다시 무왕이 서백西伯을 계승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현씨의 출현 배경에 대하여는 이미 제1부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 주周나라 무왕 武王이 은나라를 치기에 앞서 당시 산서성 상당上黨 호관壺關 지역에 있던 은나라의 제후국인 현도씨의 후손이 세운 여국黎國을 정벌하여 멸망시켰으며 그것이 현씨의 출현배경이 된것을 확인하였다.

△ 동한시대의 역사학자 응소應劭는 주周나라에 의해 패망한 현도국의 후손들이 조국을 잊지 않으려는 심정에서 이국위씨以國爲氏 즉 나라의 이름을 성씨로 삼았다고 그의 저서인 『풍속통風俗通』에 기록하고 있다.

△ 현씨의 출현시기는

– 주周나라가 건국한 서기 전 1046년 이후로 보며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거기서 그 뿌리를 다시 추적하면 대략 4700년 전 상고시대의 현도씨 치우천왕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것은 실로 놀라운 연구 성과라 하겠다.

3. 연주현씨延州玄氏의 역사는 900년이 되었다

△연주현씨의 역사는 얼마나 되었는가. 가문의 뿌리를 소중히 여긴다면 시조님께서 이 땅에 터전을 잡으신지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우리 후손들은 꼭 알아두어야할 것이다.

△시조님의 탄생 연대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 대동보에 수록되어 있는 두 기록을 인용한다.

1) 시조님 신도비명에는 선계先系와 생졸은 세월이 오래되어 알 수가 없으며 『고려사』와 가승에도 다만 이와 같은 기록이 있을 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시조님께서 19세 되시던 해에 중국 갈로羯虜가 국경을 침범해 왔다. 당시 갈로의 군사력이 막강하여 관군이 막아내지 못해 위기에 봉착했을 때 분연히 의병을 일으켜 이를 격퇴 평정하시니 의종(재위 1146-1170) 임금께서 연산부사에 임명하시고 명문거족과 결혼토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 시조님의 탄생 연대

- 시조님께서 고려 의종왕때 19세의 나이로 의병을 일으켜 국경을 침범한 갈로를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으니 고려 의종왕의 즉위년을 기준하여 시조님께서 19년 전에 먼저 탄생하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게 본다면 시조님께서 탄생하신지가 지금으로부터 892전이 되고 900년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연주현씨의 역사를 약 '900년'으로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현씨는 고려 때 연주延州에 터전을 잡으시고 우리의 시조가 되신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담윤공覃胤公을 정점頂点으로 하여 단일본單一本을 이루고 있다. 고려사에 빛나는 '연주현씨 900년사'가 우리의 『대동보』에 의해 실증되고 있으니 이는 자랑스러운 우리 조상의 소중한 역사이다.

4. 현씨玄氏 발원의 특징은 무엇인가

1. 우리 나라의 주요 토착 성씨들의 발원 기록

△ 신라 시조始祖인 혁거세赫居世는 양산陽山 기슭 나정蘿井 옆에 있는 숲 속에서 표주박 같은 커다란 알에서 탄생했다 하여 박朴씨를 성姓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포란태생설抱卵胎生說)

△ 경주 김金씨의 시조인 김알지金閼智는 월성月城 서쪽 시림始林 숲 속에서 금궤金櫃로부터 나왔으므로 김金씨라 하였으며 (금궤 상자속 동자 태생설)

△ 가야국 시조인 수로首露도 금관국金官國 북쪽 귀지봉龜旨峰에 떨어진 6개의 황금알에서 나왔다 하여 김金씨로 하였다. (금란태생설金卵胎生說)

△ 그 밖에 제주 탐라국의 삼성혈三姓穴 등의 신화를 들수 있다.

2. 현씨玄氏 발원은 문헌에 의해 고증된다

△ 이 책 주요내용 2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 현씨의 출현배경에 대하여 여기서 다시 한번 인용한다.

– 현도국의 패망시기는 서기전 1046년에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치기에 앞서 당시 산서성 상당 호관 지역에 있던 은나라 제후국인 여국黎國을 정벌함으로서 패망했다는 사실을 선진 문헌인 『죽서기년』『서경』과 『노사』 등의 문헌기록이 이를 고증하고 있다.

– 따라서 현씨玄氏의 출현시기는 주나라가 건국한 이후로 보며 지금으로

부터 대략 300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거기서 뿌리를 다시 추적하면 대략 4700년전 상고시대에 현씨玄氏의 원류인 현도씨 치우천왕에 이르게 됨으로서 뿌리가 아주 깊은 씨족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1〉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요 토착 성씨들은 성씨 발원의 근거가 문헌 기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신성함을 통한 신비성을 드러내려는 뜻에서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문헌에 의해 고증된 현씨의 발원시기를 대략 3,000년 전으로 보고 국내 주요 토착성씨들의 발원시기를 삼국시대 전후로 볼때 우리현씨의 발원시기가 대략 1,000년 정도 앞서는 것으로 보여진다.

새로 정립하는
延州玄氏 원류사

24世孫 玄昌基

延州玄氏大宗會

· **초판본** : 2008. 07. 31
· **증보판** : 2017. 08. 25
· **요약본** : 2019. 12. 25

차 례

현씨의 원류를 고증하는 주요 사진 및 문헌 자료들 ····· 7

이 책의 주요내용 ····· 15

발간사 연주현씨대종회 회장 현경대 ····· 27

축간사 민족문화연구원장 역사학박사 심백강 ····· 30

축간사 전 국민대학교총장 현승일 ····· 34

요약본을 편간하면서 ····· 38

첨부 : 증보판 서문 ····· 40

연주 현씨玄氏의 원류사源流史는 왜 새로 정립해야 하는가 ····· 50

제1부
현씨玄氏의 원류源流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52

제2부
현씨玄氏의 출현시기는 대략 3000년 전으로 본다 ····· 60

제3부
주周나라 현탁일玄鐸一을 현씨玄氏의 동래선계東來先系로 볼 수 있는가 ····· 63

제4부
우리 조상들께서는 언제부터 오늘의 연주에 들어가 정착했는가 ····· 70

제5부
고려사에 빛나는 연주현씨 延州玄氏 ····· 82

제6부
오늘의 연주현씨延州玄氏는 한국성씨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 하는가 ····· 92

부록 ····· 95

발 간 사



연주현씨대종회 회장
현 경 대

국가에 국사國史가 있다면 가문에는 족보族譜가 있습니다. 시조始祖로부터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역사를 기록하여 한 가문의 뿌리와 가지가 어떻게 생성, 발전되어 왔는지 한 눈에 살펴 볼수 있게 해주는 족보는 서양에는 없는 동양문화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한국인의 성씨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로부터 성姓을 쓰지 않는 풍습이 고려 초기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문종(재위 1046-1083) 때에 이르러 왕권의 강화를 위해 백성들이 성을 쓰지 않으면 과거를 볼 수 없도록 하고 지방세력인 호족을 중앙관료 기구로 흡수하는 방안의 하나로 군현 단위의 본관제本貫制를 시행 한 데서 성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평안도 연주 지금의 북한 평안북도 영변을 본관本貫으로 하는 우리 연주현씨延州玄氏는 고려 명종(재위 1170-1197) 때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역임하신 담윤공覃胤公을 시조로 하고 있습니다.

연주현씨 역시 고려 시대의 담윤공 이전에 현씨가 언제 어디서 기원했는지 그 원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갑자오수보』「보유편」에 우리 현씨가 "옛 제후국인 현도국에서 기원했다"라는 동한시대 학자 응소應劭의『풍속통風俗通』에 나오는 짧막한 글이 인용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대종회의 창기昌基 고문은 숭조崇祖 정신이 남다른 분이십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20년 넘게 우리 현씨의 원류를 찾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수천년 전 상고시대 우리 씨족의 원류를 찾아서 새로 정립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인데 대종회의 지원도 없이 사계의 최고 전문가인 심백강沈伯綱 박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서경書經』,『죽서기년竹書紀年』,『일주서逸周書』,『국어 초어國語 楚語』,『노사路史』와 같은 권위 있는 고대문헌을 통해 현씨의 원류인 현도국의 발상지와 존속연대, 멸망과정, 현씨의 출현시기 등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 승리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치우천왕이 바로 현도씨로서 현씨의 원류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기 고문은 앞서 원류사 연구결과를 모와 두 번에 걸쳐 초판본, 증보판을 펴낸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새로 정립하는 연주현씨 원류사』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최종본으로 펴내는 것입니다.

어느 가문이나 물론하고 고려시대 이전 자신들의 원류를 찾고 싶은 것은 동일한 염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년 세월이 흐른 지금 고대의 사료를 한 장 한 장 넘겨서 원류를 밝히는 것은 현실화 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연주현씨 가문은 창기 고문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로 고려 이전 현씨의 원류인 현도국의 실체와 현씨 출현의 배경이 확실한 문헌고증을 통해 새롭게 밝혀지고 그것이 오늘 최종본으로 편간되어 나오게 되니 이는 우리 연주현씨 가문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연주현씨의 원류사를 새롭게 정립한 소중한 이 책이 넓리 읽혀져서 우리 종친들이 자랑스럽고 뿌리 깊은 연주현씨의 원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019년 12월 1일

연주현씨대종회 회장 **현 경 대**

축간사



민족문화연구원 원장
심 백 강

지난 수천년동안 이 지구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 줌의 흙으로 사라졌을 뿐 흔적을 남긴 경우는 그리 많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역사에 자취를 남겼을까요.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고 보는데 하나는 향기를 남긴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악취를 남긴 경우입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 역사에 향기를 남기게 되는 것일까요.

현창기 고문님은 젊은 시절 6.25 전쟁 중에 군에 입대하면서 선조들을 잊지 않으려고 가승을 적어갈 정도로 가문의 역사에 남 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현창기 고문님은 국립 대전현충원장직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근 30년 동안 현씨의 뿌리를 찾는 일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현씨

의 원류사 고찰』, 『연주현씨 원류사 연구』를 펴내셨고 이번에 『새로 정립하는 연주현씨 원류사』라는 이름으로 발간되는 이 책은 그간의 연구성과를 요약한 최종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씨대동보』는 연주현씨의 원류를 밝히는 내용으로 "현도는 옛 제후국이다. 자손들이 나라 이름으로써 성씨를 삼았다.(玄都古諸侯國 子孫以國爲氏)"라는 짧막한 기록을 수록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현씨의 기원에 해당하는 현도국의 실체에 대해서 상고사 자료의 빈곤과 한문 원전 해독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창기 고문님이 저와 수년간 공동 연구하면서 『서경書經』, 『죽서기년竹書紀年』, 『春秋左傳』, 『국어國語』, 『노사路史』와 같은 권위 있는 동양의 사료를 통해, 상고시대에 현도씨가 복희씨, 헌원씨, 숙신씨 등과 함께 실재했음을 밝힌 것은 그 의미가 매우 지대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노사』에서 "현도씨 여국玄都氏黎國" 이라는 기록을 발견한 것은 현씨의 원류인 현도국의 실체를 찾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상고시대 중국의 동북방에 위치하여 동이를 대표하던 국가인 여국, 구려국이 바로 현도씨의 나라였고 현도국, 여국, 구려국은 동일한 나라에 대한 다른 표현이었으며 구

려九黎의 최고 지도자인 치우蚩尤 천왕이 바로 현도씨였다는 사실 등을 규명한 것은 현씨원류사 연구에서 획기적인 성과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연주현씨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동이족의 위대한 영웅인 현도씨 치우천왕에 가서 닿게 됩니다. 동아시아에서 승리의 화신으로 추앙 받는 치우천왕이 바로 현도씨, 현도국, 여국의 시원이며 이 분이 또한 현씨의 최초의 기원이라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상고시대 현씨의 원류사를 밝히는데 있어 재야 사서를 전혀 인용하지 않고 주로 공인된 동양의 정사 자료를 통해 실체를 밝히고 원류를 고증했다는 점도 이번 연구가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주현씨 가문은 고려 명종(재위1170-1197) 때 문하시랑 평장사를 역임하신 담윤공覃胤公을 시조로 하여 약 9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동안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던 담윤공 이전 연주현씨의 원류인 현도국의 실체를 여러 고대 문헌을 통해 최초로 밝혔습니다.

상고시대 4700년 전에 존재한 현도국의 실체를 확인하고 현씨의 출현시기를 3000년 전으로 추정하여 연주현씨 가문의 원류를 체계적으로 밝힘으로써 900년 전 고려때의 담윤공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 최초로 해답을 준 이 책은

오늘날 현씨 자손들에게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소중한 역사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고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입니다. 현창기 고문님과 수년간 인연이 되어 연주현씨 원류사를 연구하는데 다소의 도움을 드리고 또 책 머리에 축간사까지 쓰게되니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현창기 고문님은 금년이 88세로 미수米壽를 맞으셨습니다. 연주현씨의 원류를 밝히려는 노력을 근 30년 가까이 지속하여 90을 바라보는 고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편간되는 『새로 정립하는 연주현씨 원류사』는 그러한 강한 집념의 산물이라 하겠습니다.

현씨의 원류를 밝히려는 현창기 고문님의 오랜 노력 끝에 발간되는 이 책이 현씨가문에서 두고두고 읽혀지면서 불멸의 가치를 지닌 귀중한 책으로 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현창기 고문님의 생애가 역사에 향기를 남기는 값진 삶으로 승화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심 백 강

역사학박사/민족문화연구원장, 아시아태평양역사재단 공동회장

축간사

백성으로 부터 유래한 현씨玄氏



전 국민대 총장
현 승 일

창기昌基 고문이 쓰신 본서本書는 연주현씨延州玄氏 원류源流에 대한 최초의 연구서研究書이다.

연주현씨의 시조始祖는 서기 1200년 경인 고려高麗 명종조明宗朝에서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郎 平章事를 역임하신 담윤공覃胤公이시다. 담윤공覃胤公과 그 후대後代에 관해서는 기록이 풍부하지마는, 그 이전의 현씨의 원류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 저자는 이번 연구서를 통해 중요한 3개 대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담윤공이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기 약 200년 전인 고려 태조 왕건 太祖 王建 시기(서기 약 1000년)에 현씨 성姓을 가진 일단의 무리가 압록강 연안의 의주義州로 부터 연주延州로 입진入鎭하였다는 사실이다. 통일신라의 경계境界를 이어 받은 태조 왕건은 버려진 청천강 이북 땅을 개척하여 강토疆土를 넓히면서 오늘날의 평안북도 영변지역(연주)에도 군영(鎭)을 설치하고 여기에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사민정책徙民政策을 실시하였었다. 이때에 남쪽인 삼한三韓으로부터 이씨(李氏, 破平), 골씨(骨氏,江華)등

씨족 집단이 이주해왔고, 북쪽으로 부터는 의주에 살던 현씨 일족이 이주되어 왔다. 즉 현씨는 연주진延州鎭에 이주된 입진성入鎭姓이다.

둘째, 현씨가 입진성인 만큼 의주에서 살던 현씨들은 이미 이전부터 현씨라는 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씨 성은 어디서 유래하는가? 이 의문을 풀기위해 저자는 더 앞쪽의 역사를 헤쳐 나간다. 왕건 보다 약 2000년 앞선 기원전 1000년경 오늘날의 중국 섬서성陝西省 지역에서 주周나라를 건국할 때 서주西周의 희발(姬發, 후일 武王이라 稱함)이 은殷나라를 정벌하기에 앞서 배후세력인 산서성山西省에 있는 동이족東夷族의 국가인 현도국玄都國을 먼저 멸망시켰다. 현도국이 멸망당하자 백성들은 옛나라를 잊지 않기 위해 나라의 이름을 따서 자신들의 성씨로 삼았다(以國爲氏). 이리하여 개인의 성으로서 현씨가 생겨났다. 현씨 출현의 시기와 배경을 밝힌 이대목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저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현도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현도玄都 또는 현도씨玄都氏라는 이름의 나라가 기원전 2500년경 이전 부터 실재實在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는 순舜임금 때 현도씨가 래조하여 보옥을 바쳤다(玄都氏來朝 貢寶玉)라는 기록을 찾아내었고, 더 올라가 순舜임금 이전 오제五帝의 첫왕인 소호少昊 때에도 현도가 소호의 제후국으로서 존재하였다는 기록까지 찾아냈다(玄都少昊時諸侯).

필자는 현씨 후손의 한사람으로써 개인적인 견해를 몇자 적고자 한다. 저자의 연구에서 가장 귀중한 업적은 현도국이라는 실재實在를 발굴한 점이다.

종래의 우리나라 고대사연구에서는 현도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 고대古代에 관한 연구는 개략적 그림을 그리거나 통사通史에 그치는 경향이 컸던 까닭에 현도국과 같은 구체적 이름이 나온다 하드라도 이에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저자는 현씨의 원류 탐구라는 미시적 목표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현도국의 실재를 발굴할 수 있었다. 그의 현도국 발굴은 현씨 원류의 발견 뿐 만이 아니라 학계의 고대사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현도국 멸망이후 고려 태조때 까지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현씨가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것에 대한 기록이 없음을 안타까와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도국 멸망이후 현씨들은 망국민으로서 사방으로 흩어졌을 것이며 동東으로 들어온 현씨들은 동이족인 예맥穢貊의 무리에 섞여 살다가, 고구려高句麗가 건국된 이후에는 고구려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발해渤海의 백성으로 살다가, 한반도에 들어온 것으로 상상되거니와 이 기나긴 세월에도 우리의 선조들은 현씨성을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수했던 것이다.

의주義州로부터 입진성으로 연주에 들어온 선조들께서도 그 초기에는 삶이 고달팠을 것이다. 돌을 날라 성城을 쌓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밭을 일구며 외침外侵이 있을 때는 전투에 동원되어 싸웠을 것이다. 하지만 명종조明宗朝에 이르기 까지 2백년 동안 이곳에서 실력을 배양하여 시조이신 담윤공께서 연주성의 도령都令으로서 두 아들과 함께 주진군州鎭軍을 지휘하여 조위총의 반란을 평정하신 위업을 이루어 현씨의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서의 역

사를 우뚝 세웠다. 우리의 조상들은 극단의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견뎌낸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으며 자기의 성씨를 신앙처럼 지킨 거룩한 정신을 지닌 선조들이었다.

저자는 요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시대에도 이미 현도씨라는 씨족의 이름이 있었음을 찾아냈다. 필자의 졸견拙見으로는 저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밝혀진 현씨 원류는 그 상한선上限線을, 역사적 사실로서 확인되어 있는 기원전 1000년경의 서주西周 무왕武王에 의한 현도국의 멸망과 백성들의 이국위씨以國爲氏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중국 고대의 역사서인 서경書經에서 서백감려西伯戡黎라는 기록을 찾아내고 이국위씨以國爲氏에서 현씨가 출현한 사실史實을 알아낸 저자의 연구결과는 실로 대단한 학문적 업적이다. 저자는 수만 톤의 모래에서 금싸라기를 한알 두알 채집하듯 수많은 고전古典들을 섭렵하여 이러한 사실을 찾아내었다. 현씨원류를 밝히겠다는 오직 한가지 집념으로 공직 퇴임후 20여년간 연구에 매달린 저자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같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다. 한없이 부드럽고 겸손하시기 만한 저자 창기 고문의 노고勞苦와 성심誠心에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

2019년 12월 10일

29세손, 전 국민대 총장 **현 승 일**



대종회 고문
현 창 기

요약본을 편간하면서

△ 『연주현씨 延州玄氏의 원류사源流史 연구』 책자가 2017년 8월에 대종회명의로 출간된 이후 많은 종친들로부터 “미완의 우리씨족원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데 대하여 과분한 칭찬과 격려를 받아 왔다.

△ 그러나 원류사연구에 필요한 많은 분량의 고대사 기록이 편집됨으로서 책자의 분량이 커지고 종친들이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 이에 편저자는 여러 종친들의 열망을 받아들여 『새로 정립하는 연주현씨 원류사』 요약본을 다시 편간하기로 한다.

△ 요약본의 편간 방향

(1) 종친들의 열독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 출간된 『연주현씨 원류사 源流史 연구』 책자의 원고 매수를 대폭 축소시키고 되도록 쉽게 해설 하도록 한다.

(2) 책자의 규격은 원본과 같게 한다.

(3)원류사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문헌자료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4~5매를 간추려 따로 게재한다.

(4) 원본의 “부록”은 그대로 수록한다.

△ 편저자는 원류사를 연구하면서 2008년에 초판본과 2017년에 증보판을 출간했으며 이번에 출간되는 “요약본”이 마지막 연구작업이 되기때문에 최종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

△ 새로 출간되는 “요약본”이 종친들에게 널리 읽혀져서 우리의 씨족의식을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연구기간 중에 많은 종친들께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히 감사를 드린다.

2019년 11월 1일

편저자 24세손 현창기 삼가 씀.

첨부 : 증보판 서문

종친들의 참고를 위해 증보판 서문을 첨부합니다.

서 문 (증보판)

1. 편찬 동기

역사는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은 그 역사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발전해 나간다고 본다.

우리 연주 현씨延州玄氏의 시조始祖는 고려 문하시랑 평장사高麗門下侍郎平章事를 역임하신 담윤공覃胤公이시다. 시조님께서 이 땅에 터전을 잡으신 이후 어언 900년의 세계世系가 면면綿綿히 이어져 왔다. 그 자손들이 고려와 조선시대, 근 현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우리 현씨 가문의 위상을 크게 빛냈으며 오늘도 날로 번창하면서 자랑스러운 연주 현씨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태어난 우리 연주 현씨 가문의 역사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젊은 시절 6. 25 전쟁 중에 군에 입대하면서는 선조들을 잊지 않으려고 가승家乘을 적어갔던 일이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다.

시조 할아버님의 신도비명神道碑銘에는 "시조님의 선계先系와 관적官蹟 · 생졸生卒은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 알 수가 없으며 『고려사』와 가승家乘에도 다만 이와 같은 기록만 있을 뿐이다.(先系官蹟生卒 世遠無徵 其傳於麗史遺乘者 只如此)"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연주 현씨는 어디서 발원했는가. 또 우리 선조들은 언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중국으로부터 연주延州 즉 오늘날의 북한 평북 영변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는가. 평소 나는 이에 대한 연유를 알 수가 없어서 늘 궁금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1747년 (조선 영조 23년)에 1차 대동보를 펴내셨고 그로부터 177년이 지난 1924년에 연주 현씨의 『갑자오수보甲子五修譜』가 나왔다. 그 보유補遺 편에 비로소 우리 현씨의 원류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현씨: 현도는 옛 제후국이다. 자손들이 나라 이름으로써 성씨를 삼았다.(玄氏: 玄都古諸侯國 子孫以國爲氏)"

"주나라 현탁일: 무왕이 상나라와 싸워 이기고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좌빈객으로써 왔다. (周 玄鐸一: 武王克商 封箕子于朝鮮 以左賓客來)"

이는 선조들이 중국의 문헌을 근거로 우리 조상의 원류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씨가 고대의 현도국에서 기원했다고 말했으나 그 현도국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존재한 나라였는가, 또 현도국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 자손들은 언제부터 현씨라는 성씨를 쓰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또 주나라때 현탁일玄鐸一이란 인물이 있어,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할 때 좌빈객의 신분으로 조선에 함께 왔다고 말했으나 이 또한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도 큰 의문이었다.

여러 선조님들께서 수 백 년 동안 풀지 못하고 내려온 우리 현씨의 원류에 대해, 그 의문을 푸는 어려운 과제를 나와 같은 천학비재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힘에 겨운 일이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의 가문과 조상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우리 현씨의 원류사 고찰』 초판본과 또 그 증보판을 편찬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2. 연구과제

『우리 현씨의 원류사 고찰』 증보판은 초판본의 미비점을 크게 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4개의 주요 연구 과제를 미리 선정하여 집중적인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첫째, 우리 현씨의 원류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玄都古諸侯國 子孫以國爲氏)

둘째,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할 때 그의 좌빈객으로 왔다는 현탁일을 현씨의 동래 선계東來先系로 볼 수 있을 것인가.
(周 玄鐸一: 武王克商 封箕子于朝鮮 以左賓客來)

셋째, 우리 조상들께서는 언제부터 연주延州에 가서 정착하게 되었는가.
넷째, 고려사에 빛나는 연주 현씨.

3. 연구 활동

1) 나는 우리 현씨의 원류와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규장각, 한국고전번역원 등 여러 기관을 찾아 조사 작업을 진행했다. 또 전문가를 찾아 자문도 받았다. 조사, 연구한 국내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현씨의 원류사 고찰』

을 편찬하여 그 초판본을 2008년 7월 연주현씨대종회 명의로 간행했다.

2) 이 초판본을 바탕으로 문중의 중지를 모아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 씨족의 정체성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 세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009년 3월 31일 대종회 정기총회에서 원류사연구위원회 발족을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3) 연구위원회 구성은 원래 사학을 전공하고 한국역사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손들을 발탁하여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등록된 후손이 없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종친회가 추천한 11명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4) 연구위원회는 미리 선정한 4개 연구과제 중에서 3개 과제는 자체연구를 마쳤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우리 현씨의 원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중국 고대사 자료의 부족과 구성원의 전문성 미흡으로 인하여 연구 성과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2011년 12월 연구위원회가 발족한 지 3년 만에 해체되는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본인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중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를 단독으로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결심하였다.

5) 민족문화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심백강박사는 한국 상고사 분야의 권위자이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사고전

서四庫全書』의 사료를 바탕으로 한국사를 재정립하고 있다.

의욕은 있으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연구 활동이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심백강박사와의 만남은 현씨의 원류인 현도국의 실체를 새롭게 밝히는데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4. 『우리 현씨의 원류사 고찰』 초판본의 오류에 대한 유감 표명

본인은 식견이 부족한 탓으로 『우리 현씨의 원류사 고찰』 초판본에서, 『갑자오수보』 이래 우리 선조들이 현도국玄都國을 현씨의 원류로 인식해온 관점을 소홀히 하고 황제의 아들 현효玄囂를 현씨의 시원으로 본 청나라 때 학자 장주가 쓴 『성씨심원』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했다.

이는 고증상의 큰 잘못으로서 오류를 범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한 오류를 시정,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원류사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증보판을 통해 그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담았음을 밝혀둔다.

5. 편집을 마감하는 소감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씨족의 뿌리를 찾아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그 원천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나 자신과 후손들에게 강한 씨족의식을 일깨워주며 무한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본인은 보학과 역사학에 식견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오직 우리 씨족의 원류를 밝혀보겠다는 굳은 의지 하나만으로 작업을 단독으로 진행하다보니 그간에 어려운 사연도 많았다.

본인은 원류사 초판본에서 우리 현씨 玄氏의 원류와 관련하여 고증의 미비로 오류를 범했다. 그러나 이번 증보판에서는 정확한 자료와 확실한 고증을 통해 초판본의 오류를 시정하고 특히 상고사에서 현씨玄氏의 원류로 등장하는 현도국 玄都國의 실체를 밝히고 현씨의 출현배경과 주周나라 현탁일 玄鐸一 을 현씨의 동래선계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를 연구하여 미완의 우리 현씨의 원류사를 바르게 복원했다고 믿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료의 발굴과 연구, 집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심백강박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기자동래설과 고려시대 북방정책의 강화를 위해 시행한 사민제도徙民制度 및 입진성入鎭姓의 원고에 대하여 각별히 감수를 해주신 전 성균관장

최창규崔昌圭 박사와 전 서울교대 총장 이택휘李澤輝 박사 두 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본인의 연구결과가 이런 학계의 원로들로부터 긍정적인 감수 소견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간 자료의 수집과 연구에 있어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규장각, 한국고전번역원 등의 협조에 힘입은 바 크다. 본인은 국립 대전현충원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에서 물러난 후 지난 20여 년 동안 감내하기 어려운 긴장의 나날을 보내며 우리 현씨의 원류를 밝히는 일에 힘써 왔다.

이제 기나긴 세월 땀과 고통 속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에 대한 자료의 편집을 마치는 순간 벅찬 감동을 억누를 수가 없다. 본인은 우리 현씨의 원류사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후손들에게 맡긴다.

아무쪼록 이번에 대폭 수정과 보완을 거쳐 다시 편찬된 『연주현씨延州玄氏의 원류사源流史 연구』가 종친들에게 우리 씨족의 뿌리를 바로 알고 숭조정신을 높이며 자긍심을 갖게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7년 6월 1일

24세손 현령공파 **현 창 기** 삼가 씀

새로 정립하는
延州玄氏 원류사

연주 현씨玄氏의 원류사源流史는 왜 새로 정립해야 하는가

우리 선조들께서는 1747년 (조선 영조 23년)에 1차 『대동보』를 펴내셨고 그로부터 177년이 지난 1924년에 편찬한 『갑자오수보甲子五修譜』의 「보유편補遺篇」에 비로소 우리 현씨 원류사의 근거가 되는 현도국玄都國과 주 현탁일周 玄鐸一 관련 기록을 수록하여 우리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셨다.

△ 그러나 오늘의 많은 후손들은 『오수보』 이후 9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지만 우리의 『대동보』에 이러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기록을 보았다 하더라도 한자로 기록된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 평소 우리 씨족의 원류에 대한 관심이 있는 후손이라 하더라도 “현씨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명확히 대답할 수 있는 종친들이 그리 많지 않은 오늘의 현실에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컸다.

△ 오늘의 우리 후손 모두에게는 선조들께서 물려주신 『갑자오수보』의 「보유편」에 실려 있는 ‘미완의 우리 원류사’를 새로 복원하여 자랑스러운 우리

씨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종회는 이 연구 성과가 『대동보』의 9수보 편찬 과정에서 우리 씨족의 원류사를 바로 세우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건의한다.

제1부

현씨玄氏의 원류源流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 현씨의 원류인 현도국玄都國은 실재했다

△ 우리 현씨의 원류와 관련하여 『갑자오수보甲子五修譜』「보유편補遺篇」에서, 동한시대의 역사학자 응소應劭(약 서기 153-196)가 쓴 『풍속통風俗通』이라는 책에 나오는 "현도는 옛 제후국이다. 자손들이 나라 이름으로써 성씨를 삼았다.(玄都古諸侯國 子孫以國爲氏)"라는 말을 인용했다.

△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선진先秦 시대 문헌인 『죽서기년竹書紀年』·『일주서逸周書』·『국어國語』와 『노사路史』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요·순 시대는 물론 오제의 첫 제왕인 소호少昊시대에 이르기까지 현도국과 관련된 기록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 『대동보』에 현씨의 원류로서 등장하는 현도국玄都國은 상고시대에 실재했던 고대 동이국가라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서 최초로 밝혀졌다.

2) 현도국은 중국의 동북방에 존재했던 동이국가 명칭이다

△ 현도국玄都國은 상고시대 중국의 동북방 지역에 존재했던 동이국가 명칭이다. 현도의 '현'은 '하늘'의 뜻으로 하늘나라, 신선의 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현도는 또한 현도씨라는 씨족명, 현도라는 수도의 명칭으로도 사용

되었다.

△『산해경』에 대황大荒의 동북방 모퉁이에 여산黎山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대황大荒은 중원지역이 아닌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황량한 지역을 말하고 동북방은 중국대륙의 산서성, 하북성, 요녕성, 산동성, 한반도 일대를 가리킨다.

△ 후일 현도씨의 활동 근거지는 중국의 북방, 동방, 동남방 등으로 널리 확대되었지만 초기 현도씨玄都氏, 현도국의 중심지, 즉 발상지는 동북방, 특히 동북방의 요서遼西지역(내몽고 적봉시 홍산문화지역) 일대에 있었으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상고시대 동북방의 구려국 九黎國이 현도씨 玄都氏의 나라였다

△『노사路史』의 "현도씨 여국玄都氏 黎國"이라는 기록은 상고시대 동북방에 위치하여 동이를 대표하던 국가인 여국黎國은『국어國語』에 나오는 구려국九黎國과 그 실체가 같은 바로 현도씨의 나라였음을 말해준다. 현도국과 여국, 구려국은 동일한 나라에 대한 다른 표현이었다고 할것이다.

△ 이는 신채호申采浩 선생이 논증論證하신 바와 같이 상고시대의 식신씨息愼氏, 숙신씨肅愼氏가 그 표현은 다르지만 "조선朝鮮"을 지칭하는 동일한 명치이었던 것과 같다고 하겠다.

△ 여국黎國의 여黎는 새벽녘 동이 틀 때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여명'을 뜻한다. '여국'은 우리말 '밝달국'의 한자 표기로서 우리의 고조선 건국이전 환국시대, 배달시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동아시아 문명의 여명기로 말해지는

오늘날의 내몽고 적봉시 홍산문화 유적이 바로 이들 현도씨 여국, 즉 밝달국이 남긴 유적이다.

4) 구려九黎는 9개 부락으로 형성된 치우蚩尤 부족의 원시사회 부락연맹 국가이다

△ 그러면 여黎를 구려九黎라고도 하여 여黎와 구려九黎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국어』「초어」의 주석에 나오는 다음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여씨 9인은 치우의 무리이다.(黎氏九人 蚩尤之徒也)"

"여씨黎氏 9인은 치우蚩尤의 무리이다." 라는 이 주석을 통해서 우리는 소호시대의 여씨黎氏 부족은 하나가 아니고 모두 9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그들을 구려九黎라고 지칭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 구려九黎라는 표현은 그들은 상고시대에 하나의 부락연맹을 형성한 여黎민족 집단이었으며 단순한 하나의 개체적 존재가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 세계의 어느 민족과 국가를 물론하고 형성 초기에는 부락을 통해서 차츰 발전해왔다. 구려九黎는 상고시대에 치우 부족의, 모두 9개 부락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최초의 부락연맹 국가의 명칭이었다.

△ 상고의 전설시대에 동아시아 대륙에서 최초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고 농업시대에 진입한 씨족 집단이 바로 구려九黎였다고 할 수 있다. 후대의 구이九夷는 바로 이 구려가 변화 발전된 것이다.

△ 죽서기년竹書紀年』「오제기五帝紀」에는 "순임금 25년에 식신씨가 와서 조공하여 활과 화살을 바쳤다.(舜二十五年 息愼氏來朝 貢弓矢)" "42년에 현도씨가 와서 조공하여 진귀한 옥을 바쳤다.(四十二年玄都氏來朝 貢寶玉)" 라는 기록이 나온다.

중국의 요순堯舜시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단군시대에 해당한다. 그런데 『맹자』에는 「이루편離婁篇」에서 순舜의 탄생지와 활동지, 서거하신 곳 등을 언급하면서 그를 "동이지인東夷之人"이라고 말하였다.

△ 우리는 그동안 식신씨息愼氏와 숙신씨肅愼氏 관련 기록은 여러 고대 전적을 통해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죽서기년竹書紀年』에서 현도씨玄都氏가 식신씨와 함께 거명된 것을 본다면 상고시대에 현도씨는 식신씨와 동일한 시대에 존재했던 씨족으로서 이들은 같은 형제였거나 아니면 같은 동이국가였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5) 구려국의 최고 지도자 치우천왕 현도씨가 우리 현씨의 시원이다

△ 현도씨 구려국의 최고 지도자는 치우蚩尤천왕으로서 치우가 바로 현도씨였다. 그러한 사실을 『여씨춘추呂氏春秋』, 『춘추좌전春秋左傳』, 『국어國語』, 『전국책戰國策』 주석註釋, 『사기정의史記正義』, 『노사路史』 등의 기록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승리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치우가 바로 현도국, 현도씨 여국의 시원이며 이 분이 또한 우리 현씨의 최초의 기원起源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6) 현도국은 1700년 동안 역사상에 건재했다

△ 현도씨의 현도국, 즉 구려국은 오제의 첫 제왕인 소호少昊시대에 제후국가로 실재했고 순舜임금 시대에는 제후국가로서 진귀한 옥을 조공했으며 하夏나라를 거쳐 은殷나라 말엽 주왕紂王시대까지 1700년 동안 동방의 동이東夷를 대표하는 강대한 국가로 건재했다.

7) 현도씨 여국이 패망한 뒤 그 자손들이 나라 이름에서 현玄자를 따와 성씨로 삼았다

△ 현도국은 그러다가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치기에 앞서 당시 산서성 상당上黨 호관壺關 지역에 있던 은나라의 제후국인 여국을 정벌함으로서 멸망했다. 그러한 사실을 『죽서기년』·『서경』·『노사』 등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 따라서 동한시대 응소가 말한, 현도국이 멸망한 뒤, 그 자손들이 조국을 잊지 않으려는 심정에서 이국위씨以國爲氏 즉 나라의 이름을 성씨로 삼은 시기는 대략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주나라를 건국한, 서기전 1046년 이후가 된다는 사실이 최초로 밝혀졌다.

8) 현씨의 출현시기는 3000년 전이고, 현씨의 원류는 4700년전 치우천왕이다

△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현씨의 출현시기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 주나라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고 거기서 그 뿌리를 다시 추적하면 대략

4700년 전 상고시대의 현도씨 치우천왕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수 백 년 동안 가려져 있었던 현씨의 원류를 최초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국 한족의 시조 황제와 맞서 싸워 승리를 쟁취했던 동이족의 위대한 영웅 치우천왕의 씨족명칭이 무엇인지, 그 직계자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 이번에 치우의 씨족명칭이 현도씨이고 치우의 직계자손이 바로 우리 현씨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한 것 또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9) 이제 현씨의 원류 현도국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되었다

△ 무엇보다도 이번 연구가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현씨의 원류인 현도씨, 현도국이 상고시대에 실재했던 것과 또 현도씨 구려국의 멸망, 현씨의 출현 배경 등을 추적하는데 있어서 『죽서기년』·『일주서』·『서경』·『여씨춘추』·『춘추좌전』·『국어』·『노사』 등과 같은 그 사료적 가치를 학계가 공인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 정확한 해석을 통해 밝혔다는데 있다.

△ 이제 "현도는 옛 제후국이다. 자손들이 나라 이름으로써 성씨를 삼았다.(玄都古諸侯國 子孫以國爲氏)"라는 『갑자오수보甲子五修譜』「보유편補遺篇」에 나오는 이 기록은 우리의 원류로서 그것이 상고시대의 역사적 사실임이 거의 완벽하게 밝혀졌다고 하겠다.

10) 중국에서 황제黃帝의 아들 현효玄囂를 현씨의 원류로 삼는 것은 오류이다

△ 현재 중국에서는 황제黃帝의 아들인 현효玄囂를 현씨의 원류로 삼는다. 이는 청나라 말엽의 학자 장주張澍(1776-1847) 가 저술한 『성씨심원姓氏尋源』의 "현씨는 마땅히 황제의 아들 현효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玄氏當出自黃帝子玄囂)"라는 기록에 근거를 둔 것이다.

△ 그러나 현효는 성명이 아니고 황제의 아들 이름이다. 황제의 성은 희씨姬氏이므로 현효의 성명은 희현효姬玄囂 가 될 것이다. 그런데 장주는 아무런 출전出典의 제시도 없이 현효의 현자를 성씨로 보고 효자를 이름으로 보아 현효를 현씨의 원류로 본다는 주관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청나라 이전 상고시대 다른 문헌기록과는 상반된다.

11) 중국의 현씨들도 모두 현효玄囂의 자손이 아닌 현도국 치우의 후손이다

△ 현재 중국 현씨들의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한족의 시조인 황제 헌원씨의 활동무대였던 중국 서쪽지방의 섬서성 일대보다는 동이족의 조상인 치우 현도씨의 활동 근거지였던 중국 동방, 동북지방의 산서성, 하북성, 산동성 등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 지금 중국의 현씨들이 현도씨 치우의 유적과 유물이 현존하고 있는 곳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황제의 후손이 아니라 동이족 현도씨 치우의 자손임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 따라서 중국의 현씨들이 출전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성씨심원』의 기록에 따라 황제의 아들 현효를 원류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청나라 이전의 자료에 의하면 다 같은 현도국 자손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연주 현씨와 그 원류를 같이한다고 하겠다.

12) 한국의 연주현씨는 고려시대에 의주로부터 연주에 입진성으로 들어가 정착한 현도씨 치우천왕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

△ 한국의 연주 현씨들은 『갑자오수보』 이래 황제의 아들 현효를 현씨의 시원始源으로 보지 않고 현도국, 현도씨를 현씨의 최초의 원류로 인식해 왔다.

한국 연주 현씨의 시조이신 담윤공覃胤公의 선계先系에 관해서 지금으로서는 문헌상으로 정확히 고증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나 담윤공을 비롯한 우리 연주 현씨 선조들께서는 현도국의 발상지인 내몽고 적봉시와 치우천황의 주요활동 근거지였던 산서성, 하북성, 산동성 등 중국의 동방, 동북방에서 활동하다가 한반도의 의주義州를 거쳐 고려시대에 우리의 본관으로 삼고 있는 연주延州에 입진성入鎭姓으로 들어가 정착했으며 고대 동이를 대표했던 현도씨 치우천왕의 후손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합당하다할 것이다.

제2부

현씨玄氏의 출현시기는 대략 3000년 전으로 본다

△ 현도국의 멸망滅亡에 대하여

– 동양최고의 역사서인 『서경書經』에는 "「서백감려西伯戡黎」 즉 서백西伯이 여국을 정벌하여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 서백西伯은 원래 은나라의 서쪽을 다스리던 제후의 명칭으로서 황제黃帝 후손인 무왕武王을 가리킨다.

– 무왕武王 의 아버지도 서백西伯이었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다시 무왕이 서백西伯을 계승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현씨의 출현 배경에 대하여 이미 제1부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 주周나라 무왕 武王이 은나라를 치기에 앞서 당시 산서성 상당上黨 호관壺關 지역에 있던 은나라의 제후국인 현도씨의 후손이 세운 여국黎國을 정벌하여 멸망시켰으며 그것이 현씨의 출현배경이 된 것을 확인하였다.

△ 동한시대의 역사학자 응소應劭는 주周나라에 의해 패망한 현도국의 후손들이 조국을 잊지 않으려는 심정에서 나라의 이름을 성씨로 삼았다고 그의 저서인 「풍속통風俗通」에 기록하고 있다.

△ 현씨의 출현시기는

– 주周나라가 건국한 서기 전 1046년 이후로 보며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거기서 그 뿌리를 다시 추적하면 대략 4700년전 상고시대의 현도씨 치우천왕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고증됨으로써 우리씨족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 우리 현씨 발원의 역사는

– 문헌상으로는 대략 3000여년에 이르고 있음이 고증되었으나 연주현씨 시조님의 활동시기를 약 900년전으로 본다면 우리현씨의 발원시기로부터 시조님에 이르는 약 2100여 년간의 선대계보先代系譜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공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우리 선조들께서 의주義州로부터 "입진성入鎭姓"으로 연주延州에 들어가 정착한 문헌적 근거를 『고려사』에서 찾은 것이 우리나라 역사서를 통해 발굴된 유일한 연주현씨 시조의 기록임을 감안할때 앞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 고대문헌을 통해 시조님의 선계와 관련된 고증사료를 새로이 더 발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씨족 발원의 역사는 연주현씨 900년의 역사 앞에 중국과 이 땅에서 계보의 실체가 기록으로서 확인되지 않는 약 2100여 년이란 장구한 선조들의 소중한 역사가 더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 후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 이 땅에 실존하고 있는 우리 현씨는 고려때 연주에 터전을 잡으시고 우리의 시조가 되신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담윤공覃胤公을 정점頂点으로 하여 단일본單一本을 이루고 있다. 고려사에 빛나는 연주현씨 延州玄氏 900년사가 우리의 『대동보』에 의해 실증되고 있으니 이는 자랑스러운 우리 조상의 소중한 역사이다.

제3부

주周나라 현탁일玄鐸一을 현씨玄氏의 동래선계東來先系로 볼 수 있는가

1. 기자 동래설 箕子東來說 은 중국문헌에서 비롯되었다.

△ 선진문헌先秦文獻

△ 서기전 3세기 이전에 쓰여졌다는 『상서尙書』·『논어論語』·『죽서기년竹書紀年』 등의 선진문헌先秦文獻에 나타난 기자는 BC 1000년 전후에 실존했던 인물로서 상나라의 마지막 충신이자 성현으로만 묘사되고 조선과의 관련은 기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국시대까지는 기자가 조선으로 왔다는 기록은 중국에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 한漢나라 이후의 문헌

기자가 조선에 와서 왕이 되었다고 전하는 '기자 동래설箕子東來說'이 등장하는 최초의 중국 문헌은 서한시대西漢時代에 편찬된 복생伏生의 『상서대전尙書大傳』이며 같은 시대에 편찬된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와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등이다.

2. 우리 나라의 역사서는 기자조선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 고려시대 이전·고려시대·조선시대·한말까지 –

1) 고려시대 이전

△ 통일 신라까지 기자 관계 국내 기록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역사서가 없어 검토 할 길이 없다.

2) 고려시대 이후 : 고려시대 ~ 조선시대, 한말까지 약 1천년 동안 기자의 동래설은 정설定說로 인식되어 왔다

△ 고려시대

–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자 관련기록은 중국문헌을 인용하거나 김부식金富軾의 사론史論을 통해 간략히 언급되었는데 이는 중국문헌의 기록대로 과거 기자가 조선을 통치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 조선시대 · 한말까지

– 조선시대에 이르면 새로운 건국 세력의 등장과 더불어 고려 말의 어지러워진 사회와 문화전반에 걸쳐 새로운 질서와 전통의 재정비가 요구되는 시기였다. 집권층은 민족의 전통과 유교적 통치이념을 동시에 강조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당시에 크게 영향을 끼친 정도전鄭道傳은 단군과 기자를 동시에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주자학이 성행함에 따른 모화사상慕華思想과 더불어 단군보다 기자 숭배가 날로 증진되었다.

3) 일제 강점기 : 기자동래설의 '부정론'이 제기되었다

△ 일제 강점기에 있어 우리 사회의 기본 과제는 근대사회를 형성하는 이념을 구현하고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역사학의 과제이기도 하였다.

- 근대시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역사학은 박은식·신채호의 역사연구에 이르러서 근대 역사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의 사가들은 기존 사료史料의 비판을 통해 한민족의 기원에 대하여 종래의 고조선의 전개지역을 대동강 유역으로부터 만주 지역으로 확대하여 민족의 이동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중국이 주변 약소국을 식민국가화 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의 고대사를 왜곡한 것이므로 기자의 동래설은 역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4) 광복 이후 : 기자동래설의 '부정론'은 남북한 공히 다수설 내지 일반적 통설을 이루고 있다

△ 남북한 사학계는 광복이후 문헌비판을 통해 기자의 동래설을 부정하였다.

△ 한국의 역사 교과서 개편

- 대한민국에서는 1964년 교과서에서 기자조선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1974년에는 교과서 개편을 앞두고 고조선에 대한 논쟁에서 기자조선의 실재성이 논의되었고 교과서에 기자조선이 각주로 언급되었다. 1999

년부터 발행되는 역사 교과서에서도 각주로 처리되었으나 2010년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기자조선이 언급되지 않는다.(「위키백과 우리모두의 백과사전」)

△ 북한 학계

– 1960년 고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치열한 토론을 거쳐 이지린李址麟의 학설이 통설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지린은 기자란 명칭이 기국箕國에서 유래된 것이며 따라서 기자는 조선에 수봉된 것이 아니라 양국梁國 몽현蒙縣에 수봉되었다가 그 후 산서山西 경지境地로 이동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자와 고조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이 전설에서 고조선과 상주시대商周時代에 밀접한 관계와 문물제도가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중국인들이 공인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지린:「고조선국가 형성에 관한 한 측면의 고찰」,『력사과학』, 1962. 2)

– 광복 후 북한학계는 평양의 기자묘를 발굴했는데 벽돌 조각과 사기조각 밖에 나온 것이 없다고 한다. (『고조선력사개관』108쪽, 사회과학원, 1999.)

3. 중국의 『만성통보』 원간본에 주나라 현탁일의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

△ 우리 선조들께서 1924년 『갑자오수보』를 편찬할 당시 「보유편」에 "견만성보見萬姓譜"라고 표기하고 주 현탁일周玄鐸一의 관련기록을 수록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어떤 중국 『만성통보萬姓統譜』의 판본을 참조하신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나 현재 확인된 중국의 『만성통보』 원간본에는 주나라 현탁일의 기록은 없다.

△ 선조들께서 참조했던 당시의 판본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 것은 1782년 청나라 건륭황제가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의 편집을 위해 일반에 널리 통용되던 각종의 통행본을 전국으로부터 수집하여 문헌에 대해 엄격한 고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통행본들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폐기된 사례와 무관하지 않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 명나라 능적지가 1579년에 편찬한 『만성통보萬姓統譜』는 현존하는 중국의 보록으로서는 매우 오래된 대표적인 문헌이다. 여기에 수록된 현씨玄氏 관련 기록 내용이 그 후 1782년에 청나라 건륭황제가 편찬한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 중의 『만성통보萬姓統譜』 편에도 수정 없이 그대로 인용 수록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도 『갑자오수보』에 수록되어 있는 "주 현탁일周玄鐸一의 기록만은 없음이 확인되었다.

△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아무리 선조들께서 인용하신 문헌이라 하더라도 능적지가 저술한 『만성통보萬姓統譜』 원간본 및 청, 건륭황제가 편찬한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와 『중국인명대사전』 등에도 "주 현탁일周玄鐸一의 관련 기록이 없다면 이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중국의 문헌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선조들께서 『갑자오수보』의 「보유편」에 수록하신 중국 『만성통보萬姓統譜』의 "주 현탁일周玄鐸一" 기록은 문헌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당시에 일반에 통용되었던 판본 미상의 한 '통행본'을 참고하신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4. 주나라 현탁일玄鐸一은 현씨의 동래선계가 될 수 없다

△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선조들께서는 『갑자오수보』의 보유편에 주나라 현탁일이 기자가 조선에 올때 그의 좌빈객으로 왔다는 기록에 따라 현탁일을 현씨의 동래선계로 추정해 왔으나

△ 이번 증보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주나라 현탁일은 현씨의 동래선계가 될 수 없다는 쪽으로 재정립再定立을 하게 되었다.

- 그 첫째 이유는 명明나라 능적지凌迪知가 1579년에 저술한 중국中國 『만성통보萬姓統譜』 원간본原刊本에 현탁일玄鐸一 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문헌적 근거가 없는 "동래선계東來先系의 추정推定"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두 번째 기자동래설은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그 기록이 없음에도 모화사상慕華思想에 영향을 받아 고려 조선 대원군 시대까지 약 1천년동안 정설定說로 인식되어 왔으나
- 세 번째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민족주의 사가들에 의해 기존 사료의 비

판을 통하여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의 부정론이 제기되었고 이는 광복이후 현재에도 남북한 공히 다수설 내지 일반적인 통설에 이르는 학설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 따라서 한국은 1964년에 역사 교과서를 개편하였고 북한도 1962년 기자동래설의 부정론을 제기한 이지린李知麟의 학설을 통설로 인정한 바 있다.

△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기자의 동래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고증할 아무런 문헌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탁일을 동래선계로 보는 관점도 당연히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제4부

우리 조상들께서는 언제부터 오늘의 연주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는가

1. 한국인의 성씨제도姓氏制度는 고려시대에서 비롯되었다

△ 신라 경덕왕 5년(서기 746)에 설총薛聰에 의해 이두문자吏讀文字가 만들어졌고 고려 인종 23년(서기 1145)에 김부식金富軾이 『삼국사기』를 지었으며 이어 고려 충렬왕 11년(서기 1285)에 일연一然이 쓴 『삼국유사』가 『삼국사기』와 함께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고대사 기록임을 미루어 볼 때 문자와 성씨의 보급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삼국시대까지는 기록에 의한 각 씨족들의 계보화系譜化는 이루어 질 수가 없었다고 본다.

△ 한국인의 성씨제도姓氏制度를 살펴보면 예로부터 성을 쓰지 않는 풍습이 고려초기까지 이어져 왔다. 11대 문종왕(1046-1083)에 이르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을 쓰지 않으면 과거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세력인 호족들을 중앙 관료기구로 흡수하는 방안의 하나로 군현郡縣 단위로 성씨의 본관제本貫制를 시행한데서 성씨제도가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고려 때 그 관계 사료史料가 전국적으로 수합收合 정리整理되지 못하여 『고려서高麗史』「지리지地理志」가 고려 때 편찬되지 않고 조선조시대의 정인지鄭麟趾에 의

해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志」에 반영되었다.

2. 현씨는 서기 전 1000년 경 현도국의 멸망이래 현씨라는 성을 줄곧 갖고 있었다

△ 한국인의 성씨제도는 고려시대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우리나라 고대사를 기록하고 있는 『삼국사기』·『삼국유사』에 비록 서기전 1000년경 현도국 멸망 후 우리 현씨玄氏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었다는 관련 기록은 없다 하더라도

△ 역사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지정학적으로 고조선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에서 빈번한 인적·물적 교류가 있었다고 보 았을 때 우리 선조들도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 땅으로 진출하여 살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3. 우리 조상들께서는 고려 때 의주義州로부터 연주延州에 입진성入鎭姓으로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다

△ 삼국시대는 우리나라 고대사를 통해 현씨玄氏의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의주義州에 살고 있던 우리 선조들이 연주延州에 입진성入鎭姓으로 들어가 정착한 사실이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

理志」(평안도 영변 대도호부편) 성씨조姓氏條에 의해 기록되어 그 이동 경로가 고증되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 만한 대목으로서 이는 우리 연주 현씨延州玄氏 시조님의 직계선대直系先代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 그러나 이와같이 의주에서 연주에 입진성入鎭姓으로 들어간 선조들이 언제 어떤 경로를 거쳐 중국으로부터 의주義州로 오셨는지는 더 이상 고증 할 사료가 없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이다.

4. 고려高麗 때 연주延州는 어떤 곳인가

△ 연주延州는 삼국시대三國時代에는 고구려의 영토領土였고 신라 통일시기에는 발해渤海의 땅이었으며 고려高麗 건국建國 8년 후인 서기 926년에 발해渤海가 거란에 멸망滅亡 당한 것을 계기로 고려의 영토로 편입된 곳이기는 하나 거란과 여진족女眞族들이 이주移住해 살고 있던 당시의 연주延州는 황폐화되어 사람이 살지 않고 있던 이른바 버려진 황무지荒蕪地의 땅이었다.

고려의 최북단 변방邊防 지역으로서 묘향산맥을 타면 왼편에는 박천평야를 거쳐 서한만으로 빠지는 청천강淸川江이 있고 곧 바로 옆에 1180미터의 용문산龍門山이 있는 북방北方으로서 이민족異民族과 국경國境을 맞대고 있어 영토 확장 정책상政策上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기도 하였다.

△ 고려高麗 태조太祖는 서기 928년(태조 11)에 처음으로 북계北界를 살피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이곳을 거란과 여진족女眞族의 침입으

로부터 막고 북계北界에 살고 있는 주민을 고려인으로 귀화시키는 한편, 서경西京을 경계로 해서 압록강에 이르는 광대한 황무지의 미 수복지역未收復地域에 많은 남도南道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移住시키는 사민정책徙民政策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일광玄日光 28세世:『연주현씨시조 담윤공생애일대기延州玄氏始祖覃胤公生涯一代記』1998년)

> 고려高麗는 전국全國을 5도道와 양계兩界로 구분하여 각 도道는 문관文官인 안찰사按察使가 통솔하고 미수복지구未收復地區인 북계北界는 서북면西北面과 동북면東北面의 양계兩界를 설치하고 무관武官인 병마사兵馬使가 지휘指揮하였다.
> ※ 연주延州는 서북면 병마사 관할에 속해 있었다.

5. 현씨玄氏가 고려 때 입진성入鎭姓으로 연주에 들어간 문헌 기록

△『세종실록世宗實錄』권154「지리지地理志」평안도 영변대도호부寧邊 大都護府 편 성씨조姓氏條의 다음 기록에 의하면 우리 현씨玄氏는 고려 때 선조님들께서 의주義州로부터 연산진延山鎭에 입진성入鎭姓으로 들어가 정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연산 입진성 6(延山入鎭姓六)

현玄(의주義州) · 이李(파명破平) · 골骨(강화江華) · 박朴(청리靑里) · 양梁(남원南原) · 최崔(경주慶州) (『세종실록世宗實錄』권154「지리지地理志」성씨조姓氏條)

즉 고려 때 연산진延山鎭 (연산성延山城)에 들어온 여섯 성씨姓氏가 있었는데 "현씨玄氏 · 이씨李氏 · 골씨骨氏 · 박씨朴氏 · 양씨梁氏 · 최씨崔氏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연산진延山鎭은 연주성延州城을 말한다.

6. "입진성入鎭姓"이란 무엇인가

△ "입진성入鎭姓"이란 고려시대의 사민제도徙民制度에 따라, 거란인이 점령하고 있던 북계北界 지역이 고려의 영토로 편입되어 군이 관할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의 진영鎭營 즉, 각 성내의 군사지역으로 이주해온 성씨를 지칭한다. (참고 2)

△ 사민제도徙民制度는 개인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이주移住가 아니라 고려가 북계北界 지역의 새로운 개척을 위해 남도 백성들을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한 형태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참고 1)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志」 성씨조姓氏條에는 토성土姓, 내성來姓, 속성續姓, 망성亡姓의 기록과 양계兩界에는 입진성入鎭姓이란 기록이 있다.

△ 고려시대 사민徙民에 대하여 연구한 이수건李樹健은 "입진성入鎭姓"의 원주지 분석을 통해 그 이동 경로를 밝히면서 내성來姓, 속성續姓 등의 이주성移住姓은 대부분의 경우 입진성入鎭姓으로서 소자래처所自來處를 주기註記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 전의 "거주지"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 따라서 연산진 입진성入鎭姓 기록에 "현씨의주(玄 義州)"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선조들께서 고려시대의 사민徙民 시기에 이주 전의 거주지인 의주로부터 연산진(연주성)에 '입진성入鎭姓'으로 이적移籍해 와서 정착한 것임을 알게 한다.

△ 특히 연산진 입진성入鎭姓 여섯 성씨姓氏 중에서 우리 '현씨玄氏'를 맨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선조님들의 이주 규모가 타 성씨에 비해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으나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志」 성씨조姓氏條의 기록만으로 봐서는 사민徙民은 남도 백성들이 북계北界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 일반적인데 어째서 우리 선조님들께서는 북쪽인 의주지역에서 남쪽인 연주로 오게 된 것인지 그 연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또한 선조님들의 입진시기와 이주의 규모 등도 알 길이 없으나 추정하건대 당시 우리 선조들께서는 집단적인 이주가 이루어져 연주에 토착세력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연주 현씨延州玄氏 시조始祖님이신 담윤공覃胤公

公이 배출되시어 일찍이 연주성의 도령都領으로서 주진군州鎭軍을 지휘하여 지역방위에 크게 기여하시었고 조위총趙位寵의 난을 평정시켜 고려사高麗史에 빛나는 위훈을 세우신 것으로 여겨진다.

7. 시조님은 연주에서 태어나시고 그 곳에서 성장하시었다

△ 시조님께서는 서기 1146년 고려 의종毅宗 때 19세의 연소한 나이로 중국 북부의 호족인 갈로羯虜가 국경을 침범하자 의병을 일으켜 물리침으로써 왕이 가상히 여겨 명문거족과 결혼을 시켜주었다는 기록이 우리 『대동보』에 실려 있다.

△ 고려 태조(서기 918)는 건국 초기부터 북계北界 지역의 개척을 위해 시행한 사민정책徙民政策에 따라 남도 백성들을 북계北界 지역으로 집단적인 이주를 시키면서 입진성入鎭姓이 늘어났다.

△ 시조님의 활동 연대는 고려의 사민정책徙民政策이 시행되어 온지 약 200년 이후가 되며 당시 시조님의 연세가 19세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의주로부터 입진성入鎭姓으로 연주에 들어간 현씨玄氏 중에는 연소했던 시조님 이전의 직계선대 일족이 있었으며 시조님은 연주에서 태어나시고 그 곳에서 성장하신 것으로 추정된다.

8. "입진성入鎭姓"의 문헌文獻 기록은 연주 현씨의 원류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사료史料이다

△ 우리 후손들 모두가 본관本貫을 연주로 삼고 있지만 선조들께서 언제 어디로부터 연주로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되었는지 그 연유에 대하여 늘 궁금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 地理志」 성씨조姓氏條에 수록된 현씨玄氏의 "입진성入鎭姓"의 기록이 새로 발굴되었다.

△ 이번 연구 결과 우리 선조들께서 의주로부터 "입진성入鎭姓"으로 연주에 들어가 정착한 기록을 『고려사高麗史』에서 찾았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서를 통해 발굴된 유일한 시조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우리 연주 현씨延州玄氏의 원류사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 매우 소중한 연구결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9. 학계의 감수 소견 (최창규 박사, 이택휘 박사)

△『세종실록』「지리지」 평안도 영변대도호부平安道寧邊大都護府 편에 현씨玄氏가 고려때 원주지原住地인 의주義州로부터 연산진延山鎭에 입진성入鎭姓으로 들어가 정착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현씨玄氏가 연주延州로 들어간 그 이동경로를 밝혀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큰 연구결과로 보았다.

△고려시대의 사민제도徙民制度와 입진성入鎭姓의 해설이 정확하다.

〈참고 1〉 고려시대의 사민제도徙民制度

· 고려시대의 사민제도徙民制度를 연구한 인하대 박은경朴恩卿교수의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고려 태조太祖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평양平壤을 서경西京이라 하여 제2 수도로 승격시키기고 이를 기지基地로 하여 북진정책北進政策을 펴 나갔다.
- 양계兩界의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어 실시하게 된 것이 바로 사민徙民이다.
- 사민徙民이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이주나 삶의 기반을 잃고 떠도는 유망流亡과 달리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주移住의 한 유형으로서 특징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 양계兩界에는 진장鎭長이 임명되는 28개의 '진鎭'이 있었는데 이들 진鎭은 '성城'에 의해 둘러싸인 무장 요새지가 형성되고 축성築城은 곧 설진設鎭을 의미하는 것이며 설진設鎭에 이어 사민徙民이 이루어졌다.
- 사민徙民된 자들은 양계兩界에 설치된 진영鎭營의 방비를 위해 주진군州鎭軍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군량미의 확보 등을 위해 나라의 소유토지인 둔전屯田을 경작하는 농민이기도 하였다.
- 양계兩界는 특수 군사지역이었으므로 사민徙民된 자는 군사적 경제적인 기반을 이루는 주진군州鎭軍이자 둔전屯田 경작자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국가는 이들을 호적戶籍에 올려 통제하였다.

– 고려의 민民에 대한 통제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호적을 통해 국역國役을 담당토록 철저히 파악하였으나 국가의 통치상의 목적에서 '본관本貫'을 통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사민徙民의 해제解除

사민徙民의 필요가 없어질 때는 그 해제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는데 방귀전리放歸田里가 그것이다.

이는 거주지 제한 조치가 풀리고 원하는 곳에 가서 살게 했는데 반드시 본관지本貫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원하는 곳에 가서 살도록 하였다.

〈참고 2〉 고려시대의 입진성入鎭姓

–고려시대 사민徙民에 대하여는 이수건李樹健에 의해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志」 성씨조姓氏條의 '입진성入鎭姓'에 대한 원주지原住地 분석을 통해 그 이동경로가 밝혀진 바 있다. (이수건: 「고려시대 북방이민北方移民에 대하여」, 徐廷德교수 『화갑기념학술논총華甲紀念學術論叢』)

–『세종실록』「지리지」의 성씨조에는 토성土姓 · 내성來姓 · 속성續姓 · 망성亡姓 등의 여러 기록이 있다. 그 중 양계兩界 지방에는 '입진성入鎭姓'의 기록이 있는데 이는 사민徙民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토성土姓: 고적古籍과 본도관本道關에 적혀 있는 성씨로 고려 초 이래 그 지역에 계속해 살아온 토착성씨를 말한다.
- 망성亡姓: 고적古籍에는 있으나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시에 없어진 성씨이다.
- 내성來姓 속성續姓: 고적古籍에는 없으나 본도관本道關에 기록되어 새로 생긴 성씨를 일컫는다.

> - 고적古籍: 고려 초 이래 전래되어 오던 중앙 소장의 군현 성씨郡縣姓氏의 관계 자료이며
> - 본도관本道關: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 각 도道에서 올린 문서로써 각 읍사邑司에 배치되어 있던 성씨관계 자료를 수합 정리收合整理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세종실록』「지리지」 성씨조에 내성來姓· 속성續姓 등의 이주성移住姓은 대부분의 경우 '입진성入鎭姓'으로서 소자래처所自來處를 주기註記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전의 거주지를 가리키며 또한 본관本貫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입진성入鎭姓의 이적절차移籍節次

입진성入鎭姓에 오르는 것은 사민徙民된 자가 이주移住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조치가 아니라 양계兩界 지역에 사민徙民이 되어 살다가 그곳에 삶의 기반을 내리고 자신의 지역으로 인식할 때 개인적인 요구에 의해 이주지移住地로부터 사민지徙民地에 이적移籍 신청을 하는 절차가 따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제5부

고려사에 빛나는 연주현씨延州玄氏

1. 연주 현씨延州玄氏의 시조

△ 우리 연주 현씨의 시조는 고려高麗 때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역임하신 담윤공覃胤公이다.

△ 우리 연주 현씨의 역사는 시조님께서 이 땅에 터전을 잡으신 후 어언 900년의 세계世系가 면면히 이어져 왔다. 그 자손들이 고려와 조선조시대, 근 현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우리 현씨 가문의 위상을 크게 빛냈으며 오늘도 날로 번창하면서 자랑스러운 연주 현씨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

△ 본관本貫은 시조님의 고향인 연주延州를 본本으로 삼았는데 연주는 오늘날의 평안북도 영변寧邊의 옛 지명이다.

△ 시조님의 관직은 연산부사, 대장군,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거쳐 연산군延山君에 봉군封君되시고 경헌景憲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으셨다.

◇ 시조님의 주요 사적事蹟

· 연주 현씨延州玄氏 시조님의 주요 사적은 『대동보』를 비롯하여 『고려사』

「열전」·『고려사절요』 등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시조님의 성장 과정

시조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시고 체구가 장대하여 지혜와 용맹이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장성함에 따라 경서經書를 널리 보시고 『좌전左傳』과 『손자孫子』,『오자吳子』 등의 병서兵書를 즐겨 읽으신 후에 탄식하며 하시는 말씀이 "나라가 어지러운 때에 남아 대장부가 글만 읽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시며 활쏘기와 말 타기 등의 무술을 연마하여 장재將材의 기질을 배양하시었다.

△ 고려 의종毅宗때 시조님께서 19세가 되시던 해에 중국의 갈로羯虜가 국경을 침범해 왔다. 당시 갈로羯虜의 군사력이 막강하여 관군이 막아내지 못해 위기에 봉착했을 때 분연히 의병을 일으켜 이를 격퇴 평정하시니 의종 임금께서 연산부사延山府使를 임명 하시고 명문거족과 결혼토록 하심으로써 이때부터 시조님의 명성이 자자해지셨다.

참고: 갈로羯虜는 중국 북부 호족의 하나인 흉노족의 다른 이름이다.

△ 송宋나라가 여진의 난이 일어나자 고려에 원군을 청해 왔을 때 시조님이 고려의 원군대장으로 출전하여 대승을 거둔 후 귀국하심으로써 고려의 국위를 크게 선양하신 바 있으시다.

△ 특히 고려 명종明宗 4년 (1174)부터 3년간에 걸쳐 서경(평양)의 유수留守였던 조위총趙位寵이 역심을 품고 무신정권을 전복 시키고자 반란을 일으켜 황해도 절령岊嶺 이북 40여 성주城主들이 모두 임금을 저버리고 이에 호응하였다.

△ 연주성의 도령都領이셨던 시조님께서는 의연히 두 아들(장남 덕수공德秀公, 차남 이후공利厚公)과 함께 조위총趙位寵이 온갖 협박과 회유를 하면서 항복을 강요했으나 이를 단호히 거부하시었다. 40여개 성으로 구성된 막강한 반군이 3년간에 4차례에 걸쳐 격렬한 침공을 해 왔으나 군민을 결집시켜 고립무원의 연주성을 끝까지 지켜 이를 모두 격퇴 평정시킴으로써 반군의 개성진격을 막아 위기에 처했던 고려의 왕권을 수호하는데 크게 공헌 하셨다.

◇ 조위총趙位寵의 반란을 평정시킨 요체要諦는 무엇이었는가

△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해 보건대 시조님께서 고려사에 남기신 가장 위대한 공훈은 조위총趙位寵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연주성의 도령으로서 두 아들과 함께 삼부자三父子가 40여개 성으로 구성된 강력했던 반군을 섬멸시킨 것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되돌아보아도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그 승리의 원천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 모두는 깊이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문무를 겸비하시고 고매한 인격을 갖추시었다.

- 무엇보다도 연주성의 도령이시었던 시조님께서는 문무를 겸비하시고 고매한 인품과 위난에 처했을 때 군민軍民을 한 곳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탁월한 통찰력과 군사 지휘력을 고루 갖추시었다.

둘째: 위기상황의 대처對處 능력이 탁월하시었다.

- 『고려사高麗史』「열전列傳」에 기록된 2세조 덕수공德秀公 편에 의하면 시조님의 두 아들 형제(장남 덕수공德秀公, 차남 이후공利厚公)가 시조님 의 휘하에서 연주성을 지키고 있을 때 관군官軍의 최고 군사기관으로서 북계의 서북방면을 총괄 지휘하던 병마사兵馬使 차중규車仲圭가 반군에 의해 전사하는 위급한 사태를 맞아, 그의 부하인 주요 군사들이 연주성의 도령이신 시조님을 찾아와 무력화된 관군의 군사 지휘체계를 연주성을 거점으로 재정비 하고자, 두 아들 형제(장남 덕수공德秀公, 차남 이후공利厚公)를 장군으로 추대하고 국난의 수습을 건의해 왔다.
- 덕수공德秀公은 이를 수락하시고 공의 아우 선지별감 용호장군 宣旨別監龍虎將軍 이후공利厚公을 대행병마사代行兵馬使로 보내고 자신이 감창사監倉使의 권한을 대행하여 실질적인 군령권軍令權의 행사와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인적, 물적 동원을 주도적으로 총괄 지휘함으로써 전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셨다.

셋째: 시조님의 신의信義는 이웃 금金나라의 왕을 감동시켰다.

- 당시 이웃하고 있던 금나라의 고라高羅 장수가 왕명을 받아 군사를 거느리고 연주延州 경내에 주둔하니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
- 고라장수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왕이, 고려국 여러 성의 백성들이 왕명을 거역하고 있으나 너희만이 홀로 충의를 지키고 굴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고려에 가서 구원하라는 왕명을 받고 여기에 왔으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고 하였다.

- 시조님께서 본래 은신恩信으로 금나라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고라장수의 진지를 찾아 전황을 알리니 고라장수가 감격하여 “국왕으로부터 들은 말이 과연 거짓이 아니었구나 하며 위급한 이때에 내가 도와주리라” 하였다.
- 덕수공德秀公께서 원병과 합세하여 잔존 반군을 포위하여 완전 섬멸 시킴으로써 마침내 조위총의 반란은 평정되었다.
- 이는 시조님의 신의信義가 바탕이 되어 이웃 금金나라가 자진해 원군을 보내준 것으로서 고려의 국난 극복을 위한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도 크게 공헌하신 사례로 높이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고려를 위해 목숨을 던진 충의심忠義心의 발로이다.

- 시조님을 정점頂点으로 한 삼부자三父子가 군민軍民과의 일체감을 형성하여 오직 고려를 위해 목숨을 던지려는 충의심忠義心의 발로가 조위총趙位寵의 반란을 평정시킨 요체가 되었으며 그 결과가 연주성을 거점으로 하여 3년간에 걸쳐 4전 4승을 기록하는 고대 방어전에 있어서의 위대한 전투 교훈을 남기시었다.
- 시조님께서는 영웅호걸의 자질로 태어나시어 국사 다난한 세상을 만나 정의에 입각하여 행동하시고 사리에 맞추어 일을 처리하시며 절개 를 지켜 용단하시며 자질과 능력에 의하여 일을 처리하였으므로 매사에 성공하시었다.

△『고려사』는 특히 시조님께서 조위총趙位寵의 반란을 두 아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국난을 극복한, 위대한 충절과 공훈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명성이 뛰어났으며 인륜도덕에도 투철하시어 국가의 거성으로서 길이 빛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2. 2세조世祖

시조님께서는 아들 3형제를 두시었다.

◇ 장남 덕수공德秀公

· 『고려사高麗史』「열전列傳」 현덕수편에 의하면 덕수공德秀公이 시조님을 모시고 조위총趙位寵의 반란을 평정하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 조위총趙位寵의 반란을 평정하신 덕수공德秀公께서는 안남 도호부사安南都護府使와 경상도 안렴사慶尙道安廉使, 도관랑중都官郎中에 임명되시고 이어서 이부랑중吏部郎中과 병부랑중兵部郎中을 거쳐 사재소경司宰少卿, 전중감殿中監과 병부상서兵部尙書 (지금의 국방부장관)에 오르시고 뒤이어 팔거군八莒君과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에 봉해지셨다.

〈참고: 팔거八莒는 경상북도 칠곡군에 속한 옛 지명, 성산星山은 지금의

성주星州이다.〉

- 안남 도호부사로 임명 되시어 재임 기간 중에 청백하고 공정하게 국사를 다루시니 백성들은 더욱 공경하였으며 성내에 무녀를 가장한 남자들이 높은 사람 집을 드나들며 부녀자를 탐욕하는 악습이 일어나자 성내에 금무령禁巫令을 내려 엄히 다스렸으며

- 고려 명종조의 야사 "현덕수편"에 보면 덕수공德秀公께서 경상도 안렴사 도관랑중都官郎中으로 계실 때 산원 동정散員同正이었던 노극청盧克淸간의 집 값에 얽힌 의리와 미담사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 노극청은 몹시 가난하여 덕수공德秀公에게 살던 집을 팔기로 언약을 했는데 집 값을 받기 전에 노극청이 공무로 시골을 간 사이에 부인은 집 값으로 백금 12근을 받아갔다.

- 노극청이 돌아와서 그 말을 듣고 덕수공德秀公을 찾아와 내가 이 집을 살 때는 백금 9근을 주었는데 수년간 살면서 무엇 하나 보탠 것이 없이 훼손만 했는데 오히려 3근을 더 받았으니 3근을 되돌려 주겠다고 했다.

- 덕수공德秀公께서는 "자네만 의義를 지킬 것인가" 하고 받기를 거절 하자 노극청은 "나는 평생을 두고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한 집을 팔면서 귀한 집 값을 받는 장사꾼처럼 더러운 짓은 못 하겠다" 며 전부 돌려주고 집을 도로 찾겠다고 했다.

· 덕수공德秀公께서는 하는 수 없이 백금 3근을 되돌려 받으면서 "내가 어찌 극청과 같은 사람이 못 되었던가" 하고 받은 돈을 사찰에 시주하고 말았다. 이를 보고 듣는 사람은 세상에 이와 같이 의리가 두터운 사람들을 또 볼 수 있을까 하였다.

· 이 일화는 오늘의 각박한 세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는 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덕수공德秀公께서는 노후에 고려조에서 높은 벼슬을 마치신 덕망 있는 선비들과 9현 기로회九賢耆老會를 조직하여 활동하시면서 세진世塵을 잊으려 하셨다.
· 공께서 돌아가신 후 여러 사림士林들이 모여 국가에 기여한 위대한 공훈을 기리기 위해 남악산南岳山 기슭에 남악사南岳祠라는 사당을 지으시고 고인의 위패位牌를 봉안하고 고려조의 역대 고위 관리들이 제례에 참석하였으며 생전에 쓰시던 무기와 유품을 진열하여 유덕을 기리게 하였다.

◇ 차남 이후공利厚公

· 형님이신 덕수공德秀公과 함께 조위총趙位寵의 반란 때 시조님을 모시고 선지별감 용호장군宣旨別監龍虎將軍으로서 병마사兵馬使의 권한을 대행하여 반란평정에 크게 기여하시었고 그 후 경상도 안렴사安廉使를 역임하시고 광성군廣城君에 봉해지셨다.

◇ 삼남 덕유공德裕公

· 고려 명종 때 문과에 급제하시어 이부吏部와 예부禮部의 시랑侍郎을 거쳐 서경유수西京留守,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참지정사參知政事, 대사공大司空에 오르시고 회원군檜原君에 봉해지셨다.

· 시조님과 2세조世祖 3형제분께서 고려사에 남기신 위훈은 연주 현씨延州玄氏의 위상을 크게 빛내심으로써 명문가의 기반을 굳혀주시었다.
· 우리 연주 현씨 후손 모두는 고려사에 빛나는 선조님들의 위훈을 기리고 이를 본받아서 저마다 각 분야에서 더욱 정진하여 선조님들처럼 훌륭한 후손들이 될 것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연주현씨延州玄氏의 역사는 900년이 되었다

△연주현씨의 역사는 얼마나 되었는가. 가문의 뿌리를 소중히 여긴다면 시조님께서 이 땅에 터전을 잡으신지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우리 후손들은 꼭 알아두어야할 것이다.

△시조님의 탄생 연대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 『대동보』에 수록되어 있는 두 기록을 인용한다.

1) 시조님 신도비명에는 선계先系와 생졸은 세월이 오래되어 알 수가 없으며 『고려사』와 가승에도 다만 이와 같은 기록이 있을 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시조님께서 19세 되시던 해에 중국 갈로羯虜가 국경을 침범해 왔다. 당시 갈로의 군사력이 막강하여 관군이 막아내지 못해 위기에 봉착했을 때 분연히 의병을 일으켜 이를 격퇴 평정하시니 의종(재위 1146-1170) 임금께서 연산부사에 임명하시고 명문거족과 결혼토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 시조님의 탄생 연대

-고려 의종왕의 즉위년을 기준하여 시조님께서 19년 전에 먼저 탄생하신 것으로 추정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게 본다면 시조님께서 탄생하신지가 지금으로부터 892년 전이 되고 900년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연주현씨의 역사를 약 '900년'으로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제6부

오늘의 연주현씨延州玄氏는 한국성씨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 하는가

△ 정부의 인구조사 통계(통계청)　　조사주기 : 15년 단위

구분	2000.11.1	2015.11.1	증감	비고
전국인구수	4,599만명	4,970만명	371만명	8%증가
전국 성씨	259개성	5,582개성	5,323개성 (귀화인급등)	약18배증가
전국현씨인구	81,807명	88,824명	7,017명	8% 증가

1. 통계분석

(1) 전국 인구: 전국 현씨 인구

전국인구는 4,970만 명이며 전국의 현씨玄氏 인구는 88,824명으로서 전국 인구의 약 0.2%를 점하고 있다.

(2) 전국 성씨 姓氏: 전국 현씨 순위

58위를 찾이 하는 귀성貴姓에 해당 된다고 본다

(3) 각 성씨의 분류 기준은 각 성씨별 인구수에 따라

①대성大姓 ②저성著姓 ③귀성貴姓 ④벽성僻姓 ⑤진성珍姓 ⑥복성復姓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 우리 현씨玄氏는 세번째 분류기준인 귀성貴姓에 해당된다.

2. 선조들의 위대한 공훈

우리 연주 현씨는 비록 숫자상으로는 대성大姓이 되지 못하지만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고귀한 성씨로 평가 받고 있다. 역사상 민족과 국가 사회에 큰 공훈을 세워 숭앙받는 인물이 고려와 조선시대에 많았음은 물론, 근 현대에 걸쳐서도 그 업적이 각 분야에서 크게 현양되고 있다. 이는 연주 현씨의 후예로서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현씨玄氏 발원의 특징

△우리 나라의 주요 토착 성씨들의 발원 기록을 살펴보면 대략 삼국시대에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라 시조始祖인 혁거세赫居世는 양산陽山 기슭 나정蘿井 옆에 있는 숲 속에서 표주박 같은 커다란 알에서 탄생했다 하여 박朴씨를 성姓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포란태생설抱卵胎生說)

· 경주 김金씨의 시조인 김알지金閼智는 월성月城 서쪽 시림始林 숲 속에서 금궤金櫃로부터 나왔으므로 김金씨라 하였으며 (금궤 상자속 동자 태생설)

· 가야국 시조인 수로首露도 금관국金官國 북쪽 귀지봉龜旨峰에 떨어진 6개의 황금알에서 나왔다 하여 김金씨로 하였다. (금란태생설金卵胎生說)

· 그 밖에 제주 탐라국의 삼성혈三姓穴 등의 신화를 들수 있다.

△ 현씨玄氏 발원은 문헌에 의해 고증된다

– 현도국의 패망시기는 서기전 1046년에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치기에 앞서 당시 산서성 상당 호관 지역에 있던 은나라 제후국인 여국黎國을 정벌함으로서 패망했다는 사실을 선진 문헌인 『죽서기년』 『서경』과 『노사』 등의 문헌기록이 이를 고증하고 있다.

– 따라서 현씨玄氏의 출현시기는 주나라가 건국한 이후로 보며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거기서 뿌리를 다시 추적하면 대략 4700년전 상고시대에 현씨玄氏의 원류인 현도씨 치우천왕에 이르게 됨으로서 뿌리가 아주 깊은 씨족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1〉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요 토착 성씨들은 성씨 발원의 근거가 문헌 기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신성함을 통한 신비성을 드러내려는 뜻에서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문헌에 의해 고증된 현씨의 발원시기를 대략 3,000년 전으로 보고 국내 주요 토착성씨들의 발원시기를 삼국시대 전후로 볼때 우리현씨의 발원시기가 대략 1,000년 정도 앞서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 록

제 1 | 성씨姓氏의 유래由來 · 족보族譜 · 본관本貫

1. 성씨姓氏의 유래由來
2. 족보族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3. 본관本貫이란 무엇인가

제 2 | 연주 현씨延州玄氏의 연원淵源

1. 연주 현씨의 본관本貫
2. 연주 현씨의 분관分貫
3. 본관을 통합한 『대동보大同譜』의 편찬
4. 연주 현씨의 분파分派 현황
5. 연주 현씨의 항렬行列

제 3 | 성주 현씨星州玄氏의 분관分貫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 성주 현씨의 분관 경위
2. 성주 현씨의 시조始祖는 9세조 현규玄珪이시다
3. 선조님들과 연고가 깊었던 성주星州
4. 잘못된 호적의 본관本貫은 바로 잡아야 한다

제 4 |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과 현씨玄氏의 동래선계東來先系 연구

제 5 | 연주 현씨延州玄氏 일원분파도一源分派圖

제 1
성씨姓氏의 유래由來·족보族譜·본관本貫

1. 성씨姓氏의 유래由來

△ 성씨의 발생 근원은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대략 삼국三國시대의 왕족王族에서부터 성씨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고대의 씨족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집단을 통솔하는 지배자가 나타났는데 다른 씨족과 구별하기 위한 호칭呼稱이 성姓으로 나타나고 점차적으로 지방 세력이 중앙 귀족화 되면서 성姓은 다수의 부족部族을 통솔하기 위한 호칭으로서 더욱 그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 따라서 성姓은 초기에 왕실이나 귀족에게 국한 되어 사용하다가 국가에 공이 큰 공신功臣들이나 귀화인들에게 세거지역世居地域이나 강江, 산山의 명칭을 따라 사성賜姓을 하면서 확대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 그러나 일반 서민들의 성씨姓氏 사용은 과거제도가 발달되는 고려 문종(1047년) 이후로부터 보편화 되었으며 상민과 노비를 포함하여 모두가 성姓을 갖게 된 것은 조선말기 개혁정치가 시작되면서 부터로 보아야 한다.

성姓의 개념槪念

- 성姓은 부계혈통父系血統을 표시하고 명名은 개인의 이름을 가리킨다.
- 그 결과 성姓은 그 사람의 혈연관계를 분류 해주는 기준이 되며 이름은 그 성姓과 결합하여 사회성원社會成員으로서의 개인을 남과 구별하는 구실을 하게 되었다.
- 따라서 이름 하나 만으로는 독립적인 인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성姓을 보조하는 기능을 갖는다.

* 참조:

(1)『한국인의 성보姓譜』:15면 (감수; 한글학자 한갑수 박사韓甲洙博士)

(2)『족보사전』(최종인 저):11~13면

〈참고〉 성씨姓氏의 득성과정得姓過程

1) 삼국시대

△ 고구려 시조始祖인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하고 고高씨를 자기 성姓으로 하였으며 건국공신建國功臣인 재사再思에게 극克씨를, 무골武骨에게는 중

실仲室씨를, 묵거默居에게는 산실山室씨를 사성賜姓한 기록이 있다.

△ 백제 시조始祖인 온조溫祚가 부여계통에서 나왔다 하여 부여씨夫餘氏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 신라 시조始祖인 혁거세赫居世는 양산楊山 기슭 나정蘿井옆에 있는 숲속에서 표주박 같은 커다란 알에서 탄생했다 하여 박朴씨를 성姓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 신라 김金씨의 시조인 김알지金閼智는 월성月城 서쪽 시림始林 숲속에서 금궤金櫃로부터 나왔으므로 김金씨라 하였으며

△ 가야국 시조인 수로首露도 금관국金官國 북쪽 귀지봉龜旨峰에 떨어진 6개의 황금알에서 나왔다 하여 김金씨로 하였다.

△ 제주도에 삼성혈三姓穴이 있으며 이곳에서 고씨, 부씨, 양씨의 시조가 출현하여 탐라국을 세웠다는 신화가 있다.

2) 고려시대

△ 고려 왕건王建은 고려 개국공신인 홍술洪述에게 홍洪씨를, 백옥白玉에게 배裵씨를, 삼능三能에게 신申씨를, 복사귀卜沙貴에게 복卜씨를 하사했고,

때로는 자신의 성인 왕씨王氏를 사성賜姓한 기록도 있다.

△ 한국인의 성씨제도姓氏制度 를 살펴보면 예로부터 성을 쓰지않는 풍습이 고려초기까지 이어져 왔다. 11대 문종왕(1046-1083)에 이르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을 쓰지 않으면 과거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세력인 호족들을 중앙관료기구로 흡수하는 방안의 하나로 군현郡縣 단위로 성씨의 본관제本貫制를 시행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3) 조선조시대

△ 임진왜란 때 군인을 징발하기 위해 병역 의무제도가 시행되면서 천민들도 성姓을 갖게 되었고

△ 특히 갑오경장甲午更張을 계기로 종래 신분 계급의 타파를 가져왔으며 1909년 2월에 민적법民籍法이 공포 되면서 모든 국민이 성과 본관을 호적에 등록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 참조: (1)『한국인의 성보姓譜』: 15~18면
(2)『족보사전』: 12~14면

2. 족보族譜의 유래由來

△ 고려시대

- 우리나라의 족보제도族譜制度는 고려왕조가 왕실의 계통系統을 기록하는데서 비롯되었으며 고려 정종定宗 때 『왕대실록王代實錄』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 한국인의 성씨제도를 살펴보면 예로부터 성을 쓰지 않는 풍습이 고려초기까지 이어져왔다. 11대 문종왕(1046-1083)에 이르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성을 쓰지 않으면 과거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 세력인 호족들을 중앙관료기구로 흡수하는 방안의 하나로 군현郡縣 단위로 성씨의 본관제本貫制를 시행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 조선시대

- 15세기 중엽 이후 조선조 성종成宗 때 족보가 한층 체계화되면서 각 씨족단위로 족보편찬이 일반화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고〉『대동보大同譜』와 『파보派譜』

1) 『대동보大同譜』: 시조이하 동계 혈통의 원류源流와 그 자손 전체의 분파 관계를 수록한 계통 기록이며

2) 『파보』: 각 분파의 자손만을 기록한 것이 『파보』이다,

3. 족보族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 혈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여러 씨족氏族은 어느 누구나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한 각기의 성씨姓氏를 갖고 있으며 각 성씨별로 씨족의 역사를 갖고

서로 융화하며 발전해 왔다. 따라서 족보는 한 씨족의 역사이며 혈통을 실증하는 귀중한 문헌이다.

△ 족보는 한 씨족의 정체성正體性을 확인해 줌으로서 선조를 존중하고 자신의 근본을 소중히 여기게 만든다. 조상들의 고매한 인품과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덕을 본받아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면서 문중門中을 중심으로 종인의식宗人意識을 함양하여 가문에 대한 강한 긍지를 느끼면서 종친간의 화목과 유대를 더 돈독히 다지는데 족보의 현대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4. 본관本貫이란 무엇인가

△ 본관本貫이란 본本, 관향貫鄕 또는 관貫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관貫은 돈을 말하는 것으로 돈을 한 줄에 꿰어 묶어 갖고 다니는 것과 같이 친족親族이란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 본적本籍 (本貫鄕籍) 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씨姓氏가 점차 확대 되면서부터 같은 성씨姓氏라 하더라도 혈통血統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근본根本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각 씨족氏族들은 그들만의 본관本貫을 따로 정하여 성姓에 붙여 사용하였다. 이는 혈통의 계승繼承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본관本貫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고려와 조선조시대에 걸쳐 본관은 일반적으로 시조始祖나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出身地 또는 정착定着한 세거지世居地를 근거로 호칭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 예외적으로 왕이 내린 봉군封君 (고려 때 종 1품, 조선조 때 2품 이상의 공로자에게 주던 작위.) 작위의 칭호稱號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있다.

– 왕이 공신과 귀화인에게 성씨姓氏와 함께 본관本貫을 하사下賜하는 경우를 사관賜官이라 하였다.

* 참조: (1)『한국인의 성보姓譜』: 18~19면
(2)『족보사전』: 14면
(3)『두산백과사전』: 「고려의 사성제도」

△ 분관分貫의 의미

분관分貫이라 함은 이미 정해진 시조님의 본관本貫에 따르지 않고 그 후손들이 관직 임지官職任地에 따라 새로운 중시조中始祖가 되어 본관本貫을 따

로 정하여 쓰는 것을 분관分貫이라고 한다.

〈참고〉

1) 고려시대를 한국 씨족사氏族史에 있어 중요한 시기로 보는 것은, 오늘의 대부분의 성씨姓氏와 본관本貫이 그 때에 이루어졌으며 신라시대의 왕족이나 귀족 등 소수지배층들이 신분의 고귀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던 성씨가 고려시대에 와서는 일반 백성들까지도 성姓과 본관本貫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2) 고려는 건국 초기 성姓의 보급을 위해 군현郡縣 단위單位로 본관제本貫制를 시행하였는데 각 씨족들이 처음으로 성姓을 사용하게 되는 과정은 ① 매우 일찍부터 사용되어 그 유래를 알지 못하는 성씨 ② 본관의 시조로 추정되는 사람이 스스로 성을 지어 자칭한 성씨 ③ 예외적으로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성씨 등이었으며 그 시행 단계도 개국공신 등 창업에 협력한 중앙세력에게 먼저 사성賜姓을 했고 이어 중앙과 연결된 지방 호족들이 그들 나름대로 창성創姓을 한 후 일반 백성의 순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3) 본관이 처음에는 각 씨족들의 신분을 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후대에 내려오면서 성姓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신분 질서의 유지와 징세조역徵稅調役의 필요에 의해 일반 백성에게 까지도 호적에 본관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제 2
연주 현씨延州玄氏의 연원淵源

1. 연주 현씨의 본관本貫

· 연주 현씨는 시조始祖 담윤공覃胤公의 고향인 연주延州를 본관本貫으로 삼는다. 본관本貫을 연주延州로 한 연유는 시조始祖 할아버님의 본 고향이 평안도 연주延州일 뿐 아니라 고려 때 나라에 크게 공헌하심으로서 일찍이 연산부사延山府使에 제수除授 되시었고 이어 대장군大將軍, 문하사랑 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오르신 후 다시 왕으로부터 연산군延山君에 봉封해 지셨다. 선조들께서는 시조始祖님의 그 봉군封君 지명地名에 따라 우리의 본관本貫을 연주延州로 쓰게 된 것이니 이는 고려시대에 있어서 우리 씨족의 큰 영예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고려시대의 봉군封君 제도

· 왕이 종 1품 이상의 공신들이 관직을 물러났을 때 나라에 바친 공훈에 대

하여 포상하는 뜻에서 봉직했던 연고지의 이름을 붙여 봉군 작위를 주던 제도이다.

· 왕은 봉군작위를 받은 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일정한 은급지恩給地를 주고 그 후손들을 보호하기도 했다.

· 고려시대에 봉군 작위를 받은 성씨姓氏는 영예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선조들의 봉군封君 지명地名에 따라 성씨姓氏의 본관本貫으로 삼기도 했다.

2. 연주 현씨의 분관分貫

– 1차『대동보』(정묘보丁卯譜)의 서문序文과 문답問答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3개 분관分貫이 있었다.

1) 성주 현씨星州玄氏는 시조始祖의 장남이신 휘諱 덕德자 수秀자 병부상서兵部尙書,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을 중시조中始祖로 하고

2) 창원 현씨昌原玄氏는 시조始祖의 삼남이신 휘諱 덕德자 유裕자 태사공太司空 회원군檜原君을 中始祖로 하였으며

3) 순천 현씨順天玄氏는 2세조 휘諱 덕德자 수秀자의 둘째 아드님이신 3세조 휘諱 원元자 고恭자 영동정令同正 순천군順天君을 중시조中始祖로 한 때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참고〉

1) 연산延山과 연주延州는 지금의 북한 평안북도 영변寧邊의 옛 지명이다.

2) 성주 현씨星州玄氏의 분관分貫 경위에 대하여는 어느 선조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부록 3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3. 본관本貫을 통합統合한 『대동보大同譜』의 편찬

- 우리 연주 현씨延州玄氏 선조들께서는 시조始祖 할아버님의 자손들이 저마다 본관本貫을 달리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종친간의 친목과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1747년 (조선조 영조23년 정묘)에 제1차 『대동보』를 편찬하면서 모든 분관을 폐기하고 본관本貫을 시조始祖 할아버님의 고향인 "연주 현씨"로 환원 통합시켜 단일본을 이루게 하였다.

- 우리 선조先祖들께서 1747년에 분관을 폐기하고 본관本貫을 모두 연주 현씨로 환원 통합시켜 단일본을 이룬 후 지금까지 『대동보』는 8차에 걸쳐 편찬되었다.
- 우리의 『대동보』 편찬사를 되돌아보면 고려로부터 조선조 중엽까지 약

600여년 동안 가승家乘의 형태로 그 계보를 유지해 오다가 1747년에 비로소 선조님들의 사적事蹟과 자손들의 가승家乘을 모아 뜻 깊은 첫 『대동보』를 펴냈다.

· 단일 『대동보』의 편찬 현황

△ 1수보 『정묘보丁卯譜』 / 조선 영조英祖 23년(1747년)
△ 2수보 『기미보己未譜』 / 조선 정조正祖 23년(1799년)
△ 3수보 『갑진보甲辰譜』 / 조선 헌종憲宗 10년(1844년)
△ 4수보 『신축보辛丑譜』 / 조선 고종高宗(1901년)
△ 5수보 『갑자보甲子譜』 / 갑자년甲子年(1924년)
△ 6수보 『정유보丁酉譜』 / 정유년丁酉年(1957년)
△ 7수보 『임술보壬戌譜』 / 임술년壬戌年(1982년)
△ 8수보 『경진보庚辰譜』 / 경진년庚辰年(2000년)
△ 9수보 『전자족보』 / 정유년丁酉年(2017년)

〈참고〉

· 『대동보』의 편찬 주기는 약 20년~30년 단위로 편찬되었다.

4. 연주 현씨延州玄氏의 분파分派 현황

– 2000년에 편찬한 『경진8수보庚辰八修譜』의 일원분파도一源分派圖에

의하면 우리 연주 현씨 후손들은 10세조世祖를 기준 파조派祖로 하여 모두 36개 파로 크게 번성하여 국내외에 널리 분포되어 살고 있다.

연주 현씨의 족보 편찬은 시조始祖님께서 고려 때 이 땅에 터전을 잡으신 이후 어언 900년에 이르는 동안 8차례나 거듭해 왔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덕행과 공훈을 기록하면서 연주 현씨의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

5. 연주 현씨延州玄氏의 항렬行列

-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이름에 돌림자를 갖고 있다.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아버지의 형제나 할아버지의 형제는 그분들대로 이름 자字 속에 돌림자字를 갖고 있으며 세계상世系上 같은 세대世代에 속하면 4촌이든 6촌이든 8촌이든 그 사람의 성명을 보면 그가 그 씨족의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 이렇게 혈족의 계통系統에 대한 대수代數를 나타내는 돌림자가 곧 항렬行列인 것이다.

- 이와 같이 항렬行列은 같은 혈족사이에 세계世系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

하여 각 문중이 마련한 하나의 규율이라고 보면 된다.

· 앞으로 태어나는 자손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래 항렬 예정표를 지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연주 현씨 『대동보』상의 항렬 예정표行列豫定表는 아래와 같다.

25세世	26세世	27세世	28세世	29세世	30세世	31세世	32세世
○기基	종鍾○	○섭涉	병柄○	○환煥	재在○	○용鎔	영泳○
○주周	석錫○	○순淳	상相○	○열烈	규圭○	○선善	해海○

33세世	34세世	35세世	36세世	37세世	38세世	39세世	40세世
○식植	용容○	○배培	진鎭○	○구求	영榮○	○휘輝	준埈○
○근根	희熙○	○기起	일鎰○	○태泰	주柱○	○섭燮	광珖○

제 3
성주 현씨星州玄氏의 분관分貫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 성주 현씨星州玄氏의 분관分貫 경위

△ 분관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부록〉 제 2「연주 현씨延州玄氏의 본관本貫과 분관分貫」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세조世祖 덕수공께서 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지금의 성주)에 봉군되심에 따라 그 후손들이 성주 현씨星州玄氏로 분관 되었다고 족보는 기록하고 있으나 어떤 시기 어느 선조님 때 분관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밝혀진 기록이 없다.

△ 연주 현씨延州玄氏 1차『대동보』(1747년)의 서문과 당시 선조님들이 본관本貫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를 놓고 문답을 했던「정묘보문답丁卯譜問答」기록을 보면 3개 분관 (성주, 창원, 순천) 통합의 당위성이 집중 논의되었다.

△ 그때 명직命直 선조께서는 당대의 명현이셨던 도암陶庵 · 구암久庵 · 남당南塘 세분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질문한 요지 중에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조『8수보』126-131편)

"명직命直의 집안은 씨관氏貫을 성주나 팔거八莒 (지명임) 로 써 왔으나 원래는 연주延州 사람입니다. 씨족의 원류와 족보를 살펴보면 장군공 (시조始祖) 이하 여러 대로부터 연주 현씨로 써 왔는데 명직命直의 11세조 이하로부터 별다르게 성주 현씨星州 玄氏로 써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처음에 본관本貫을 연주로 써 왔던 증거라고 생각되는데 잘 살펴보신 후에 소상히 가르쳐 주소서"

이런 기록은 성주 현씨의 분관시기는 고려시대가 아닌 조선조시대에 들어와서 그 후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성주 현씨星州玄氏의 시조始祖는 9세조世祖 현규玄珪이시다

△ 성주 현씨의 시조始祖는 조선조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시고 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와 고부군수古阜郡守를 역임하신 대종손大宗孫인 9세조世祖 현규玄珪이시다.

△ 이는 아래 6편의 보록譜錄 관련 문헌에 의해 고증되고 있다.

1) 『한국인의 족보』(한국인의 족보 편찬위원회편:1991년) 2,231-2,232면

에 보면 성주 현씨星州玄氏의 시조始祖 현규玄珪는 조선 세종 때 군자감사, 고부군수 등을 지냈으며 그는 연주 현씨延州玄氏 시조 현담윤玄覃胤의 큰 아들로 고려에서 병부상서를 지내고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에 봉해진 현덕수玄德秀의 8세손으로서 그의 후손들이 성주에 오래 살면서 분적分籍하여 본관本貫을 성주로 하였다는 세계표世系表가 수록되어 있다. (참고1: 참조)

2) 『한국인의 성보姓譜』(하국성보 편찬위원회편, 1986) 297-300면에 보면 성주 현씨의 시조 규珪는 고려대장군 담윤覃胤 (연주 현씨 시조)의 후손으로 조선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를 거쳐 고부군수古阜郡守를 지냈으며 그 후손들은 그를 시조로 하고 연주 현씨에서 분적分籍하여 본관本貫을 성주로 삼았다고 수록되어 있다.

3) 『빛나는 우리 조상 -뿌리와 얼-』(도서총판 한보:1989년) 106-109면에서도 성주 현씨의 시조는 9세조인 현규玄珪라고 수록되어 있다.

4) 『족보사전』(도서출판, 보청譜廳: 2006년) 189면에서도 성주 현씨 시조는 현규玄珪이며 연주 현씨에서 분관分貫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5) 『한국성씨대관』(한보출판사: 1989년) 848면에서도 성주 현씨 시조는 현규玄珪이며 연주 현씨에서 분관分貫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6) 연주 현씨 『8차대동보』(2000년)의 부록인 「편람」258면 성씨본관별 시조일람표姓氏本貫別始祖一覽表에서도 성주 현씨의 시조는 7세조 판서공의 손자가 되시는 9세조 현규玄珪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따라서 성주 현씨星州玄氏의 분관分貫 경위는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대동보』(정묘보)의 문답 기록과 여섯 편의 보록 관련 문헌에서 명백히 밝혀진 바와 같이, 성주 현씨의 분관은 2세조 덕수공이 중시조中始祖가 되시어 그 후손인 각파 모두가 성주 현씨로 분관分貫 된 것이 아니라

△ 2세조 덕수공의 장파손長派孫으로서 조선 세종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시고 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와 고부군수古阜郡守,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이조정랑吏曹正郎의 주요관직을 역임하시고 작고하신 후에도 세종대왕으로부터 참의叅議의 벼슬을 추서 받으시었던 9세조 휘諱 규珪공의 직계 후손(청송목사공파, 예천현령공파, 천안판관공파, 성주진사공파)들만이 연주 현씨延州玄氏에서 성주 현씨星州玄氏로 분관分貫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 1747년(영조 23년) 1차 『대동보』가 편찬됨을 계기로 모든 분관分貫이 폐기됨으로써 성주 현씨星州玄氏는 족보상에서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 후손들의 호적상의 본관本貫으로 유지되고 있음은 선조들께서 단일 본으로 통합시킨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많은 후손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도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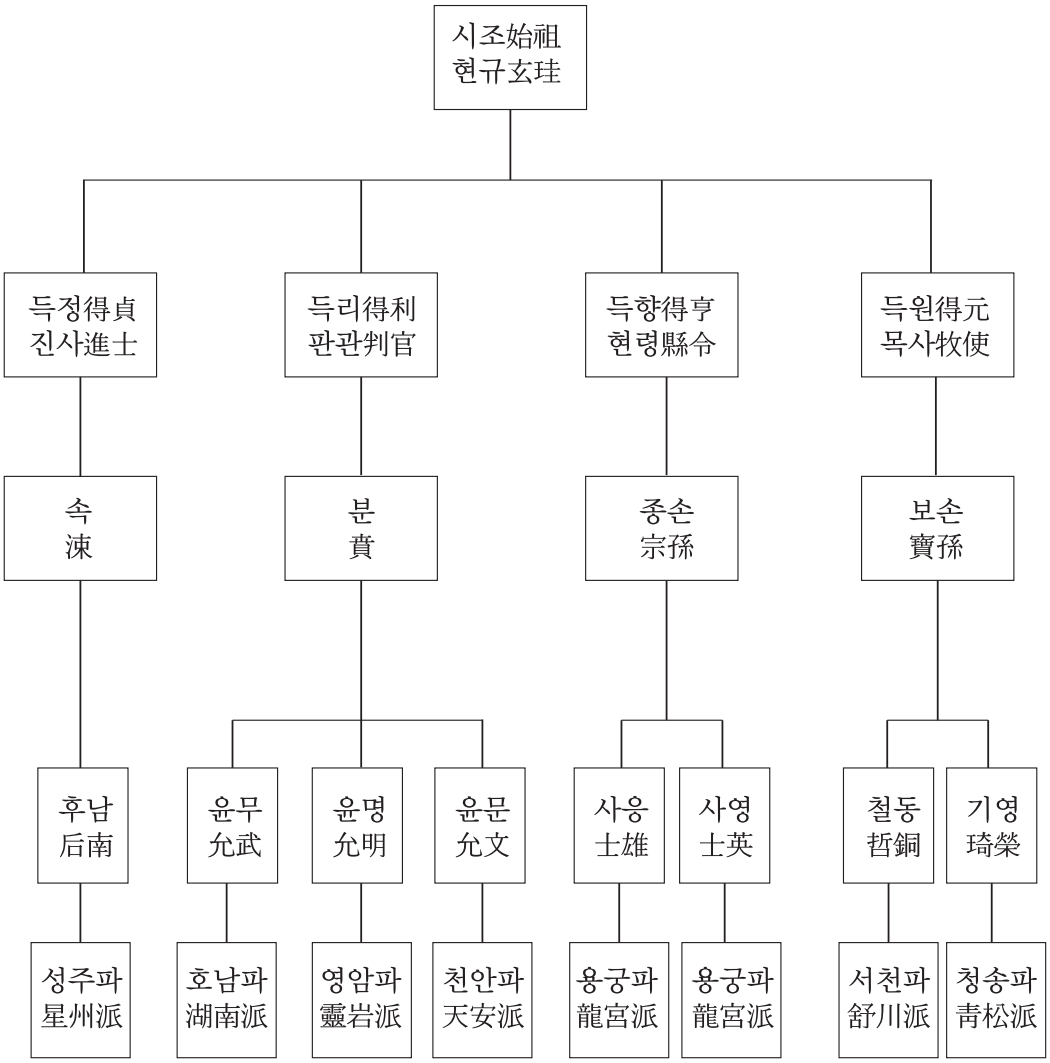
3. 선조님들과 연고가 깊었던 성주星州

△ 성산星山은 2세조 덕수공께서 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에 봉封해 지셨던 곳으로서 오늘의 성주이다. 이와 같은 연고로 연주 현씨의 대종손인 9세조 현규玄珪가 성주 현씨星州玄氏로 분관分貫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 연주 현씨延州玄氏의 대 종손이신 7세조 판서공 옥양玉亮께서는 고려 말 혼란기에 벼슬을 버리고 예천으로 낙향하실 때도 성주를 거쳐 예천에 정착하신 것을 보아도 2세조 덕수공께서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에 봉해졌던 곳이기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셨던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조선 세종 때 성주 현씨星州玄氏로 분관分貫한 9세조 현규玄珪의 장남이 되시는 10세조 득원得元공이 조선 단종 때 성주목사를 역임하신 곳이기도 하다.

성주현씨星州玄氏 세계표世系表



참고:『한국인의 족보』에 수록된「성주현씨 세계표星州玄氏世系表」

4. 잘못된 호적의 본관本貫은 바로 잡아야 한다

△ 다른 본관本貫을 쓰고 있는 현황

– 선조들께서 한때 분관分貫 되었던 본관本貫을 모두 시조始祖 할아버님의 고향이신 “연주 현씨延州玄氏”로 통합시켜 1차 『대봉보大同譜』를 편찬하신 지가 이미 270년이 지났으며 2000년에 8차『대동보』(경진보)가 새로 편찬 되었다.

– 그런데 통계청이 2000년에 실시한 전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연주현씨의 후손들이 약 50개의 다른 본관本貫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다른 본관本貫을 쓰고 있는 유래

– 전국의 현씨玄氏는 모두 연주 현씨의 시조始祖이신 문하시랑 평장사공 할아버님의 후손들인데도 관직 임지에 따라 다른 본관本貫을 쓰게 된 경우와

– 특히 일제 강점기에 호적을 새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족보의 본관을 잘 모르는 종친들이, 살고 있는 지방명地方名을 본관으로 등재하게 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 후손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 한 씨족이 그들의 족보에서 본관本貫을 정하는 일은 오로지 그 씨족의

내부적인 규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호적은 모든 사회생활에 기본이 되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기록으로서 일단 호적에 등재된 본관을 비롯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의 기록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기관에 의하여 영구히 공증력公證力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호적법은 당연히 족보에 우선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한 씨족의 본관本貫은 한 뿌리임을 증명하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족보의 본관과 호적의 본관은 일치 되어야 한다.

– 이미 270년 전에 폐기된 분관分貫을 호적의 본관本貫으로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는데도, 본관 변경 절차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해서, 이를 다시 다음 세대로 넘긴다면 잘못된 호적의 본관은 영구히 바로 잡을 수 없으며 더 많은 후손들에게 정체성의 혼란만을 가중시켜주게 될 것이므로 오늘의 우리 세대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호적의 본관本貫을 변경하는 절차

– 호적戶籍의 본관本貫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현행 호적법 제 120조의 규정에 때라 법원에 호적 정정訂正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신청절차는 호주가 본적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지원에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등본, 본관을 통합한 족보 사본(대종회 사실증명) 등, 본관변경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갖추어 개별적으로 “호적정정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

– 신청절차도 이해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는 일반 소송이 아닌 비송사건非訟事件이므로 단독판사에 의해 간편하게 이루어지며 비용 또한 크게 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지속적인 홍보

– 잘못된 호적상의 본관本貫을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는 종친들의 개별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대종회의 주도하에 전 문중의 당면한 주요 현안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대종회大宗會가 모든 종친들에게 잘못된 호적의 본관本貫을 바로 잡아 우리 씨족의 정체성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가칭 ‘호적본관변경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정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여 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50여개의 이본異本을 쓰고 있는 각 문중과 지역 종친회가 긴밀히 협의하여 잘못된 호적의 본관 변경의 종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호적법의 개정요지

△ 2008. 1. 1부로 종래의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주요 호적 관계 용어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 아 래 –

◦ 본　　적 → 등록 기준지
◦ 본　　관 → 본本
◦ 호　　주 → 폐지됨
◦ 호적등본 → 4가지로 분류됨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 호적초본 → 기본 증명서

제 4
기자 동래설箕子東來說과 현씨玄氏의 동래선계東來先系 연구

〈 문제 제기 〉

『갑자오수보』는 「보유편」에서 우리 연주 현씨延州玄氏의 동래선계에 대해서 '기자의 동래설'과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중국 『만성통보萬姓統譜』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주 현탁일: 무왕극상 봉기자우조선 이좌빈객래 周 玄鐸一 :武王克商 封箕子于朝鮮 以左賓客來

△ 연주 현씨 『갑자오수보甲子五修譜』에 수록된 중국 『만성통보萬姓統譜』에 의하면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정복하고 기자를 조선에 봉할 때 현탁일玄鐸一이 그의 좌빈객左賓客으로 왔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 이 기록에 근거하여 연주 현씨 『갑자오수보』는 현탁일玄鐸一을 한반도로 온 현씨玄氏의 동래선계東來先系로 추정하고 있다.

△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학계가 기자 동래설의 부정론을 '정설定說'로 정립하였다면 기자 동래설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성통보萬姓統譜』의 기록은 고증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새로운 연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았다.

〈참고〉

『갑자오수보』의 「보유편補遺篇」에 수록된 "견만성보見萬姓譜" 즉 "『만성통보萬姓統譜』에 나와 있다"라는 표기는 주나라 현탁일을 현씨의 동래선계로 밝히는데 있어서 중국의 『만성통보萬姓統譜』를 출전으로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 현씨玄氏의 발원 근거와 각 시대별로 주요활동을 기록한 내용임이 확인되었으며 현탁일 관련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 추진 방향〉

△ 한국 고대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자조선의 실체를 밝히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역사서가 각 시대별로 기자조선의 실체에 대해 어떤 인식의 변천이 있어 왔는지를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연구 활동의 보강을 위해서 현재 학계에서 활동 중인 우리 후손들의 참여를 권유키로 했으나 역사학회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후손들은 없음이 확인 되었다.

– 원류사 연구위원회가 기자 조선을 검토하는 이유는 우리 씨족의 원류의 역사를 찾아 그 정체성을 밝히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는 학문적 연구에 중점을 두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며 또한 중국 동북공정의 정치논리에도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데 중점을 두었다.

△ 따라서 원류사 연구위원회는 학자의 참여 없이 현 연구위원 중심으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연구 방법으로 기자조선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단계:

△ 국사편찬위원회 문헌실 등을 통해 학술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기자조선'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를 선행한다.

– 중국의 문헌에서 '기자의 동래설'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 우리나라의 역사서는 '기자의 동래 설'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고려, 조선조시대, 한말까지)

– 근대 이후의 기자조선 연구 (일제강점기–광복이후)

– 최근의 연구 활동과 학계의 과제

△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민족주의 사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기자 동래설의 부정론이 광복이후에 어떤 연구결과를 거두었으며

△ 오늘의 사학계가 그 연구 성과에 대해 정설로 정립한 학설이 있는가의 여부를 파악하여

△ 현씨玄氏의 동래선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만성통보萬姓統譜』의 관련 사료가 고증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연구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2 단계:

△ 중국『만성통보萬姓統譜』에 수록된 현씨玄氏 관련 기록 확인

△ 원류사연구위원회는 기자조선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결과를 학계에 감수를 요청하는 한편 선조들께서『갑자오수보』의「보유편」에 수록한 "주나라 현탁일(周 玄鐸一)"의 관련 기록이 어떤 중국『만성통보萬姓統譜』상에 그 문헌적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 1 단계 연구

기자箕子의 실체와 동래설東來說

1. '기자 동래설'은 어떻게 형성 되었는가.
2. 우리 나라의 역사서는 기자조선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1)고려시대 이전 2)고려시대 3)조선시대 · 한말까지
3. 근대 이후 기자조선 연구
   1) 일제 강점기 2) 광복이후 3)북한 학계
   4) 한국의 역사 교과서 개편 5) 기자 조선에 대한 새로운 견해
4. 최근의 연구 활동
5. 앞으로의 과제
6. 연구 결과 요약

1. 기자 동래설箕子東來說은 어떻게 형성 되었는가

1) 기자의 동래설은 중국 문헌에서 비롯되었다

기자가 조선에 와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대표적인 『사서史書』는 복생伏生의 『상서대전尙書大傳』과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와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등 인데 사서史書마다 그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상서대전尙書大傳』에 따르면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정복시키고 감옥에 갇힌 기자를 석방하자 그는 주나라의 지배를 거부하고 조선으로 망명하였다. 무왕이 이 소식을 듣고 조선왕으로 봉하였다. 주나라의 책봉을 받은 기자는 부득이 신하의 예를 차려야 하였으므로 무왕을 찾았는데 무왕은 그에게 홍범구주洪範九疇에 대하여 물었다고 한다. (『상서대전尙書大傳』권4, 「주서 홍범周書洪範」)

△『사기史記』「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에는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정복한 뒤 기자를 방문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도를 묻자 홍범구주洪範九疇를 지어 바쳤다. 이에 무왕武王이 그를 조선왕으로 봉해 주었으나 기자는 신하의 예를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 (『사기史記』권38,「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

△『한서漢書』의 「지리지地理志」 연조燕條에는 “상나라가 쇠퇴해 지자 기자가 조선에 가서 백성에게 예의와 농사 · 양잠 · 베 짜기 기술을 가르쳤

고 범금犯禁 8조條가 행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서漢書』권 28 하, 「지리지地理志」제 8)

△『위략魏略』에서는 위만衛滿에게 왕위를 빼앗긴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準王을 기자의 후예로 기술하였으며 『삼국지三國志』는 이를 인용하였다. (『삼국지三國志』권30,『위서魏書』「동이전 한전東夷傳韓傳」에서 인용한 『위략魏略』)

2) 기자에 대한 주요 기록을 다시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선진문헌先秦文獻

△ 서기전 3세기 이전에 쓰여 졌다는 『상서尙書』·『논어論語』·『죽서기년竹書紀年』 등의 선진문헌先秦文獻에 나타난 기자는 BC 1000년 전후에 실존했던 인물로서 상나라의 마지막 충신이자 성현으로만 묘사되고 조선과의 관련은 기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국시대까지는 기자가 조선으로 왔다는 기록은 중국에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 한漢나라 이후의 문헌

'기자 동래설箕子東來說'이 등장하는 최초의 문헌은 서한시대西漢時代에 편찬된 『상서대전尙書大傳』이며 같은 시대에 편찬된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의 경우에도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에는 기자의 '조선 동래설'이 기

록되어 있지만 「조선열전朝鮮列傳」에는 기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기자의 동래설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그 내용이 한층 많이 나타난다.

『한서漢書』에서는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범금犯禁 8조條를 제정했다고 기록했고 『삼국지三國志』는 『위략魏略』을 인용하여 조선 후대의 왕들을 기자의 후예後裔로 기록했다.

△ 이후 중국문헌에서는 조선과 관련된 기록에는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던 지역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중국인들에게 조선은 기자의 나라라는 인식을 오랜동안 심어 주었으며 특히 수隋나라 때는 요동遼東은 기자가 봉해졌던 땅이기 때문에 수복되어야 한다는 고구려 침범의 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수서隋書』권 67,「열전列傳」제 32)

(조원진:「기자조선연구의 성과와 과제」,『단군학연구』제 20호, 2009. 5)

※ 이러한 중국문헌에 나타난 기자 동래설箕子東來說은 이후 한국의 고대사 체계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 우리 나라의 역사서는 기자조선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 고려시대 이전·고려시대·조선시대·한말까지 –

1) 고려시대 이전

통일 신라까지 기자 관계 국내 기록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역사서가 없어 검토할 길이 없다. 다만 중국의 문헌인 『구당서舊唐書』에는 고구려에 가한可汗 · 기자를 섬기는 풍속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고구려에는 가한(단군으로 추정된다)과 더불어 기자를 섬기는 민속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구당서舊唐書』권 199,「동이열전」제 149에 "고구려의 풍속은 음사淫祀가 많고 영성신靈星神 · 일신日神 · 기한신可汗神 · 기자신箕子神을 섬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2) 고려시대 이후 : 고려시대~조선시대, 한말까지 약 1천년동안 기자의 동래설은 정설定說로 인식되어 왔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자 관련 기록은 중국문헌을 인용하거나 김부식金富軾의 사론史論을 통해 간략히 언급되었는데 이는 중국문헌의 기록대로 과거 기자가 조선을 통치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三國史記』권 제22 「고구려본기」제10, 보장왕 하

"사신史臣은 논 한다. 현도玄菟와 낙랑樂浪은 본시 조선의 땅으로 기자가 봉함을 받은 곳이다. 기자가 그 백성을 가르치기를 예의와 전잠田蠶과 직

작織作으로써 하고, 8조의 금禁을 베풀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권 제29,「연표年表」상

"해동에 국가가 있은 지는 오래되었다. 기자가 주周 왕실에서 책봉을 받음으로부터 한초漢初 위만衛滿이 칭왕稱王할 때까지 연대는 구원久遠하나 문헌이 소략疏略하여 상고詳考할 수는 없다".

『삼국사기三國史記』권 제32,「잡지雜志」제1 제사祭祀

『당서唐書』「고려전」에 이르기를, "고구려의 풍속에는 음사淫祀가 많고, 영성靈星과 태양신太陽神 및 기자箕子 가한可汗 등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삼국유사』

고려 말 사회 혼란기에 이은 몽고 간섭기를 맞아 민족문화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난 『삼국유사』에서도, 기자관계 기록은 중국 『사기』의 수봉受封 동래설東來說을 인용한 후 고조선조古朝鮮條에서 단군의 서술에 부속시키고 "단군이 1,500년 동안 조선을 통치하다가 기자가 조선에 봉해지자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겨갔다" 라고 적고 있다.

△『제왕운기帝王韻紀』

고려 후기 이승휴李承休가 저술한『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 우리나라 문헌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자조선'이라는 개념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상고사의 체계를 단군조선 · 기자조선 · 위만조선으로 구분하는 단계적 역사체계가 세워졌다.

△ 고려사

"고려 충숙왕忠肅王 7년에 예부禮部가 제의하기를 '우리나라가 예의로서 교화한 것은 기자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기자가 사전祀典에 실려 있지 않으니 그 분영墳塋을 구하여 사당祠堂을 세우고서 제사를 지내자'라고 함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 이 시기에 지금의 평양에 기자능이 만들어 진 것을 알게 한다.

– 충숙왕 12년에 평양부에 명령을 내려 기자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으며 공민왕恭愍王 5년에는 기자사당을 수리하고 시기에 맞추어 제사를 지내도록 평양부에 명령을 내렸는데, 같은 명령을 공민왕恭愍王 20년에도 내린바 있다.

※ 왕실에서는 기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자사箕子祠에 대한 제사가 잘 이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고려사』「지리지」 서경유수 조항에는 "평양부는 본래 세 조선의 옛 도읍으로서 당唐 요堯 무진년에 신인이 단목의 아래로 내려오니 국인國人들이 그를 받들어 국군國君으로 삼고 평양에 도읍하고 국호를 단군조선이라 하니 이것은 전 조선前朝鮮이요 주 무왕이 상왕국商王國을 멸망시키고 기자를 조선에 봉 하였는데 이것이 후 조선後朝鮮이며 그 후 41대 후손인 준準 때에

연인燕人 위만衛滿이 망명하여 와서 1천여 명의 무리를 모아 준왕을 공격하여 몰아내고 왕검성에 도읍하니 이것이 위만조선衛滿朝鮮이다"라고 하였다.

고려는 중국 문헌에 의한 기자의 동래설을 그대로 받아드렸고

상고사 체계가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삼조선三朝鮮 체계가 세워졌다.

〈※『고려사』「악지樂志」에는 기자를 흠모하는 기록들이 보인다.〉

고려는 중국 문헌에 의한 기자의 동래설을 그대로 받아드렸고
상고사 체계가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삼조선三朝鮮 체계가 세워졌다.

3) 조선시대 · 한말까지

△ 조선시대에 이르면 고려 말의 어지러워진 사회와 문화전반에 걸쳐 새로운 질서와 전통의 재정비가 요구되는 시기였다. 조선은 민족의 전통과 유교적 통치이념을 동시에 강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당시에 크게 영향을 끼친 정도전鄭道傳은 단군과 기자를 동시에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주자학이 성행함에 따른 모화사상慕華思想과 더불어 단군보다 기자 숭배가 날로 증진되었다.

△ 성종, 중종 때에는

– 중국사신의 기자묘 참배가 국가의 주요 의식으로 다루어졌고

△ 선조 때는

– 윤두수尹斗壽가 기자에 관계된 중국문헌을 모아 『기자지箕子志』를 편찬하였고

– 이이李珥는 기자의 입국 시말 · 세계世系 · 역년 등에 관해 다룬 『箕子實紀』를 저술했으며

– 한백겸韓百謙은 기자의 토지 제도를 정전제井田制로 상상한 『기자고箕子考』를 저술하였다.

△ 영조 때는

– 서명응徐命膺이 기자가 동천東遷한 이래의 사적事蹟을 기술한 『기자외기箕子外記』를 지었고

△ 정조 때는

– 이가환李家煥과 이의준李義駿이 기자의 정전井田에 관한 제가諸家의 연구를 모아서 『箕田考』가 나오게 되었다.

이 시기에 청주 한씨淸州韓氏, 행주 기씨幸州奇氏, 태원 선우씨太原鮮于氏는 족보에 기자를 시조로 삼았다.

·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기자의 동래설이 나라에서 받아들여졌다. 주자학이 성행함에 따른 모화사상慕華思想과 더불어 단군보다는 기자가 명분과 의리의 구현자이며 왕도정치를 이룩한 도학의 시조이자 공맹 정주孔孟程朱와 같은 성현으로 추앙 받게 되었다.

△ 한말에는

- 대원군의 집권시기에 이인원李寅遠은『기자수봉조선론箕子受封朝鮮論』을 편찬하여 기자는 은지순신殷之純臣이라 숭봉崇奉 하였는데 이는 왕권 강화에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 진다.
-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외세 강압에 대한 민족적 저항과 내부 모순으로 사회와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게 됨으로서 유교문화 전통을 강조하여 국가질서를 유지하고자 기자조선을 부각시켰다.
- (박광용:「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의 변천」-고려부터 한말까지의 사서를 중심으로-『한국사론』, 1980. 12)
- (윤내현:『한국고대사 신론』, 1999)
- (조원진:「기자조선연구의 성과와 과제」단군학연구』제20호 , 2009. 5)

조선시대~한말에 이르기까지『조선왕조실록』등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서는 고려시대와 동일하게 중국문헌의 '기자 동래설'을 나라에서 받아들여 이를 정설로 인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3. 근대이후의 기자조선 연구

1) 일제 강점기

△ 일제 강점기에 있어 우리 사회의 기본 과제는 근대사회를 형성하는 이념을 구현하고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역사학의 과제이기도 하였다.

- 근대시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역사학은 박은식 · 신채호의 역사연구에 이르러서 근대 역사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의 사가들은 기존 사료史料의 비판을 통해 한민족의 기원에 대하여 종래의 고조선의 전개 지역을 대동강 유역으로부터 만주 지역으로 확대하여 민족의 이동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중국이 주변 약소국을 식민 국가화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의 고대사를 왜곡한 것이므로 기자의 동래설은 역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 그러나 기자의 동래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부인한 것은 아니며 요서지방遼西地方에 국한된 정권이거나 조선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일개 망명객으로 왔다면 수긍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했다.

(『문답으로 엮은 한국고대사 산책』 한국고대사연구회, 2007. 3)

(조원진:「기자조선연구의 성과와 과제」『단군학연구』제20호, 2009. 5)

△ 신채호申采浩는 그의『독사신론』에서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훗날 그 후손이 고조선의 일부 지역의 왕이 된 것이라고 보았다〈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8. 9. 15〉

△ 정인보鄭寅普는『삼국지』의 "기자지후箕子之後"라는 기록이 "기자의 후예"라는 뜻이 아니라 "기자 이후"라는 뜻인데 이것이 "기자의 후손"으로 잘못 해석되어 "기자 동래설"을 굳히고 기자를 준왕의 선조라고 오역하였다고 보았다.

(「5천년간 조선의 얼」 동아일보 1935. 1. 30 및『조선사연구』상, 서울신문, 1946, 60쪽)

·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해외국가인 고조선의 왕으로 봉했다면 이는 한 민족의 자주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 광복 이후

△ 이 시기에 한국 학계는 문헌적인 고증을 통해 주로 '기자조선설'을 부정하는 여러 견해가 제시 된다.

첫째: 기자의 동래와 기자조선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견해

둘째: 기자조선은 역사적으로 성립 할 수 없으나 고조선의 변방에 국한 된 정권이거나 세력이라면 '동래'자체는 가능하다는 견해

셋째: 기자의 동래는 부정하지만 이 전설에서 고대 한 · 중간의 교류사실이나 고조선 내부의 정권교체 등의 역사적 사건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

넷째: 전설 자체가 후대에서 조작된 것이므로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찾는 것은 무의미하며 다만 사상사思想史로서의 의미만 있다는 견해

(조원진:「기자조선연구의 성과와 과제」,『단군학연구』제20호, 2009. 5)

· 대체로 기자의 실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기자를 주나라 무왕이 조선의 왕으로 봉했다는 동래설에 대하여는 부정적 견해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여 진다.

△ 기자조선설이 역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김정배金貞培는 고고학적으로 고조선 등 동북아시아의 청동기 문화는 황하유역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고 보았으며 만약 기자 집단이 어떤 경로를 통해 조선에 와서 왕조를 세웠다면 두 지역의 청동기문화에 긴밀한 상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였다.

(김정배:「고조선의 주민구성과 문화적 복합」,『한국민족문화의 기원』, 1973)

– 심우준沈暘俊은 기자조선을 후대의 조작으로 이해했다.

기자의 기록 중에 가장 오래 되고 신빈성이 있는 것은『상서尙書』이며『좌전左傳』,『전국책戰國策』,『사기史記』의 기사는 이 기록을 인용하여 꾸민 것

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상서尙書』의 "석기자수釋箕子囚" 기록도 서한 시대를 중심으로 한 후인들의 위작이며 고조선과 중국이 접촉한 것은 전국시대라고 파악하였다.

(심우준:「기자조선문제 신고찰」,『동국대석사학위 논문』, 1957)

- 김영수金映遂는 서주 무왕 당시의 조선은 해외 조선과 중국 본토 내의 조선이 있었는데 기자가 봉해진 조선은 미자송국微子宋國 내의 지명으로 상구현商丘縣의 몽택이 조선의 개명으로 추정했다.

(김영수:「기자조선은 중국 몽현, 동국조선과는 이지 동명일 뿐」,『전북대학교 논문집』, 1960)

- 윤내현尹乃鉉은 기자국은 중국의 변방에 있었던 소국이었으며 그 말기인 자부子否 때에 고조선의 변방으로 쫓겨났다가 오래지 않아 멸망하였다.

따라서 기자나 기자국은 한국 고대사의 주류에 위치할 수 없으며 '기자조선'이라는 용어는 전연 부당한 것임을 알게 된다. 이는 당시의 고조선이 강한 토착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윤내현:『한국고대사 신론』, 1999년)

- 조원진은 주나라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조선이라는 해외국가에 대하여 주나라 무왕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하여 주었겠는가. 이는 일방적이거나 형식적인 조치로 주나라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기자가 망명을 한 것을 인정했다는 표현으로 볼 수 도 있다고 하였다.

(조원진:「기자조선연구의 성과와 과제」,『단군학연구』제20호, 2009. 5)

3) 북한 학계

– 1960년 고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치열한 토론을 거쳐 이지린李址麟의 학설이 통설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지린은 기자란 명칭이 기국箕國에서 유래된 것이며 따라서 기자는 조선에 수봉된 것이 아니라 양국梁國 몽현蒙縣에 수봉되었다가 그 후 산서山西 경지境地로 이동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자와 고조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이 전설에서 고조선과 상주시대商周時代에 밀접한 관계와 문물제도가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중국인들이 공인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지린:「고조선국가 형성에 관한 한 측면의 고찰」,『력사과학』, 1962. 2)

– 광복 후 북한학계는 평양의 기자묘를 발굴했는데 벽돌조각과 사기조각밖에 나온 것이 없다고 한다. (『고조선력사개관』108쪽, 사회과학원, 1999.)

4) 한국의 역사교과서 개편

대한민국에서는 1964년 교과서에서 기자조선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1974년에는 교과서 개편을 앞두고 고조선에 대한 논쟁에서 기자조선의 실제성이 논의 되었고 교과서에 기자조선이 각주로 언급되었다.

1999년부터 발행되는 역사교과서에서도 각주로 처리되었으나 2010년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에서는 기자조선이 언급되지 않는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남북한 사학계는 광복을 전후하여 문헌비판을 통해 기자의 동래설을 부정하였다.

5) 기자조선에 대한 새로운 견해

1970년대 이후 기자 동래설의 부정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기자의 동래설'을 뒷받침하는 천관우의 문헌적 고증과 이형구의 고고학적 자료의 고증을 통한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면서 기자조선 연구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 천관우千寬宇

기족箕族의 동방 이동설을 제기하여 기족은 한민족구성의 주류를 이루는 동이족東夷族 안에 있었던 하나의 씨족집단이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산서성山西省 태곡현太谷縣 일대를 시발점으로 하여 동쪽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즉 태곡현 일대에 기국을 세우고 있던 기자족은 상나라 말기의 제후국이 되었다가 새로 일어난 주나라의 압력을 받아 그 주력이 동방으로 이동하여 하북성河北省 난하灤河 하류지역에 이르러 일단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기

자조선'이라는 것이다.

그 후 기자족은 동쪽으로 이동을 계속해서 요서와 요동을 거쳐 평양 대동강 하류에 이르렀을 것인데 기자족의 이동은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이며 평양지역 도착과 한국 청동기시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 후 기자족은 알 수 없는 시기에 고조선에 대체된 세력으로 봄으로서 기자조선을 인정하였다. (천관우:「기자고」『동방학지』)

※ 이 논문은 한국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기자의 동래설을 입증한 논문으로 평가된다.

– 이형구李亨求:

상말商末 주초周初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해 연안의 대능하 유역大凌河流域에서는 주족으로부터 밀려난 상왕족인 기자를 대표로 하는 상유민에 의해 기자조선이 건국된 것으로 보았다.

발해유역 북부의 대능하 유역을 중심으로 한 초기 기자조선은 상말 주초의 문화형태를 형성 발전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남산근 문화南山根文化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발해연안의 독특한 남산근 청동기문화는 요동반도와 한반도에 파급되는데 이것이 기자조선의 이동과 궤軌를 같이 했다고 파악하였다.

(이형구: 「중국 동쪽의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의 문화」, 『국립대만대학 석사학위 논문』,「대능하 유역의 은말 주초 청동기 문화와 기자조선」,1991년)

※ 이 학설은 신채호申采浩의 조선족 이동설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학계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4. 최근의 연구 활동

1) 한국 학계

〈기자의 동래설을 재검토하는 내용으로서 주목받는 논문〉

기자의 동래설이 선진문헌先秦文獻에서는 나오지 않으므로 후대에서 조작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헌적인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아래 두 편의 논문이 '기자의 동래설'을 재검토하는 내용으로서 주목을 받는다.

– 김한규(서강대 교수)

기자의 동래나 기자조선의 존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자동래에 대한 기록이 중국 문헌에 기재된 이후 한국인과 중국인의 대부분이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어왔고 이로 인해 한국인이 중국인과 더불어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의식을 자극, 조장하게 했다.

따라서 기자 인식은 한국인의 문화 활동이 고유한 문화를 생산하기 보다

는 중국과 더불어 동아시아 세계의 보편적 문화를 공동으로 창출, 향유한다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역사 서술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엄폐掩蔽되거나 소거消去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한규:「기자와 한국」.『진단학보』제92호, 2001. 12)

– 이도학(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김두진(국민대 교수)

기자의 세력이 처음에는 단군조선의 변경邊境인 서쪽 일부 영토에서 시작하여 단군조선과 병존하다가 점차 세력을 확장시켜 단군조선의 상당한 영역을 장악하며 조선을 대표하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도학:「고조선사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재검토」.『동국사학』제37집, 2002. 3)

(김두진:「단군신화의 문화적 접근」.『한국사학』제11집, 1990. 11)

5. 앞으로의 과제

기자조선 연구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 광복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앞으로의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자와 관련된 문헌적인 연구 문제

최근 중국 학계는 사료의 비판 없이 문헌에 나타난 기자와 기자조선을 그

대로 인정하는 한계가 있고, 한국 학계는 기자의 동래설이 후대의 조작된 것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문헌 연구가 정체되어 있는 듯하다.

고조선에 대한 중국의 기록 대부분이 기자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중국 문헌의 엄격한 문헌비판을 통해 새로운 문헌고증의 연구가 더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고조선의 연대와 강역을 정립하는 문제

기자의 동래설은 당시 고조선이 존재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자조선 문제는 고조선과 분리하여 연구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것은 학계가 고조선에 대해 명확한 견해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자조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고조선의 연대와 강역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자와 관련 돼 보이는 기족箕族 관련 청동기에 대한 문제

요녕성遼寧省 객좌현喀左縣에서 출토된 기후箕候 방정方鼎은 기자가 활동한 상말商末에 제작된 것이고 기자가 동래했다는 동북쪽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당대 문헌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기자의 동래를 입증해줄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본과 중국은 우리 고대사를 어떻게 왜곡시켰는가

1) 일본의 역사왜곡

△ 한국의 유학자들은 고려후기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기자의 동래설을 옹호했으며 한민족이 중국의 현인으로 전해져 온 기자의 교화를 받았음을 긍지로 삼고자 했다.

△ 기자의 동래설을 먼저 부정한 것은 일본 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청일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노일전쟁을 유리한 위치에서 종결시켜 대륙에서의 이권획득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학문적 뒷받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단군을 후대에 만들어 진 전설로 처리함으로서 고조선의 존재와 기자의 동래설을 부정하고

△ 위만조선을 출발점으로 잡으면서 그 뒤를 이은 한사군漢四郡을 중국 세력의 한반도 진출로 봄으로써 한국 고대사 인식에 혼란을 야기 시켰다.

2) 중국의 동북공정

△ 오늘의 중국은 기자조선의 동래설을 지지하면서, 최근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한국고대사 왜국은, 고구려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단계를 넘어, 고조선조차 중국역사로 보려는 시도가 자행되고 있다.

△ 그들은 단군조선을 부정하고 기자조선을 부각시켜, 기자조선에서 발해에 이르기까지 만주와 한반도의 국가들이 모두 중국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 한국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따라서 기자조선의 실존여부는 다시 국제적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국 학계의 기자조선에 대한 연구결과는 관련 사료의 제한 등

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조원진:「기자조선연구의 성과와 과제」,『단군학연구』제20호, 2009. 5)

> 기자조선의 실체를 검토하는 목적은 우리 민족의 원류의 역사를 밝혀 그 정체성을 찾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른바 중국의 동북공정 등의 정치논리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6. 연구결과 요약

우리 원류사연구위원회는 기자의 실체와 동래설의 개괄적인 연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를 얻게 되었다.

△ 기자조선은 중국 은殷나라 말기인 BC 1000년 전후에 실존했던 기자가 조선에 와서 단군조선에 이어 건국한 고조선왕조 중의 하나로 보는 고대국가이다.

△ 기자조선은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기자에 관한 우리 고유의 사료가 없이 중국문헌인『상서대전』·『사기』·『한서』 등에 의존해 왔으며 그 실재 여부와 건국 과정, 성격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따라 논란이 되었다.

1) 우리 나라 역사서의 기자조선에 대한 시대별 인식의 변천

△ 고려 · 조선조시대 · 한말까지(정설)

– 우리나라 고대사를 기록하고 있는 『삼국사기』·『삼국유사』·『제왕운기帝王韻紀』·『고려사』·『조선왕조실록』 등을 비롯한 모든 역사서에는 우리 고유의 사료가 아닌 중국의 문헌 기록인 '기자의 동래설'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 고려 · 조선시대, 한말에 이르는 약 1천년의 오래 기간 동안 이를 '정설'로 인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고구려에서는 영성신·일신·가한신과 기자신을 섬기는 민간신앙이 있었다는 『구당서』의 기록이 있으며

△ 고려는 나라에서 기자묘를 만들고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냈으며

△ 조선조시대에 들어와서도 기자를 섬기는 국가 차원의 의식이 이어져 왔을 뿐 아니라 주자학이 성행함에 따른 모화사상慕華思想과 더불어 단군보다는 기자가 명분과 의리의 구현자, 학문적 성현, 왕도정치를 이룩한 도학의 시조로 추앙받게 되었고

△ 이 시기에 청주한씨, 행주기씨, 태원선우씨는 족보에 기자를 시조로 삼았다.

△ 한말 대원군의 집권시기에도 『기자수봉조선론』을 편찬하여 유교문화 전통을 강조하며 국가질서를 유지하고자 기자를 부각시켰다.

△ 일제 강점기 · 광복이후 (부정론 · 다수설 및 일반적 통설)

–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민족주의 사가들은 기존 문헌의 새로운 비판을 통해 고려 · 조선시대 · 한말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정설로 인식해 왔던 '기자 동래설'의 부정론을 제기하였고

– 광복이후 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사학계는 기자 동래설의 부정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찬 · 반 양론의 연구가 고조선 문제와 함께 진행되고 있어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오늘의 남북한 사학계가 모두 기자 동래설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 한국 :

· 1964년 교과서에서 기자조선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1974년에는 교과서 개편을 앞두고 고조선에 대한 논쟁에서 기자조선의 실재성이 논의 되었고 교과서에 기자조선이 각주脚註로 언급되었다.

· 1999년부터 발행되는 역사 교과서에서도 각주로 처리 되었으나

· 오늘 현재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기자조선이 언급되지 않는다.

– 북한 :

· 1960년대에 이지인李址麟의 학설이 통설로 인정받게 되었다.

2) 학계에 감수 요청

△ 중국『만성통보萬姓統譜』의 기록은 고증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 기자의 동래설이 부정된다면 현씨玄氏의 동래선계의 추정 근거로 삼고 있는 중국『만성통보萬姓統譜』의 기록은 고증 사료로서의 가치가 의문시 된다.

– 이상과 같은 기자 동래설의 개괄적인 기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 주나라 때 기자조선의 좌빈객으로 왔다는 현탁일玄鐸一이라는 분을 현씨玄氏의 동래 선계로 기록하고 있는 중국『만성통보萬姓統譜』의 문헌이 고증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개 연구 안을 마련하여 학계의 감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1설: 기자동래설의 부정론이 정설로 정립되었다면『만성통보萬姓統譜』의 관련 사료는 문헌적가치가 없다고 본다.

제2설: 기자동래설의 부정론이 다수설이나 일반적인 통설에 불과하다면『만성통보』의 관련기록은 문헌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학계 감수 소견〉

□ 감수사監修辭

동방화벌연주현씨원류고東方華閥延州玄氏源流考

–그 발원發源에 관關한 관견管見–

단기檀紀 4343년 경인庚寅 초가을 방내邦內 명문名門인 연주 현씨延州玄氏 문중門中으로부터 그 선계先系를 새롭게 밝히는 원류고源流考(원고)에 대하여 불민不敏한 이 사람에게 그 견해見解를 제의提議해 왔다.

과분過分하지만 살펴보건대 그 추모追慕의 성념誠念이나 발굴發掘한 사실史實 등이 모두 놀라워 여기 느끼는바 감하感荷가 몇 갈래로 새로웠다.

우선于先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람의 좁은 관견管見이나마 감히 여기 붙이기로 한다.

2010년 12월 18일

최창규崔昌圭 : 전서울대교수;전독립기념관장:전성균관장

△ 연구위원회가 기자 동래설을 검토하는 이유가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는 학문적 연구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씨玄氏의 원류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자 동래설과 관련되는 중국『만성통보萬姓統譜』가 고증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 연구 결과에서

– 기자 동래설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 우리나라 역사서는 시대별로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천 해 왔으며

– 근대 이후의 연구 성과와 최근의 연구동향, 학계의 과제 등에 이르기까지 개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 위 연구 내용에서와 같이 기자의 동래설은 우리나라 역사서에서 고려 · 조선조시대 · 한말에 이르는 약 1천년의 오랜 기간 동안 정설로 인식 되어 왔으나 일제 강점기 이래 기자 동래설의 부정론이 제기되어 찬 · 반 양론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 기자 동래설의 부정론은 오늘의 사학계에서 아직 정설에 이르지 못한 다수설 내지 일반적인 통설로 보고 있으므로 중국『만성통보萬姓統譜』는 고증 사료로서의 문헌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감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료에 의해 기자의 동래설을 뒷받침 하고자 한다.

– 명明나라의 오명제吳明濟가 저술한『조선세기朝鮮世紀』와

– 율곡선생이 저술한『기자실기箕子實記』이다.

□ 이택휘李澤徽 박사: 전서울교대 총장; 전민족문화추진회 회장

△ 연구과제 〈2〉에 대해서는 감수 소견을 쓰지 않기로 한다.

◇ 2 단계 연구

△ 기자조선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 결과를 학계에 감수를 요청하는 한편 선조들께서 『갑자오수보甲子五修譜』의 「보유편補遺篇」에 수록한 "주周 현탁일玄鐸一"의 관련 기록이 어떤 중국 『만성통보萬姓統譜』상에 그 문헌적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이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1). 연주 현씨延州玄氏 『갑자甲子오수보五修譜』상에 수록된 『만성통보 萬姓統譜』의 기록

(2). 국내 주요도서관에 소장된 중국 『만성통보萬姓統譜』의 기록

(3). 국내 주요 도서관에 소장된 중국 『만성통보萬姓統譜』상의 현씨玄氏 관련 기록 대조

(4). 중국 북경 국가도서관에서 확인된 자료

△ 최종 연구 결론을 위한 종합 검토

○ 1단계 : 기자조선의 연구 결과에 대한 학계의 감수 소견과

○ 2단계 : 중국 『만성통보萬姓統譜』상의 "주周 현탁일玄鐸一"관련 기록의 확인 결과를

○ 종합 검토하여 최종 연구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1. 연주 현씨延州玄氏『갑자오수보甲子五修譜』상에 수록된『만성통보萬姓統譜』의 기록

△ 연주 현씨『갑자오수보』(1924년)의「보유편」에 수록된 "견만성보見萬姓譜"의 표기는 중국의『만성통보萬姓統譜』를 출전으로 인용한 것으로서 이는 중국 현씨玄氏의 발원 근거와 각 시대별로 주요 활동을 한 현씨玄氏의 인명 기록임이 확인되었다.

△『갑자오수보』의「보유편」에 수록된 현씨玄氏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 현씨玄氏: 현도 고제후국 자손 이국위씨玄都 古諸侯國 子孫 以國爲氏

○ 주 현탁일周 玄鐸一: 무왕극상 봉기자우조선 이좌빈객래武王克商 封箕子于朝鮮 以左賓客來

○ 주 현속周 玄 俗: 생 략

○ 한 현하漢 玄 賀: 생 략

○ 남조 현부인南朝 玄夫人: 생 략

○ 북조 현람北朝 玄 覽: 생 략

○ 진 현안晉 玄 安: 생 략

○ 송 현자宋 玄 滋: 생 략

○ 명 현단明 玄 端: 생 략

○ 명 현녕明 玄 寧: 생 략 ※見萬姓譜

〈검토 결과〉

△『갑자오수보』의「보유편」에 수록된 중국『만성통보萬姓統譜』는 편찬 년대 · 편찬자 · 판본명의 기록이 없이 "견만성보見萬姓譜"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문헌적 근거의 확인이 필요하다.

2. 국내 주요 도서관에 소장된 중국『만성통보萬姓統譜』

보록명譜錄名	소장도서관	검토내용
· 『만성통보萬姓統譜』 – 명나라 능적지凌迪知 편찬 – 시기 1579년간 – 중국 목판본木版本 급고각 장판汲古閣藏板	· 국립중앙도서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이왕실 도서 이관운영) 2개소	· 모두 같은 중국판본인 급고각 소장 판본汲古閣藏板 임. ※ 중국의 대표적인『만성통보萬姓統譜』이다. (참조:별첨『만성통보』요약)
· 문연각文淵閣『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청나라 건륭황제 편찬 –1782년 간 중『만성통보』1,2권	·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고전번역원 2개소	· 청나라 건륭황제가 편찬한『흠정사고전서』중의『만성통보萬姓統譜』로서 현씨玄氏 관련 기록이 명나라 급고각 소장 판본의『만성통보萬姓統譜』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 『중화족보집성中華族譜集成』 –편저자:중국족보연구회 –출판사:파촉서사巴蜀書社 –발행일:1995년	· 국립중앙도서관 · 국회 도서관 · 서울대 도서관 · 성균관대 도서관 · 고려대 도서관 5개소	· 표제는『중화족보집성』이라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청, 건륭황제가 편찬한『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중의『만성통보萬姓統譜』를 수록하였다.
3종	9개소	

〈검토 결과〉

△ 국내 주요 도서관에 소장된 명나라 능적지가 편찬한 중국『만성통보萬姓統譜』는 3종이 있다. △ 급고각 판본『만성통보萬姓統譜』는 2곳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에만 있고 △ 나머지 7곳은 모두 청나라 건륭황제가 편찬한『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중의『만성통보萬姓統譜』이다.

3. 국내 주요 도서관에 소장된 중국『만성통보萬姓統譜』상의 현씨玄氏 관련 기록 대조

『갑자오수보甲子五修譜』「보유편補遺篇」에 인용 수록된『만성통보萬姓統譜』내용	급고각 소장판 본汲古閣藏板『만성통보萬姓統譜』	청,건륭황제가 편찬한『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중의『만성통보』	『중화족보집성中華族譜集成』중의『만성통보萬姓統譜』	비 고
현씨: 현도 고제후국 자손 이국위씨玄氏: 玄都 古諸侯國 子孫 以國爲氏	O	O	O	현씨玄氏 발원 근거로 활용
주 현탁일: 무왕극상 봉기자우조선 이좌빈객래 周 玄鐸一: 武王克商 封箕子于朝鮮 以左賓客來	X	X	X	미확인
주 현 속周 玄 俗: 생 략	O	O	O	
한 현 하漢 玄 賀: 생 략	O	O	O	
남조 현부인南朝 玄夫人: 생 략	O	O	O	
북 조 현 람北 朝 玄 覽: 생 략	O	O	O	
진 현 안晉 玄 安: 생 략	X	X	X	미확인
송 현 자宋 玄 滋: 생 략	O	O	O	
명 현 단明 玄 端: 생 략	O	O	O	
명 현 녕明 玄 寧: 생 략	O	O	O	
총10개 기록	총8개 기록	총8개 기록	총8개 기록	2개 미확인

〈검토결과〉

△ 국내 주요도서관에 소장된 3종의 중국『만성통보萬姓統譜』에서 현씨玄氏 관련 기록은 모두 그 내용이 일치되고 있다.

※ 위 3종의 중국『만성통보』에서 공통적으로 "주 현탁일周玄鐸一과 진 현안晉玄安"의 기록만 확인되지 않는다.(2개 항목의 기록 미확인)

4. 중국 북경 국가도서관에서 확인된 자료

◇ 중국 북경 국가도서관을 통해 명나라 능적지가 편찬한『만성통보萬姓統譜』급고각 소장판본汲古閣 所藏板本의 원간본이 있는가를 확인한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명나라 능적지가 편찬한 급고각 장판(국내:국립중앙도서관 및 한국한중앙연구원 소장)의『만성통보萬姓統譜』만력기묘萬曆己卯(1579) 원간본이 소장되어 있었고 여기서도 현씨玄氏 관련 기록은 국내의 소장본(급고각 장판)과 동일하였으며 "주 현탁일周玄鐸一, 진 현안晉玄安"의 기록은 없음이 확인 되었다.

△『중국인명대사전』상에서도 주 현탁일周玄鐸一과 진 현안晉玄安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최종 연구 결론〉

△ 1단계의 기자 동래설 연구결과와 2단계의 중국『만성통보萬姓統譜』에 수록된 주 현탁일周玄鐸一 관련 기록의 문헌적 근거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연구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1)『갑자오수보甲子五修譜』「보유편補遺篇」에 나오는 "주나라의 현탁일: 무왕이 상나라와 싸워 이기고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좌빈객으로써 함께 왔다.(周 玄鐸一:武王克商 封箕子于朝鮮 以左賓客來)" 라는 기록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2) 주나라 현탁일이『갑자오수보』에 현씨의 동래 선계로 기록되어 있으나 출전으로 제시된 명나라 능적지凌迪知의『만성통보萬姓統譜』원간본을 국내 주요 도서관과 중국 북경 국가도서관에 가서 확인한 결과 거기에 현탁일 관련 기록은 실려 있지 않았다.

3) 기자 동래설은 중국의 문헌에서 비롯되었고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근거가 없는데도 모화사상의 영향을 받아 고려로부터 조선조 대원군시대까지 약 1천년 동안 정설定說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민족주의 사가들에 의해 기자 동래설의 부정론이 제기되었다. 현재는 기자 동래설의 부정론이 남북한 공히 다수설, 내지는 일반적인 통설로 되어 있다.

4) 『우리 현씨의 원류사 고찰』 초판본에서는 선조들께서 『갑자오수보』「보유편」에 인용한 "현탁일이 기자가 동래시에 좌빈객으로 함께 왔다" 라는 기록에 따라 현탁일을 현씨의 동래 선계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국 『만성통보萬姓統譜』원간본에 현탁일 관련 기록이 없고 기자의 동래가 문헌적으로 고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자 동래설을 지지하는 학계의 감수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증보판에서는 현탁일을 현씨의 동래선계로 추정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재정립하였다.

5) 주나라 현탁일玄鐸一의 관련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

△ 우리 선조들께서 1924년 『갑자오수보』를 편찬할 당시 「보유편」에 "견만성보見萬姓譜"라고 표기하고 "주 현탁일周玄鐸一과 진 현안晉玄安"의 관련기록을 수록하신 것을 보면 분명 어떤 중국 『만성통보萬姓統譜』의 판본을 참조하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선조들께서 참조했던 당시의 판본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 것은 1782년 청나라 건륭황제가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의 편집을 위해 일반에 널리 통용되던 각종의 '통행본'을 전국적으로 수집하여 이들 문헌에 대해 엄격한 고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통행본'들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폐기된 사례와 무관하지 않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참조: 별첨 중국『사고전서』자료).

△ 명나라 능적지가 1579년에 편찬한 『만성통보萬姓統譜』는 현존하는 중국의 보록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문헌이다. 여기에 수록된 현씨玄氏 관련 기록 내용이 그 후 1782년에 청나라 건륭황제가 편찬한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중의 『만성통보萬姓統譜』 편에도 수정 없이 그대로 인용 수록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오수보』에 수록되어 있는 "주 현탁일周玄鐸一과 진 현안晉玄安"의 기록만은 없음이 확인되었다. (참조: 별첨 중국 『만성통보萬姓統譜』자료)

△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아무리 선조들께서 인용하신 문헌이라 하더라도 급고각汲古閣 소장 판본所藏板本 및 청, 건륭황제가 편찬한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와 『중국인명대사전』 등에도 "주 현탁일周玄鐸一과 진 현안晉玄安"의 관련 기록이 없다면 이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중국 문헌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선조들께서 『갑자오수보』의 「보유편」에 수록하신 중국 『만성통보萬姓統譜』의 "주 현탁일周玄鐸一" 기록은 문헌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당시에 일반에 통용되었던 판본 미상의 한 '통행본'을 참고하신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 참고자료〈Ⅰ〉

중국中國의『만성통보萬姓統譜』(요약)

△ 중국中國의『만성통보萬姓統譜』란 명明나라 능적지淩迪知가 1579년에 최초로 편찬編纂한 보록譜錄이다.

△ 고금古今의 성씨姓氏를 운韻에 따라 분류分類하고 정리整理한 일종一種의『고금인명사전古今人名辭典』으로 볼 수 있다.

- 본서本書140권외에「역대제왕성계통보歷代帝王姓系統譜」6권과「씨족박고氏族博攷」14권이 앞뒤에 각각 첨부添附 되어 있다.

△ 주요내용

- 고금성씨古今姓氏를 사성四姓 106운韻으로 나누고 당唐 임보林寶 의『원화성찬元和姓纂』의 차례를 따라 역대歷代 명인名人의 관적貫籍과 명자名字, 약전略傳을 각 성씨별姓氏別 항목項目에 시대순으로 배열配列하였다.
- 수록대상收錄對象은 상고시대上古時代부터 명明 중엽中葉까지의 인물人 物을 실었다.

△ 본서本書가 참고한 문헌文獻은 경 · 사 · 자 · 집經史子集을 비롯하여『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십삼성통지十三省統志』·『황명역관표皇明歷官表』·『성찬姓纂』·『천성편天姓編』·『성원주기姓源珠璣』·『씨족대전氏族大典』· 통지通志』·『씨족략氏族略』·『백공육첩족문白孔六貼族門』·『한인희성漢人希姓』·『사서인물고四書人物考』·『상고유씨록尙古類氏錄』등 관

련 있는 거의 모든 서적書籍을 망라網羅하여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 명明, 만력萬曆 7년 서간본序刊本과 연보延寶 9년 추전옥산본 秋田屋山本, 평좌위문상지간본平左衛門常知刊本이 있으며 규장각奎章閣 소장본은 명明, 만력 7년 서간본序刊本이다.

※ 규장각奎章閣 소장본 서지書誌 정보에서 발췌함.

◇ 참고자료 〈Ⅱ〉

중국中國의 『사고전서四庫全書』(요약)

△ 중국中國의 『사고전서四庫全書』란 청淸나라 건륭황제乾隆皇帝가 역대 중요 경전經典과 각 분야의 여러 "서류書類"들을 "경經 · 사史 · 자子 · 집集"의 4분야로 나누고 이를 다시 44 종류로 세분細分하여 알아 보기 쉽도록 엮은 책冊으로 일찍이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해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총서이다.

※『만성통보萬姓統譜』는 『사고전서四庫全書』 중中에 '자부子部'로 분류되어 있다.

△ 청淸나라 건륭황제乾隆皇帝는 당시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의 미흡 함을 바로 잡고자 어명御命으로

– 1741년 천하天下의 서書를 수집蒐集한다는 명命을 내렸고

– 1774년 편찬소編纂所인 "사고전서관四庫全書館"을 개설開設하여

– 1781년 첫 『사고전서四庫全書』의 한 벌이 완성 되었다.

△ 그 후 궁정 사각宮廷四閣에 4벌(자금성紫金城의 문연각文淵閣, 북경 원명원北京圓明園의 문원각文源閣, 봉천奉天의 문소각文溯閣, 열하熱河의 문진각文津閣) 과 민간民間 열람용閱覽用 3벌 등 7벌이 만들어 졌다.

△ 현존現存하는『사고전서四庫全書』중 가장 완전完全한 판본板本은 문연각본文淵閣本으로서

– 수록收錄된 책 종류種類는 4,300여종, 책 수數는 36,300여 책에 총 79,300여권의 방대한 분량이다.

△ 편찬과정編纂過程을 요약하면 전국에서 수집蒐集된 서적書籍과 황실皇室에서 관리管理하던 내부본內部本, 어명御名으로 간행刊行된 칙찬본 勅撰本, 일반에 통용通用되었던 "통행본通行本" 등을 각각 대조 분류하여 엄격한 문헌文獻 고증考證을 통해 가장 훌륭한 판본板本을 선택하여『사고전서四庫全書』에 수록收錄하였는데

△ 수집蒐集한 서적 중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서적書籍은 물론 청왕조淸王朝로서 못 마땅한 것은 소각燒却하거나 판본板本을 파기破棄하는 금서禁書가 된 것도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

△ 편찬의 중심인물中心人物은 건륭황제乾隆皇帝가 임명한 총찬관總纂官 기윤紀昀을 비롯해 4명에 이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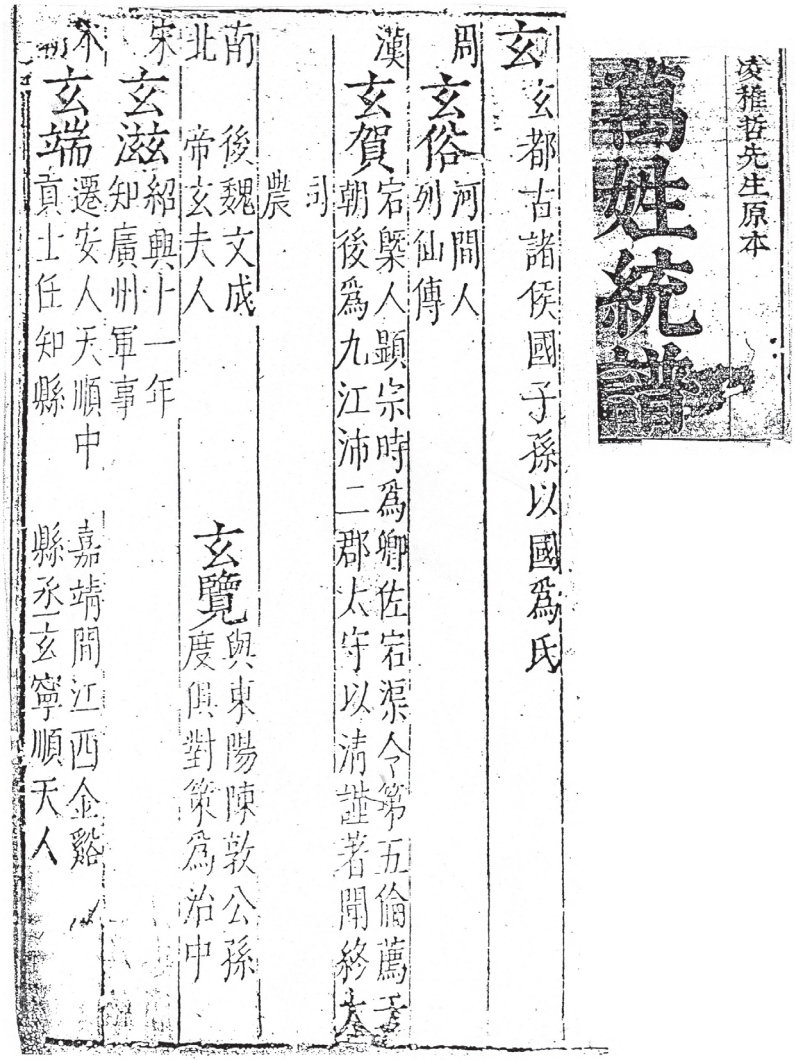
△ 편수編修, 기록정리記錄整理에 문신文臣, 학자學者, 기록관記錄官 등의 수많은 인력人力이 참여하였다는 기록記錄이 있다.

※ 한국고전번역원韓國古典飜譯院 고전자료古典資料센타 제공자료(요약)

◇ 참고자료〈Ⅲ〉

(1) 중국만성통보 원간본中國萬姓統譜原刊本 (명明, 능적지凌迪知편찬 1579년)

※국립중앙도서관소장


凌稚哲先生原本

萬姓統譜

玄 玄都古諸侯國子孫以國爲氏

周 玄俗 河間人 列仙傳

漢 玄賀 宕渠人顯宗時爲卿佐宕渠今第五倫薦之朝後爲九江沛二郡太守以清謹著聞終于農

前後魏文成帝玄夫人

北宋 玄覽 與東陽陳敦公孫度俱對策爲治中

玄滋 紹興十一年知廣州軍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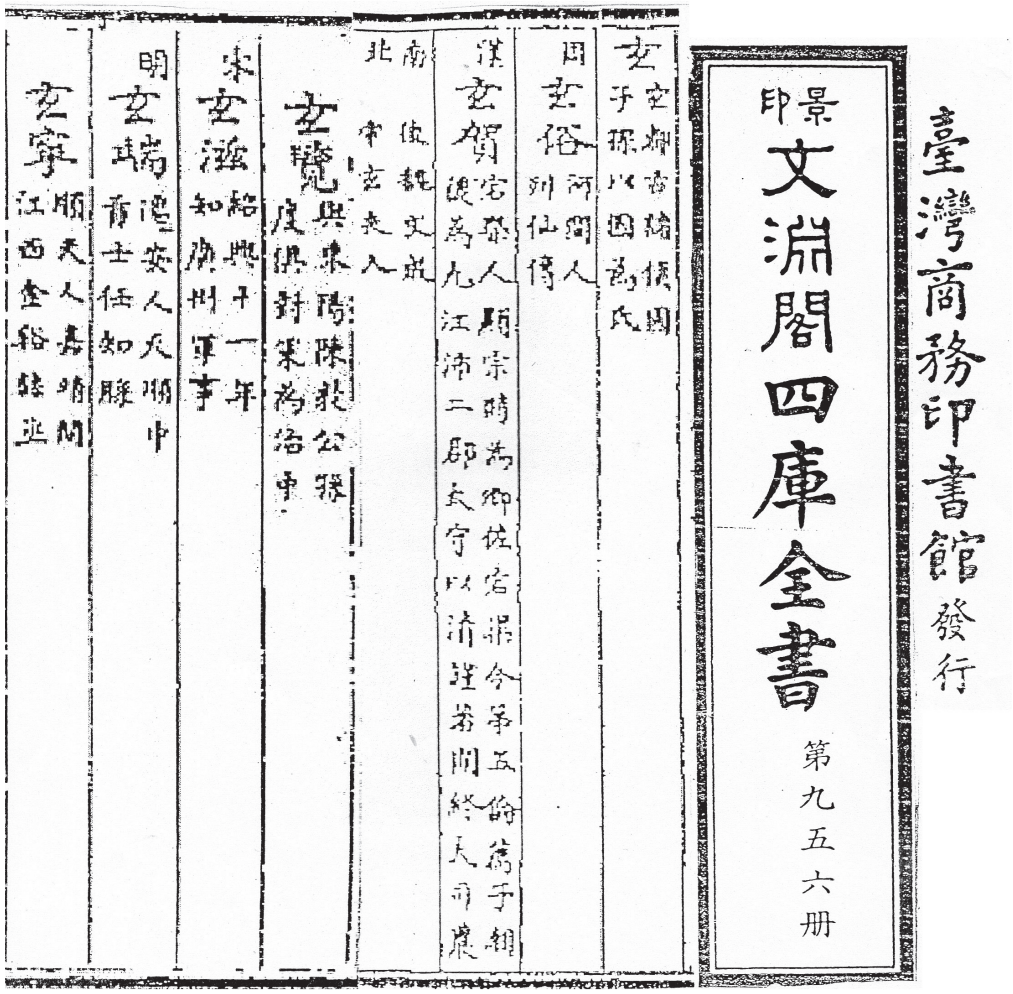
玄端 遷安人天順中貢士任知縣

嘉靖間江西金谿縣丞玄寧順天人

△ 현씨玄氏관련 기록 중에 "수 현탁일 周 玄鐸一"과 "진현안曾玄安"의 기록은 없다.

(2) 중국 흠정사고전서中國 欽定四庫全書“자부子部”만성통보萬姓統譜(청淸, 건륭황제乾隆皇帝편찬 178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현씨玄氏관련 기록 중에 “주 현탁일 周 玄鐸一”과 “진현안 晉玄安”의 기록은 없다.

(3) 중국 북경국가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중국 만성통보 원간본(명,능적지편찬 1579년)



△ 현씨玄氏관련 기록 중에 "주 현탁일 周 玄鐸一"과 "진현안 晉玄安"의 기록은 없다.

(4) 中國人名大辭典

玄氏〔山海經〕「太岳生先龍。先龍生玄氏。是玄氏姜姓之後。

玄〔姓氏辭源〕玄氏蓋出自黃帝子玄囂。或帝嚳子玄元之後。又或黃帝臣玄壽之後。

玄壽　圖黃帝臣。作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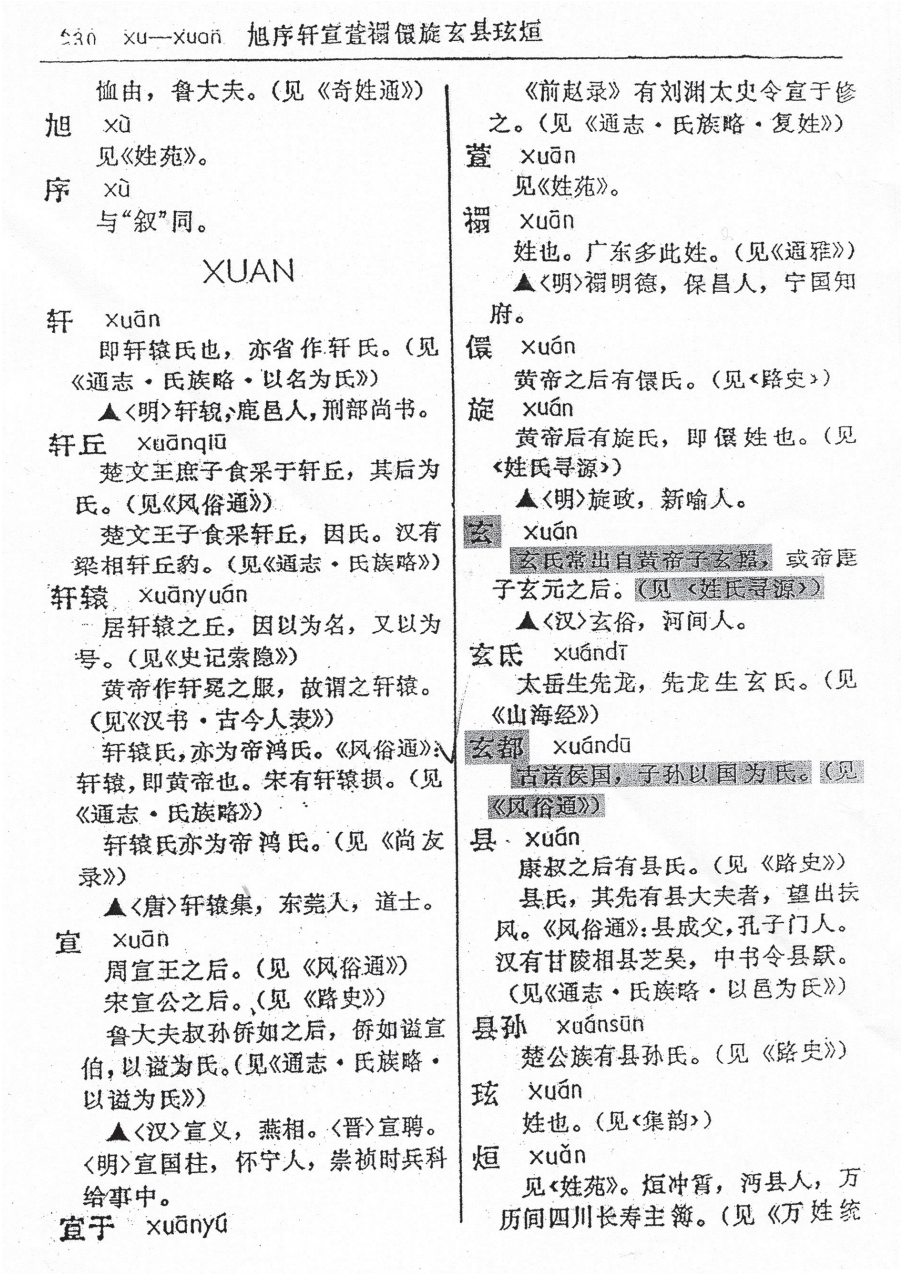
玄都〔風俗通〕古諸侯國。子孫以國爲氏。

玄・俗　圖河間人。賣藥都市。河間王病瘕。買藥服之。下蛇十餘頭。遂愈。俗有形無影。乃呼俗日中看。實無影。王欲以女配之。俗忽亡去。後人復見於恆山下。

玄賀　圖圖宏農人。字文和。明帝時爲鄉佐。邑令第五倫薦於朝。後爲九江・沛二郡太守。以清謹著聞。所在化行。官至大司農。（按萬姓統譜及四川通志作元賀。此從後漢書。）

玄・覽　圖圖與東陽陳敎・公孫度俱對策爲治中。

(5) 中國古今姓氏辭典



仙由，鲁大夫。(见《奇姓通》)

旭 xù
见《姓苑》。

序 xù
与"叙"同。

XUAN

轩 xuān
即轩辕氏也，亦省作轩氏。(见《通志·氏族略·以名为氏》)
▲〈明〉轩辀，鹿邑人，刑部尚书。

轩丘 xuānqiū
楚文王庶子食采于轩丘，其后为氏。(见《风俗通》)
楚文王子食采轩丘，因氏。汉有梁相轩丘豹。(见《通志·氏族略》)

轩辕 xuānyuán
居轩辕之丘，因以为名，又以为号。(见《史记索隐》)
黄帝作轩冕之服，故谓之轩辕。(见《汉书·古今人表》)
轩辕氏，亦为帝鸿氏。《风俗通》：轩辕，即黄帝也。宋有轩辕损。(见《通志·氏族略》)
轩辕氏亦为帝鸿氏。(见《尚友录》)
▲〈唐〉轩辕集，东莞人，道士。

宣 xuān
周宣王之后。(见《风俗通》)
宋宣公之后。(见《路史》)
鲁大夫叔孙侨如之后，侨如谥宣伯，以谥为氏。(见《通志·氏族略·以谥为氏》)
▲〈汉〉宣义，燕相。〈晋〉宣聘。〈明〉宣国柱，怀宁人，崇祯时兵科给事中。

宣于 xuānyú
《前赵录》有刘渊太史令宣于修之。(见《通志·氏族略·复姓》)

萱 xuān
见《姓苑》。

禤 xuān
姓也。广东多此姓。(见《通雅》)
▲〈明〉禤明德，保昌人，宁国知府。

儇 xuán
黄帝之后有儇氏。(见〈路史〉)

旋 xuán
黄帝后有旋氏，即儇姓也。(见〈姓氏寻源〉)
▲〈明〉旋政，新喻人。

玄 xuán
玄氏常出自黄帝子玄嚣，或帝喾子玄元之后。(见〈姓氏寻源〉)
▲〈汉〉玄俗，河间人。

玄氏 xuándī
太岳生先龙，先龙生玄氏。(见《山海经》)

玄都 xuándū
古诸侯国，子孙以国为氏。(见《风俗通》)

县 xuán
康叔之后有县氏。(见《路史》)
县氏，其先有县大夫者，望出扶风。《风俗通》：县成父，孔子门人。汉有甘陵相县芝吴，中书令县默。(见《通志·氏族略·以邑为氏》)

县孙 xuánsūn
楚公族有县孙氏。(见《路史》)

铉 xuán
姓也。(见〈集韵〉)

烜 xuǎn
见〈姓苑〉。烜冲霄，沔县人，万历间四川长寿主簿。(见《万姓统

(6) 中華萬姓溯源

其后以封地为氏。

凤(fèng) 颛顼时以鸟名官，有凤鸟氏，居是职者以官为氏。望出平阳(今山西临汾)、邰阳(今陕西合阳)。/凤英：明代人，云南武定土知府。凤氏：明代人，云南土官安忠妻，曾管指挥使事。

凯(kǎi) 上古高阳氏有才子八人，称"八恺"，又作"八凯"，或"八凯"之后有以凯为氏者。

凰(sù) "凰"通"王"，同王氏。

亠 部

亢(kàng) 春秋有附庸小国亢父(今山东济宁东南)，其族以国为氏。/亢潮：唐京兆(今陕西西安)人，登科。亢轸：唐代人，为五官正。

玄(xuán) 古东夷氏族有玄都国，其族以国为氏。/玄贺：东汉人，曾为九江、沛郡守，以清廉称，官终大司农。

亦(yì) 春秋曹庄公名射姑，"射"通"亦"，或其支庶以亦为氏。/亦尚节：宋代人，开禧进士。亦准：明弘治贡士，任云南兰沧卫知事。

产(chǎn) 或为春秋郑卿子产(公孙侨)之后。望出彭城(今江苏徐州)。/产麟：明瑞昌(今属江西)人，永昌举人，任兵部主事。产明怀宁(今安徽安庆)人，正德中任训导。

亥(hài) ①春秋晋平公时有隐士亥唐，其后为亥氏。②北魏改鲜卑族俟亥氏为亥氏。望出河南。

亨(hèng) 见《汉语大字典》。/亨祐：元代石屏(今属云南)人，天庆初与朱宝翼同为龙岛守将。

京(jīng) ①春秋郑武公少子段封于京(今河南荥阳东南)，称京城太叔，其后因以封地为氏。②李氏有改京氏者，望出谯国(今安徽亳县)。/京房：西汉人，治《易》，官太中大夫、齐郡太守。京房：(前77——前37)西汉东郡顿丘(今河南清丰西南)人，原姓李，元帝时为博士，出任魏郡太守，精音律，著《京氏易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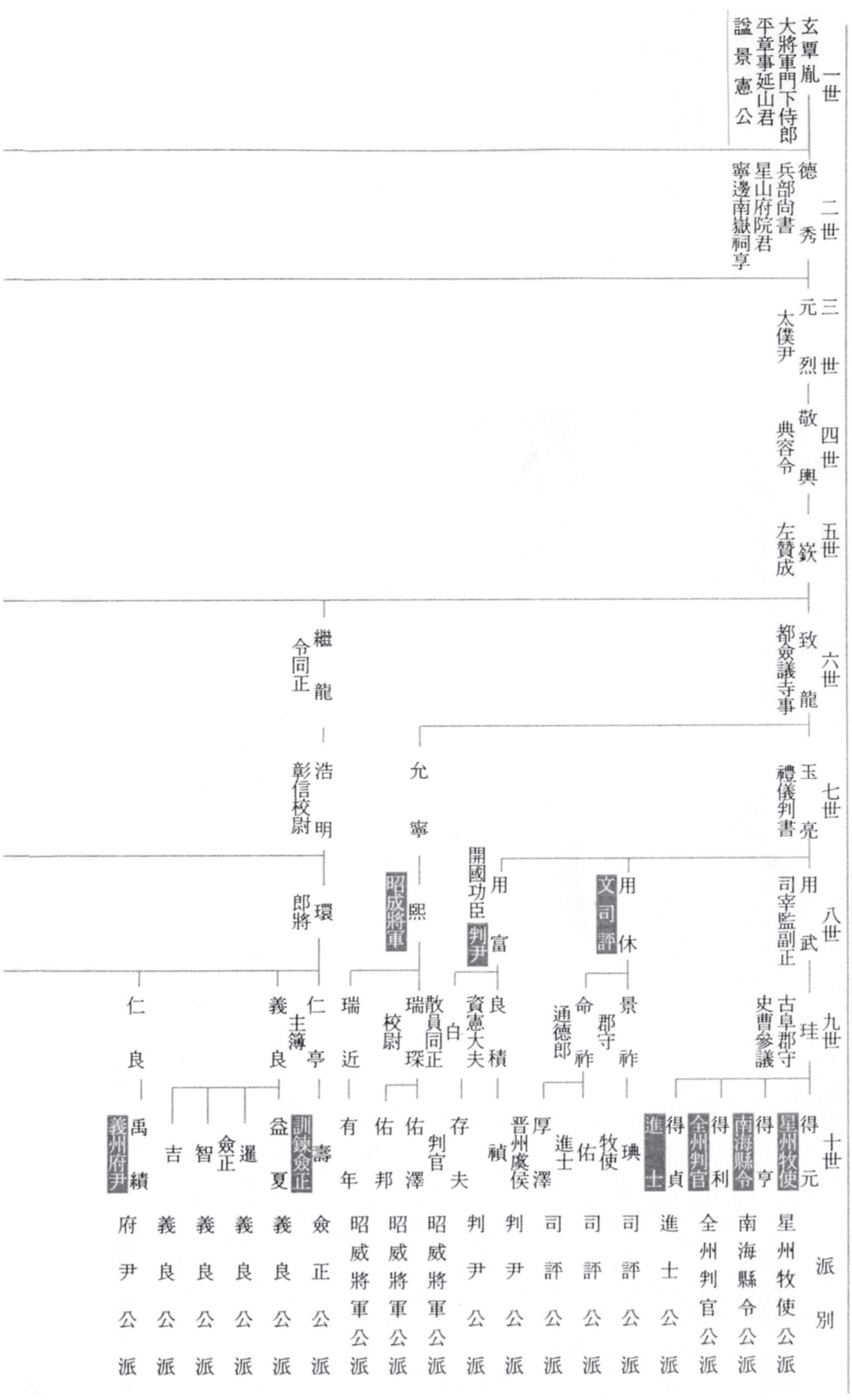
夜(yè) 周代有名叔夜者，其后以其名为氏。/夜龙：汉代洛阳人，灵帝光和中曾以箭射皇城北阙。

亭(tíng) 秦汉有亭一级行政

제 5
연주 현씨延州玄氏 일원분파도一源分派圖



延州玄氏 一源分派圖


一世 玄覃胤 大將軍門下侍郎 平章事延山君 諡景憲公
二世 德秀 兵部尚書 星山府院君 寧邊南嶽祠享
三世 元烈 太僕尹
四世 敬輿 典容令
五世 欽 左贊成
六世 致龍 都僉議寺事
七世 玉亮 禮儀判書
八世 用武 司宰監副正
九世 珪 古阜郡守 史曹參議
十世 得元 星州牧使 派別 星州牧使公派
得亨 南海縣令 南海縣令公派
得利 全州判官 全州判官公派
得貞 進士 進士公派
璃 司評 司評公派
景祚 郡守 通德郎
用休 文司評
厚澤 晋州廣侯 判尹公派
用富 開國功臣 判尹
良積 禎 判尹公派
資憲大夫 存夫 判尹公派
白 散員同正 珡 昭威將軍 佑澤 昭威將軍公派
瑞 校尉 昭威將軍公派
允寧 熙 昭成將軍
瑞近 有年 昭威將軍公派
進士 通德郎 祚 司評 進士 厚澤 司評公派
牧使 佑 司評公派
佑邦 昭威將軍公派
繼龍 令同正
浩明 彰信校尉
環 郎將
仁亭 主簿 義良 訓鍊僉正 壽 僉正公派
義良 益夏 義良公派
運 義良公派
僉正 義良公派
智 義良公派
吉 義良公派
仁良 禹績 義州府尹 義州府尹公派

새로 정립하는 연주현씨 원류사源流史

편 저 자 : 玄昌基

초판인쇄 : 2019년 12월 25일

펴 낸 곳 : **延州玄氏大宗會**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47 미도파 광화문빌딩 604호

전　　화 : 02-739-6712

인　　쇄 : 바른역사

비매품